

北濟州郡 舊左邑 松堂里

現地學術調查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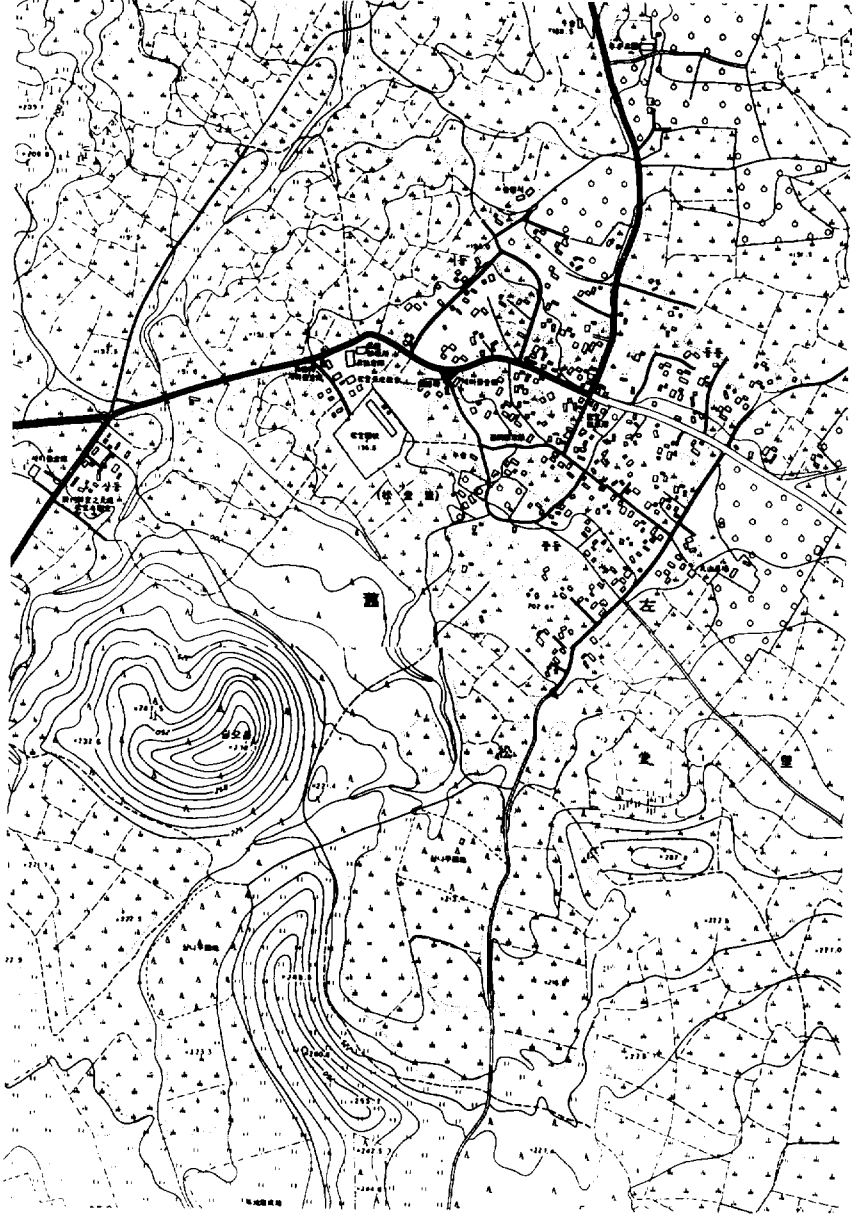
(1996. 8. 2 ~ 8. 5)

- 調査経緯 ● 132
- 마을개황 ● 135
- 方言 ● 148
- 民謠 ● 173
- 說話 ● 187
- 信仰 ● 236



송당리사무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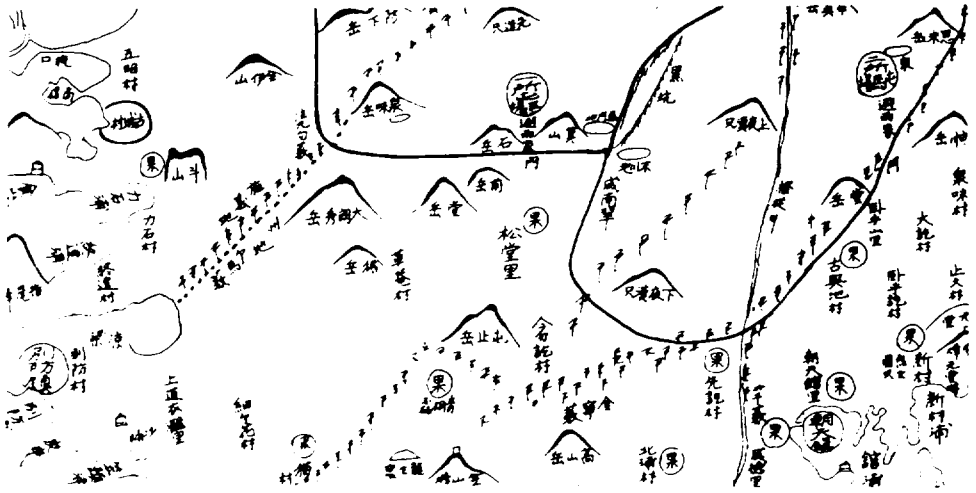
송담 부근지도



송당 고지도 (부근)



濟州三邑全圖 1



濟州三邑全圖 2

調查經緯

우리 국어교육과의 학술조사는 방언·설화·민요·신앙 등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하여 강의실에서 익힌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재발견 및 재평가의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조사 참여자들의 자긍심과 협동심을 고양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취지 아래 1976년 성산읍 난산리의 조사를 시발로 1995년 애월읍 금덕리 까지 17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번 조사는 1996년 8월 2일(金)부터 8월 5월(月)까지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에서 이루어졌다.

학술조사에 앞서 5월 29일, 7월 10일 2차례에 걸쳐 사전 답사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학술조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 이 때 송당리장을 비롯하여 부녀회장, 송당초등학교장, 그리고 송당리 마을 주민들과 미리 만나서 협조를 구하였다. 또한 숙식, 취사, 교통과 같은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고, 마을 현황 전반에 걸친 예비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학술답사 예비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조사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재직 교수, 재학생, 그리고 동문이 참가했다. 현승환(마을개황), 최규일·김태곤(방언), 윤석산(민요), 안성수·문성숙(설화반), 손오규(신앙) 교수가 각 분야에 걸쳐 지도를 하였다. 그리고, 고창근·좌혜경·변성구·임용진·강정식·현승춘·강필재 등 여러 동문이 도움을 주었다. 참가 학생은 다음과 같다(()속은 재학년).

- 마을개황 : 장은심, 고경림, 고상수(3), 윤선이, 신지향, 강정희, 고은정(2), 오윤정, 문지원, 고진숙, 양정환(1)
- 방 언 : 진주연, 문성요, 오영수(3), 사중회경, 서마음(2), 이선애, 이행주, 박소영, 김은영(1)
- 민 요 : 장혜경, 양진, 김희순(3), 부경실, 이은정, 홍경애(2), 김은주, 임순심, 김인영, 이지윤(1)

松堂里 學術調查報告

설 화 : 문경은, 양은정, 김명성(3), 김명희, 송정일, 허순덕, 김명수(2), 김지현,
고성희, 현명은(1)

신 앙 : 정 진, 송선임, 김연수, 김지영(3), 김소현, 홍경남, 변숙자, 심금현(2),
강혜자, 신순심, 이은희, 김은정(1)

조사 활동은 3박 4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1일(8월 2일) : 오전 9시 30분에 학교에 집결하여 인원과 장비를 점검하고 10시에 학교 버스에 승차하여 11시 경 숙식장소인 송당초등학교에 도착하였다. 1시까지 숙소 정리와 점심식사를 마친 후에 송당초등학교장님으로부터 간단히 마을개황을 들었다. 2시부터 각 반별로 조사 준비를 하고 3시부터 예비조사를 겸하여 조사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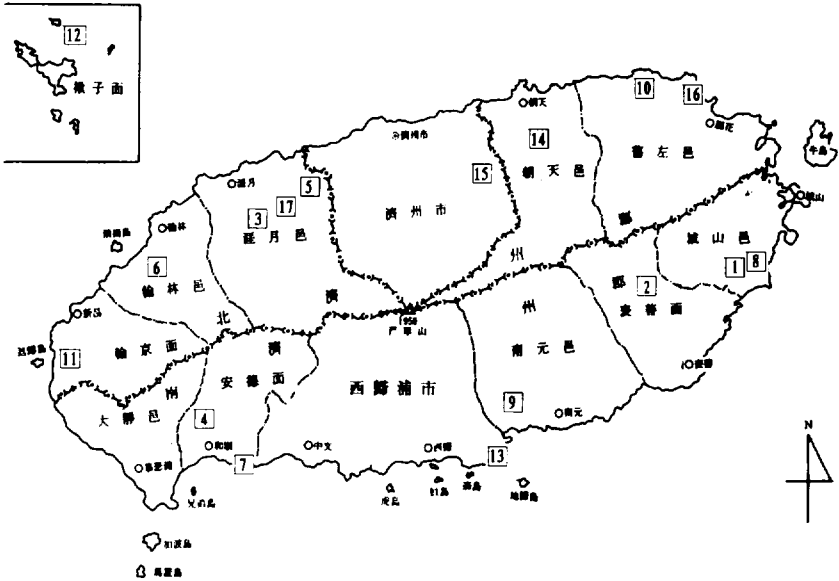
제2일(8월 3일) : 첫날의 대략적인 조사 성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오전, 오후, 저녁 3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제3일(8월 4일) : 지금까지의 조사를 자체 평가한 다음 미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밤에는 '국교인의 밤' 행사를 통하여 전체적인 조사 현황에 대한 평가회 및 정리 시간을 가졌다.

제4일(8월 5일) : 미비한 부분을 보충, 마무리하여 오후 12시에 귀로에 올랐다.

끝으로 조사에 도움을 주신 송당리 마을 주민들과 송당리 이장님, 노인회장님과 숙소를 제공해 주신 송당초등학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자리를 함께 하셔서 지도해 주신 교수님과 여러 동문선배님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또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땀흘리며 조사를 이끈 각 반장과 조사반원들, 참가자의 건강에 힘쓴 여러 학우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기존 조사지점도(1976~1995)



- | | |
|-------------------------|-------------------------|
| ①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1976. 8) | ⑩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1988. 7) |
| ②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1977. 7) | ⑪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1989. 7) |
| ③ 북제주군 애월읍 남읍리(1978. 8) | ⑫ 북제주군 추자면(1990. 7) |
| ④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1981. 7) | ⑬ 서귀포시 보목동(1991. 7) |
| ⑤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1983. 8) | ⑭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1992. 7) |
| ⑥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1984. 8) | ⑮ 제주시 봉개동 회천리(1993. 7) |
| ⑦ 남제주군 안덕면 대평리(1985. 8) | ⑯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1994. 7) |
| ⑧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1986. 7) | ⑰ 북제주군 애월읍 금덕리(1995. 8) |
| ⑨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1987. 8) | |

마을개황

目次

- I. 自然環境
- II. 歷史的 背景
- III. 人文環境
- IV. 產業環境
- V. 歲時風俗

I. 自然環境

松堂里는 坪垆里에서 남쪽으로 9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中山間 마을이다. 이 마을은 광활한 牧野地와 農土를 보유하고 있으며, 舊左邑의 등성마루 구실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동쪽으로는 細花里, 북쪽으로는 坪垆里와 漢東里, 남쪽으로는 城邑里・終達里와 접하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14.6℃로 비교적 따뜻하나, 해발 200m에 위치하고 있어서 해안마을에 비해 기온차가 심한 편이다. 또한 강우량도 한라산 북쪽 지역이 연간 1,500mm 내외이나 이 지역은 훨씬 많은 편이다.

이 마을의 해발 200m 이하에는 주로 耕作地가 많은 편이고, 그 이상에는 山岳과 牧野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이 火山灰土의 척박한 땅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 농약과 비료가 없던 옛날에는 堆肥나 두엄을 이용하였으나, 廣畜을 하는 이 마을로서는 충분한 거름이 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재해를 당했을 때는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 마을에서는 흉년을 당했을 때는 피나 보리, 밀, 산디[陸稻] 등을 구황작물로 이용하였다. 흥태휴씨에 따르면 여름에는 봄에 파종한 감자를 수확해서 먹었다 한

다. 감자를 그대로 찌서 먹거나 쌀과 같이 넣어 감자밥을 지어 먹기도 했다. 또, 이곳에서는 보리 농사가 잘 안되므로 주변 마을 가운데 보리 농사가 잘 되는 하도, 김녕, 함덕 등에서 꺾다 먹었다가 가을에 메밀 쌀이나 산디로 갈아주는 풍속도 있었다. 뒷날 미국에서 강냉이를 구호물자로 보내와 그나마 식량난을 덜기도 했으나, 재해가 심했을 때는 지금의 닭사료와 비슷한 밀겨를 먹기도 했다.

제보자 박봉주氏에 따르면 이 지역은 원래 上洞(윗송당), 中洞(셋송당), 下洞(알송당), 강전동, 가시남동, 大川洞(드랭이), 장터로 나뉘었으나 4·3 사건으로 강전동, 가시남동, 장터가 소실되고 주민들이 떠나버려 지금은 上洞, 中洞, 下洞, 大川洞으로만 나뉜다고 한다.

이 마을 가구 가운데 50% 이상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나들이를 한다. 대중교통 수단인 시외버스는 겨우 1~2시간에 1번씩 운행되는 정도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불편이 크다. 생활필수품은 주로 5일장을 통해서 구하곤 했다. 40~50년 전에는 金寧場을 이용했었으나, 지금은 細化場을 이용하고 있다.

이 마을에는 식낭깨, 돌오름물, 거سن샘, 대물, 옷빌레 등 많은 하천이 있다. 그러나 식수로 마땅한 곳은 돌오름물과 거سن샘에 불과하다. 그것도 그 水量이 적어 여름에는 하천의 흐르는 물을 받아 마시기도 했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상수도가 시설되어 비로소 개인 수도를 사용하는 편리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II. 歷史的 背景

松堂里 設村에 대해서 우선 참고할 수 있는 기록은 고려조 毅宗 때 中侍郎 高兆基의 『松堂夜留』이다. 이 밖에도 金海金氏인 金太伯의 13世祖 金彦良이 朝天面에서 이주해 왔고, 光山金氏인 金鑣兌가 南元邑 漢水里에서 이 곳으로 이주해 왔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이 마을의 設村은 지금으로부터 900年前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마을 박봉주氏는 元이 제주도를 지배했던 650餘年前에 설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그 理由로 元은 목축업을 주로 경영하였는데, 지금의 松堂牧場이 그 대표적인 목축장으로 第1所場이었고 또한 이 지역에 아직도 遊牧民이 살았던 흔적이 많은 것을 들 수 있다고 한다.

松堂里 學術調查報告

松堂이라는 地名은 堂이 있던 터라는 데서 연유한다. 이 마을 송당머르(松堂旨)에 堂이 있었다. 이 堂이 있는 밭에 古松이 서 있어 다른 마을의 행인들이 이 곳을 소나무 있는 집이라고 부른 데서 ‘松堂’이라는 지명이 유래했다고 한다.⁵⁾ 그러나, 이 마을 채회주氏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弓裔가 松嶽에 도읍을 정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나, 서기 918年 泰封國이 망하게 되었다. 이 때 고림 신분이던 金白祖(白祖는 尊稱이며 맑은 조상이라 부름)가 세 溟州(상궁), 蘇天國(天國은 尊稱이며 武將임)을 대동하여 탐라로 避難했다. 가물개(현재의 三陽洞)로 入島하여 稭來里 祖緣納에서 蘇天國과 부부인연을 맺고 사냥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松堂里로 이주하자 里民이 숭배하게 되었다. 死後에는 本榔堂 神祠에서 모시게 되었다. 松嶽에서 온 金白祖가 堂神이 되었기 때문에 松堂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야기의 요점은 “松嶽에서 온 金白祖가 堂神이 되었기 때문에 松堂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송당이라는 지명의 유래를 설명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설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이야기를 토대로 하면, 지금부터 1,000여년 전에 마을이 설촌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지역은 현재 上洞, 中洞, 下洞, 大川洞으로 나뉘어 있으나 4·3사건이 발생하면서 폭도들의 살인, 방화 등에 의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버린 채 細花, 坪垌, 漢洞, 金寧 등으로 떠나버려 지금의 下洞에는 목장을 경영하는 2~3가구가 살고 있을 뿐이다.

옛날에는 척박한 땅에 농사도 잘 안되어 살기가 어려워 가난한 동네라 하여 ‘덕리송당’이라 불렀다 한다. 이는 舊左邑에서는 송당이 제일 못 살고, 朝天面에서는 교래리가 제일 못 산다하여 붙여 불리어졌던 것이다. 또 혼인관계에 있어서도 이 마을 처녀들은 다른 동네로 시집을 갈 수 있었으나, 다른 동네 처녀들은 송당이 가난하여 시집가면 고생한다 여겨 이 마을로 잘 들어오지 않으려 했다 한다.

5) 夫美性 著, 『舊左邑志』(1986)

‘松堂’의 ‘堂’을 집의 뜻으로 풀이한 셈이다. 그러나, ‘당이 있는 곳’에 ‘소나무가 있는 집’이 있었기 때문에 ‘松堂’이라 했다는 것은 ‘堂’을 이중으로 풀이한 것이므로 자연스럽지 않다. 더구나 당이 있는 곳에 다시 집이 있을 리 없다.

Ⅲ. 人文環境

송당리에는 1995년 12월 현재 330가구 1,161명이 살고 있다. 중산간 지역인 까담에 대부분의 가구가 농업과 목축업을 하고 있다.

<표1> 가구 및 인구

(단위 : 가구, 명)

가 구 수			인 구 수		
계	농 가	비농가	계	남	여
330	210	120	1,161	592	569

(구좌읍사무소 제공)

이 마을에는 처음 이 곳으로 이주해 살기 시작했다는 金海 金氏와 光山 金氏가 가장 많다. 高氏, 李氏, 姜氏, 朴氏, 鄭氏, 洪氏, 許氏 등이 그 다음이다.

<표2> 기호별 성씨 분포

(단위 : 가구)

계	金	高	李	姜	朴	鄭	許	洪	安	기타
330	120	52	21	13	13	10	10	10	9	72

(구좌읍사무소 제공)

<표3>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성별 \ 연령	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계	1,161	143	202	257	176	93	130	104	32	24
남	592	77	106	149	105	46	63	33	6	7
여	569	66	96	108	71	47	67	71	26	17

(구좌읍사무소 제공)

마을 기관으로는 老人會, 青年會, 새마을 婦女會가 있다. 老人會는 1994년에 조직된 것으로 만 65세 이상의 남녀가 자동적으로 회원이 되도록 회칙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65세 가량의 사람들은 노인회에 가입하기를 꺼린다. 현재 회원은 110

松堂里 學術調查報告

여 명인데, 이중 남자는 27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 노인회에서는 송당초등학교가 방학을 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절교육과 서예교실을 열고 있다. 또한 마을간 친선 게이트볼 경기를 주최하고 있다.

노인회는 다음과 같은 회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송당리 노인회 규약

제 1 장 총 칙

- 제1조 본회는 송당리 노인회라 칭한다.
- 제2조 본회의 회원은 만육십세 이상으로 한다.
- 제3조 본회의 사무소는 송당리 노인회관에 위치한다.

제 2 장 실 천 사 항

- 제4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조상전래의 미풍양속과 마을 전통을 보전, 전승하며 청소년 선도 등 주민에게 윤리도덕과 충효사상을 확립하며 현하 국제화, 개방화 시대가 되다 보니 지역사회간 사소한 일에 주민간, 가족간에 불미스러운 시비를 야기하여 갈등을 초래하는 현실을 좌시함이 없이 우선 차선책을 강구하여 상호간 인내, 이해로 양보하고 화합 무드를 조성하는데 탕평책으로 중간역할을 하는데 솔선 노력키로 한다.

제 3 장 조 직

- 제5조 본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제6조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간사 3인, 고문 약간명을 두되 이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7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원을 총괄한다.
- 제8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 제9조 본회 운영에 관한 전반업무를 처리, 관리한다. (단, 회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재 정

- 제10조 본회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 1. 본회 운영에 관하여는 군 보조금과 사회인 찬조금으로 한다.
- 제11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하여 회원중 상조시 화환과 소주 한 상자를 조의한다. (단, 화환대는 김성중씨가 지속적으로 부담키로 한다.)
- 제12조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일로 정한다.

제13조 본회 임원임기는 년으로 정한다.

이상 미비전은 가감할 수 있다.

년 월 일

또 青年會는 조직된 지 30여 년이 되는 뿌리 깊은 모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이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고성환氏에 의하면, 모임의 활동보다는 생업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버이날 행사나 체육대회 정도의 활동에 그친다고 한다.⁶⁾ 자세한 내용, 규약 등을 밝히기를 꺼려 다른 마을과 같이 심층적 조사를 할 수 없었다.

1962년 深井 굴착으로 그 동안 어려움을 겪어오던 식수난이 해결되었다. 그러나, 용수량이 부족하여 泉岳의 생수를 수도로 이용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어승생의 수원을 이용하면서 1971년경 개인수도가 가설되어 비로소 식수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1968년경에는 송당과 평대간을 순환운행하는 버스가 개통되었다. 또한 1966년경부터는 경운기가 보급되기 시작하여 농업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1975년에 전기가 들어왔다. 1971년경에는 자석식 전화가 로터리에 시설되어 통신의 혁명을 맞았는데, 1986년 7월 31일에는 자동식 전화가 160여대 가설되어 전국 각 지역은 물론 외국에까지 통화할 수 있게 되었다.

IV. 產業環境

이 마을 사람들은 中山間에 마을을 형성하여 대대로 내려오는 동안 광활한 牧野地와 耕作地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작지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火山灰土로 이루어져 있어서 가난을 면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면서 강인한 의지와 근면성으로 나름대로의 생활을 영위해 왔다. 과거에는 조, 육도(陸稻), 피, 콩, 모밀, 감자, 고구마 등을 주로 재배했으나 최근에는 점차 경제성이 높은 육도, 메밀, 더덕, 도라지, 드릅, 무, 야콘

6) 이밖에 청년회의 회칙과 활동, 그리고 부녀회의 활동상황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하지 못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조사자들이 관계자들로부터 협조를 얻어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등을 주로 재배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3> 토지 이용현황

총면적(km ²)	경지면적 (ha)		
	밭	논	과수원
36.27	1,346	-	6

(1995. 12. 31. 현재, 구좌읍사무소 제공)

<표4> 1996년 夏作物 파종 신고 면적

(단위 : 평)

메밀	더덕	도라지	드릅	무	야콘
4,700	124,760	1,570	430	3,000	620

(구좌읍사무소 제공)

또한 이 마을은 과거 一所場으로 목장을 운영한 이래, 광복 이후인 1954년에 송당리 해발 200m 이상되는 지대의 초원을 牧場으로 개간하여 운영한 결과 제주도 유일의 國立家畜試驗場으로 선정되었다. 1956년 9월에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제주 목장 신설을 계획하고 목장 후보지를 답사하여 그해 大統領令으로 제주 목장으로 公布되었다.

현재는 각 동별로 放牧을 하고 있으며, 기타 개인별 운영 목장이 있다.

<표5> 가축현황

(단위 : 마리)

소	닭	돼지	말
2,711	25,000	96	327

(1995. 12. 31. 현재, 구좌읍사무소 제공)

V. 歲時風俗

歲時는 자연의 주기이며, 농사의 주기다. 그러므로 歲時風俗은 농사의 주기, 즉 절기에 따라 신앙과 생산의 공동체가 절후에 맞게 또는 '달거리'로 일정하게 치르는 명절, 의식, 놀이의 관습이다. 이러한 歲時風俗에는 생활과 의식이 응결되어 엮여지고 있어서 폭넓은 생활문화가 반영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척박한 땅을 일구며

어려운 생활을 했던 옛 사람들의 근면정신과 절약정신이 세시풍속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송당의 월별 세시풍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월(正月)

1) 명절 옷 마련

여인들은 설달부터 남편의 바지, 저고리, 대님, 허리띠를 바느질하기 시작하여 옷을 다 해놓은 뒤에 시부모, 시형제, 시누이 차례로 옷을 지었다.

2) 정월 초하루(설)

옛날에는 舊正을 쇠었는데, 일제시대 때부터는 新正을 지내다가 근래 다시 舊正을 지내고 있는 형편이다. 여자들은 식구들의 명절 옷을 손수 마련한 후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의무라 여겼고, 음식은 고기적, 바닷고기(생선) 구운 것, 떡, 묵 정도만 차리고 요즘 같은 온갖 부침류는 하지 않았다.

정성 들여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국명절'과 '밥명절'로 나누어 제를 지낸다. 아침 새벽녘에 조상님께 '골미떡'과 메밀국수를 하여 술과 함께 조상 수에 맞게 차려 올려 절을 하는데, 이를 '국명절'이라 한다. 국명절이 끝나면 집안 식구들끼리 아침 식사를 하고 집안 어른들께 세배를 드린다. 그 다음에 밥과 고깃국을 올려 절을 하는데, 이를 '밥명절'이라 한다. 밥명절을 한 후에야 친척 어른들을 찾아뵈어 세배를 드린다.

또, 같은 집에 살더라도 바깥채에 사는 손자가 안채의 할머니를 찾아뵈는 명절이 끝나서야 세배를 드릴 수 있었다.

3) 날씨 보기

이 지역은 목축과 밭농사를 중심으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날씨를 중요시 여겨 정월에 자연의 현상을 보며 1년간의 날씨를 예측하기도 했다. 우선 설달 그믐날 밤에 하늘에 별과 구름끼는 것을 보고 점을 치는데, 하늘이 어둡고 이에 비해 땅이 밝으면 농사가 잘 될 것이라 믿었고 그 반대이면 흉년이 든다 하였다.

그 외에도 정월 초하루 자시나 축시쯤에 보리뿌리를 한 두개 뽑아서 그 뿌리의

상태를 보고 그 해의 풍년과 흉년을 점칠 수 있었다 한다. 보리뿌리를 뽑아 보아서 그 뿌리가 3개 이상이면 그 해의 농사는 풍년이 되고, 2개면 보통, 1개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4) 떡집

정월 열 나흘 날, 즉 정월 대보름 전날 저녁에 떡을 찌는데 떡이 잘 되면 올해 운수가 좋을 것이라 믿었고 동네 사람들끼리 그 떡을 나눠 먹었다.

떡을 찰 때 층마다 백지에다 식구들의 이름을 써서 놓고 같이 찌는데 그 해에 액운이 있을 사람의 이름이 있는 층은 떡이 익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그 집안에 액운이 있을 것으로 나오면, "놈 알게 무시겨 해사켜(남이 알게 무슨 일을 해야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굿을 한다'는 의미이다.

5) 연날리기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쟁연'이나 '개굴래비연(방패연)' 등을 날린다. 여기에도 각자의 이름을 써서 연을 날리다 가위로 실을 끊었을 때 연이 떨어지지 않고 멀리 날아가면 그해 만수무강한다고 믿었다.

6) 새 철 드는 날(立春)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날은 '새 철이 든다' 하여 새 절기가 드는 시간에 대문이나 부엌 등에 春榜을 써 붙여 한 해의 소원이나 복을 기원한다. 또 이 날은 여자들의 외출이 금지되었다. 만일 여자가 남의 집에 찾아 가면 그 집 밭에 검질(김)이 무성해진다고 믿었다. 그래서 여자들이 다른 집에 가려고 하면 "뜨거운 물로 데쳐 버린다, 가지 말아라."하고 말렸다고 한다. 또한, 다른 집 여자가 불가피하게 방문했을 경우에는 검질을 지워 돌려 보냈다 한다.

7) 신구간(新舊間)

신구간은 제주도의 독특한 풍습이다.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때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모든 신이 천상에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한 해의 모든 일을 보고하고 새 부임지를 명받아 돌아온다고 한다. 이 기간에는 인간 세상에 신들이 없으므로 집안의 여러 일을 해도 아무 탈이 없다고 한다.

신구간에는 솔덕도 고치고, 산담(묘의 울담)이 휘어진 것도 고친다. 보통 때는

방위가 막혀 이사를 못 가지만 친구간에는 방위가 트이므로 이사를 갈 수 있다. 제주도 사람들은 요즘도 친구간에 이사를 한다.

이사를 갈 때는 청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간다. 이는 마치 죽은 사람이 이승을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한다. 나갈 때는 제일 먼저 술에 요강을 넣고 요강 속에는 성냥 하나를 넣어 들고 나가고, 그 다음으로는 이불포를 가지고 나간다. 만약 가까운 집으로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그 집이 방위에 맞지 않으면 정해진 방향으로 돌아서 가고, 나갈 때는 '푸른 채'와 '대채'를 가지고 나간다.

2. 이월(2月)

1) 영등굿

음력 2월 초하루는 영등할망이 오는 날로 강남 천자국에서 바다 건너 제주도에 들어오는 이 영등신은 '바람의 神'으로 제주도에 들어와 약 15일 동안 농사, 어업, 목축 등에 많은 도움을 주고 가는데, 이때 하는 곳을 '영등굿'이라 한다. 송당에서는 이 굿을 할 때 심방을 빌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당에 모여 음식을 차리고 그 해의 액운이 가시기를 기원하는 정도이다.

2) 청명(淸明)

먼 옛날부터 이 淸明日에는 先墓에 가서 허물어진 산담이나 봉분을 정비하고 비석을 세우기도 한다.

3) 한식(寒食)

寒食은 중국의 介子推라는 忠臣의 닳을 기리는 데서 유래되었다. 이 날을 명절로 정하여 조상에 대한 차례를 지낸 후 선묘를 단장하는데, 이 마을에서는 지금도 일부 가정에서 행하고 있다.

3. 오월(5月)

5월 端午는 예로부터 음력 5월 5일을 단오날로 정하여 설, 한식, 추석과 더불어

松堂里 學術調查報告

4대 명절의 하나로 조상에 대한 차례를 지내는데 송당에서는 지금까지 차례를 지내는 집이 있다. 또 이 날 인동고장(인동꽃)이나 익모초와 같은 약초를 캐기도 한다.

4. 유월(6月)

6월에는 다가오는 여름의 더위를 잘 견뎌낸다는 의미로 닭을 잡아먹기도 하였다. 또 복물을 맞으러 다니기도 하였는데 옛날 이 마을의 사람들은 복물을 맞기 위하여 20여 km를 걸어서 천지연 폭포나 돈네코 등으로 찾아 다니기도 했다.

5. 칠월(7月)

1) 갈옷 감물 들이기

팻감을 뺏아 물에 타서 그 감물을 풀을 먹이 듯 비벼 물을 들인다. 말릴 때 바지통이 서로 붙지 않도록 양쪽 바지통에다 종이 뭉치같은 것을 가득 담아 말린다. 햇볕에 잘 말려야 감물이 잘 들여지며 만약 감물색이 안 좋으면 이슬을 맞혔다가 다시 말린다.

2) 칠석(七月 七夕)

칠석날은 전우 직녀가 은하에서 만나는 날로 이 날 내리는 비는 이들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라 한다. 이 날 특별한 행사는 없고 절간에서 조출한 행사가 있다 한다.

3) 백중날 물 맞기

백중에는 牧畜業을 하는 사람, 大農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명절과 같이 산야에 가서 祭를 지내는데 이 마을은 지금도 목축을 하고 있으므로 祭物을 차려서 祭를 올리고 있다. 백중제는 '테우리(牧者) 명절'이라고도 하여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祭物을 장만하여, 그날 밤 子時에 제를 지낸다.

또 백중날에 물 맞으러 가는 풍습이 있는데 이 물맞이는 밭일 등 심한 노동으로 인한 육신의 피로를 쫓고, 오랜만에 산수를 유람하는 휴양이나 소풍과 같은 의미

가 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옥수수 같은 약간의 간식을 가지고 천지연 폭포나 돈네코로 삼삼오오 짝을 지어 간다. 신경통을 고친다는 목적도 있었지만, 여자들에겐 여름휴가인 셈이었다. 백중날은 하절기의 물에서 동절기의 물로 갈리고 바뀌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의 물맛이는 윗병, 허릿병, 열병, 냉병을 비롯한 속병을 고쳐준다고 한다.

6. 팔월(8月)

1) 벌초

음력 팔월 초하루는 벌초하는 날이다. 이 날은 가족이 모두 모여 벌초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날 가문 소분과 개인 소분을 모두 했지만, 지금은 가문 소분만 하고 개인 소분은 이 날이 아니더라도 팔월 추석 전에만 하면 된다.

2) 추석

팔월 보름날로 이 날은 집에서 차례를 지내며, 어떤 집에서는 성묘를 하기도 한다. 저녁이 되면 줄다리거나 씨름 또는 여자들은 달을 보러 가기도 한다.

7. 동짓달(11月)

11월 동짓날은 팔죽을 쑤 먹는다. 붉은 팔을 쓰는 것은 사(邪)한 것을 막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며, 팔죽을 쑤워 먹기 전에 집 어귀에 숟가락으로 떠서 뿌리면서 액을 막기도 한다. 그러나 만일 동지가 동짓달 초열흘 전에 들면, '애기동지'라 하여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팔죽을 쑤지 않는다.

참고문헌

『구좌면지』

부영성, 『구좌읍지』, 1986

『송당 향토지』, 송당국민학교, 1987

제보자

박봉주(남·70세) 고여봉(남·79세) 채회주(남·79세) 고성환(남·??세)
고평선(여·80세) 홍대휴(남·??세)



제보자 고평선



제보자 고성환

方 言

目 次

- I. 평 서 법
- II. 의 문 법
- III. 감 탄 법
- IV. 명령·칭유법
- V. 지 명

이번 조사의 목적은 주로 동사의 어미 활용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명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였다.

동작동사의 어미활용 중에서도 조사자들은 敍法의 체계에 주목하여 그것이 대우법과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 다음 두가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첫째, 敍法으로는 <평서법, 의문법, 감탄법, 명령·칭유법>의 체계와 <직설법, 회상법, 추측법, 의도법>의 체계를 설정하였다.

둘째, 待遇法으로는 호라체, 호여체, 흡서체의 세가지를 설정하였다.

그런데, 감탄법의 경우는 대우법과의 결합형을 추출할 수 없고, <직설·회상·추측·의도>의 서법을 생각할 수 없었다. 명령·칭유법의 경우는 <직설·회상·추측·의도>의 서법과의 결합형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감탄법의 경우 다른 서법 체계나 대우법과의 결합형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명령·칭유법의 경우 대우법과의 결합형만 설정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각 서법의 형태만을 표시할 경우 조사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것들을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특히, 동작상과의 결합에서 그러하였다. 따라서 되도록 선어말어미 이후 결합되는 형태는 모두 표시하려고 하였다.

조사자들은 조사를 위하여 이들 어미의 활용형태를 미리 도표를 작성하여 준비

하였고, 그에 따른 질문지를 작성하여 그 형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럼으로써 간혹 조사자들이 갖고 있는 항목에 없는 것들은 조사를 통하여 보충시킬 수 있었다. 조사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현평효의 연구¹⁾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I. 평서법

1. 허라체

1) 直說法

-엄/엄저

쇠 출 잘 먹엄찌.

나 어디 일 허레 값찌.

가이 저디 빨리 뛰어 오람찌.

-나/-나다

입매 조난 보리낭이고 아무거고 잘 먹나.

이것도 먹는거여. 이것도 먹은다.

-엄/엄시네

그 쇠 버무령 주지 안헤부난 안 먹엄시네.

복이 없어서 그냥 이 모양 이 꼬락지 된 망쳐가지고 헤영 살엄시네.

-어/아세

나 이거 먹고파도 느 오민 주젠 놔뒤세.

-어/아시네

이디도 도리 공사가 상당히 빨리 땃젠 헨디게. 우리도 이디 집 하나 들
어가시네.

2) 回想法

1) 현평효, 『제주도방언의 정동사어미 연구』(아세아문화사, 1975).

-어/아라

지내만 쳐 먹으멍 먹으렌도 안헤라.

-엄/암서라

그 사람 어떻 헨 놀암서라.

아이고 요 누개넨 콩 이제사 것겹서라게.

-어/아서(라)

나 이되서 어제 콩 싱거서.

이거 느 생각헿 가져와서라.

많인 아이 먹어서라.

-어/아나서라

'제사떡 누개가 앓다 봐나서라.' 영 허민 누개네 제사가 넘엇젠을 허나.

경 헿 헿가민 다 알아져. 어신 때 앓다 봐도

-어/아났저

으 우리 옛날 이런 거 먹어났저.

-어/아나시네

옛날에 이것도 먹어나시네.

-크라라²⁾

아이고 이쁘게 허난 느 모든 떡도 이젠 잘 먹크라라게.

3) 推測法

-엄/암실거여

아래 사람한틴 '밥 먹엄실거여' 허고

-어/아실거여

'누개 나쁜 사람 들엉 봉가가불어실거여'엔도 허고

모르주게. 운 좋아시민, 누개 안 봉가가시민, '춷아실거여'엔도 허고

-어/아실거라

남편이 얘기허는 거주게. 먹어실거라.

2) 회상법과 추측법의 결합형임.

-(으)르거여

그 식 밥 헌 건 모를거여.

내일도 늦을거여.

-켜

잘 먹엿찌. 아이고 슬지켜.

-크라라³⁾

아이고 이쁘게 허난 느 몬든 떡도 이젠 잘 먹크라라게.

4) 意圖法

-어/아사지, 어/이야지

이노므세끼 오늘 꽤떡⁴⁾을 멕여사지.

여섯시만 다 돼가가민 여섯시 전에 ‘일어사야지 일어사야지…….’

-어/아사켜

그거 아까완 먹어사켜.

-마

불 숯압시라 나 어디 강 오마.

-엄/압시켜

나 불 숯압시켜. 느 어디 강 오라.

메누리한틴 ‘먹엿시켜’ 허주 뭐엔 골아.

-켜

이거 호썰 숯아도라 먹켜.

-저

영 헤보라게, 호끔 먹어 보저.

느도 먹으라, 나도 먹저.

3) 회상법과 추측법의 결합형임.

4) 말 안들어서 매맞는 것.

2. 호어체

1) 直說法

-엄/엄신게

쇠 잘 먹엄신게게.

게도 고평 알엄신게.

-어/아신게

나들로무 중이 몬딱 이거 쏘무란에 고평 푼랑 몬 먹어신게.

도새기오름? 몰라 그거 원 아이 들어본 말 하신게.

-엄/암서

아뭇 소리도 안 헐서. 무사 어땡 허연.

오람서 저기.

-어/아야주

고고리 또 이 도깨로 두드려야주.

-엄/안

쇠 할라비언.

아인 어디 간.

2) 回想法

-어/아선게

중이가 (무엇인가) 먹어비어선게.

거(떡) 아무 사름 아져 오라실거우다. 우리 집이도 아져 오라선게.

-어/아나신게

아이고 이런 되만 땡기명 맨날 돈은 써나신게.

-어/아나서

지금은 미릿내 핫주마는 옛날은 어서나서신게 이 서방아.

남신 만들진 안 헤난디 신긴 헤나서.

松堂里 學術調查報告

- 언/안게

아주 옛날엔 성남도 어서낫젠 헨게.

도새기? 아이고 요디 봐전게.

- 데

그 때 이 열여덟 나민 장게 가볼데.

- 어/아낫주

처암이사 넷돌허고 바다돌허고 헤사 나무틀 매왕으네 몰방엘 맨들아낫주.

쇠 경 많이 질르는 사람은 게 어느 정도 먹을 거 알주게. 알아그네 게
멧 못 비어그넨 집의 드령으넨 묶어그네 늘어낫주.

3) 推測法

- 엄/암실테주

오늘이사 잘 먹엄실테주. 모지리지 안허게 주난.

내염(동네)? 몰르켜 난. 시난 골암실테주.

- 크라

양 가십서. 널 저녁 만나사 허주 안 되크라.

이거 솔빱으로 파는 거라. 이거 아이 되크라게.

-(으)르거라

멧 단 헤가지고, 이거 쇠 먹을거라.

경 허영 풀민 얼마나 돈이 할거라.

-(으)르테주

입매가 좋으민 그거민 먹을테주. 멧 못이민 되어.

아져오른 게 거 메뉴리가 앗다 줄테주.

4) 意圖法

- 크라

우리도 보리 풀크라.

- 어/아주저

이래 아저옵서 내가 다 하간거 혜주저.

-젠

아 우리 이제 밥 먹젠.

-엄/암시크라

(할망한틴) 먹엄시크라.

3. 흡서체

1) 直說法

-엄/암수다

나 감자 숯암수다.

손님이 찾아와서 새로 허는 거민 '출렴수다'.

-어/아수다

나 이딴서 콩 싱겨수다.

(무슨 불일이 이스민) 무슨 일 이션 못 와수다.

-어/아수게

옛날엔 그거 행 살아와수게게.

-(으)비네다

밥 아이 잡왕 가민 안되네다. 외방가는딘.

(할오방고란) '아무거나 잘 먹읍네다. 이거 입매 조난'

-(으)비니께, (으)비네께

(우엿사람한틴) 이것도 먹읍니께.

세사름 네사름 다섯사름 들어상 죽저 살저 했자 쓸 훈 말을 못 지읍네께.

-어/아십주

어제 일헨에 간 메어십주 뭐.

2) 回想法

-(으)비디다, -(으)비데다

(하르방신디 말할 땐) 쇠 할라붙디다.

그 해에 바령드런 보리갈아 먹어난 그 그르에 졸 허난 경 되데다.

-어/아십디다

그되 보리 다 비어십디다.

아이 잘 나십디다.

-어/아나수게

눈 쳐 왕 무똥 그드그민 노리가 이꼬지 노려와나수게.

(몰방에) 어서나수게. 이 저 사람들이 츄츄 살아가명 방에를 어디강 멘
들어 오자 헨 뽕짱을 떠단 이제 몰방에를 맨들앙 대역섯씩 들이곡 경 아
니민 몰 매웁곡 쇠 매웁곡 행 그걸 굴안 먹엇주.

-쿵데다⁵⁾

부모보다 흥셀 나시쿵데다.

-엄/암십테다, 엄/암십디다

중이가 고망 푼랑 막 먹엄십테다.

집의서 아파시카 허당 보나네 드르에 간 멘 놔두나네 쇠가 출 잘 먹엄
십디다.

(위엿 사람한틴) 그 사람 어떻 헨 놀암십디다.

오람십테다. 걱정허지 맙서.

-어/아나십디다

밥 좀 먹어나십디다.

3) 推測法

-엄/암실거우다

그 아이 오람실거우다.

밥 먹엄실거우다.

-어/아실거우다

(할망) 어디 서화리나 장 보레 가실거우다.

5) 회상법과 추측법의 결합형임.

짐작으로 거 먹어실거우다.

-쿠다

옳따 헤난 솜씨로 잘 흐쿠다.

-쿰데다⁶⁾

부모보다 흐썰 나시쿰데다.

-(으)르거우다

내일은 먹을거우다.

4) 意圖法

-(으)쿠다

경험서. 그거라도 먹으쿠다.

-엄/암시쿠다

혜엄시쿠다. 혼자 강 읊서.

II. 의문법

1. 흐라체

1) 直說法

-엄/암시(니/냐)

가이 우유 멕여볼라. 무사 경 울렸시?

느 거 무시거 몬직암시?

이되 무시거 허젠 헝시니?

는 그거 안먹는게 어떻게 놈 먹어가나네 굳이 들언 막 먹엿시냐?

일 허레 값시냐?

6) 회상법과 추측법의 결합형임.

-어/아시

이디 봐두나네 누게 들러먹어비어시?

-어/아시냐

용심 안나게 왜시냐?

-엄/엄디, -엄/엄다

어드레 값디?

이거 무시거 맨들젠 헐디?

느네덜 일허레 값다?

-언/안다

아이고 나덜 와다? 혼저 오랑 밥 먹으라.

그거 췌 그냥 출만 쥘다?

-엄/엄샤

계난 7재 안먹언 이제 밥 먹엄샤?

저디 보라. 비 오람샤?

-어/아샤

밥 먹어샤?

(손지가 와서민) 아빠 놀아시냐, 일가샤?

-느니

영 출리민 하르방이 먹느냐? 놈 보민 거 뭐라고 말허느니?

-나

경 허니 누게가 사가나?

-엄/엄나

뭐 숯안나?

(친구한틴) 거 뭐 먹엄나?

-(으)르것가

(먹을타 물어보는 거는) '이것도 먹을것가?'

-어/아니

(자식들 한틴) 무사 늦어니?

2) 回想法

-어/아냐

거 쇠 할라비어냐?

쇠 물도 셔냐?

그 사람 먹켄 거 말아냐?

-어/아서냐, -어/아서니

사료 다 먹어서냐?

야 거 어떻 나서니? 아이 어떻 컴직이 나서냐?

-어/아난다

느 이런거 먹어난다? 아니 먹어봤진 먹어보라.

-어/아나서냐

밥 좀 먹어나서냐?

-엄/암서냐, -엄/암서니

어떻 험서니? 일 험서냐?

쇠 출은 어떻 험 안 먹엄서니?

-어/아나샤

이런 것도 먹어나샤?

-크라냐?)

킵게 나민 '키 크크라냐?'

3) 추측법

-크라냐?)

킵게 나민 '키 크크라냐?'

4) 意圖法

-(으)르타/티

이딴 이신타?

7) 회상법과 추측법의 결합형.

8) 회상법과 추측법의 결합형.

어떻 헐티? 밥 먹을타?

-르레

얼마 받을레?

-엄/암실타

느네만 밥 먹업실타?

-엄/암실레

느네만 밥 먹업실레?

2. ㅎ여체

1) 直說法

-엄/암서

오늘 무슨 일 허레 값서?

무시저 먹업서?

-엄/암신고

그 할으방 무신 거 먹업신고?

저 사람은 어드레 값신고?

-엄/암신가

차 어선 안 웁신가?

잘 되업신가, 말업신가?

-어/아신가

아픈 아이 어떻 나사신가?

무시저 봐두난, 어슨 거 보난, 하르방이 먹어비어신가?

-(으)멘

놀당 가주 무사 가멘?

뫼 습으멘?

2) 回想法

-어/아서(서)

저 앗척이 쇠 사료 잘 먹어서서?

저 예펜 बाट의 간 일만 욱심허단 보난 무신 도새기 튀어나는 철이 알아

서서?

-안/언가

저 주난 먹언가?

-어/아나서

아이고야 그런 거 먹어나서?

-어/아나신고

이전 뭐센 헨 옛날은 이름을 지와나신고?

3) 推測法

-어/아시카, -어/아시코

피밥 설르전 지가 몇년 안돼수다. 스테 후제 이십년 돼시카?

이 학생들이 어디 돈 시명 사오라시코?

-(으)르건가/고

이거 먹을 건가? 이거 앓당 쥐보라 먹을티 말티.

하이고 이걸 어떻 헿 밥을 헿 먹을 건고?

-(으)카

이런 거 아상 강 쥘 먹으카?

-코

무시거 갈민 되코?

4) 意圖法

-코

넬은 비 온덴 허는디 집의서 뭐 허코?

-첸

이거 무시거 험이라? 마께로 맨들첸?

송아지 풀쨌?

-르거라

보리 언제 빌 거라?

-르거고

어디 갈 거고?

-켄

그 사람 먹켄?

3. 흡서체

1) 直說法

-엄/암수과

그거 무스거 맨들쨌 헝수과?

콩 싱겹수과?

-어/아수과

콩 다 것거수과?

그말을 들언 뒷날은 아기 혼글레 가지 안혜수과?

-미과

아 오늘도 아파부난 집의서 놀미과?

-비네까

송당 이젠 피 아이 잡네까?

-비니까?

콩 아이 잡니까?

2) 回想法

-비데가

어떻 행 웁데가?

물 간 질엿 웁데가?

- 비디가

(할망이 하르방신디) 바농 쌍지 어디 높디가?

-어/아십테가

새 사료 잘 먹어십테가?

장꿏 할망 오라십테가?

-어/아나수과

그 그르에 무시거 같아나수과?

옛날 돌방에엔 현 진 셔나수과?

-엄/암십테가

가네들 사는 거 어떻 살암십테가?

어떻 행 먹엄십테가?

-어/아남디가

할머니 피밤 행 먹어남디가?

-어/아나십테가

밤 먹어나십테가?

3) 推測法

-쿠과

별은 비 오쿠과?

4) 意圖法

-르거(우)과

아버지 내일도 늦을 거과?

무슨 풍 갈 거과?

이디 무스거 헐 거우과?

-쿠과

내일은 무스거 허쿠과?

검질 메레 안 가쿠과?

- 엄/엄시쿠과
몬저 먹엄시쿠과?

Ⅲ. 감탄법

- 엄/엄구나
아 이 집의 집 지엄구나.
옏따 침 기운 출리젠 헐구나.
- 엄/엄네
요거 잘 먹엄네.
아 것도 먹엄네이.
- 엇/앗구나
하이구 큰 일거리 벌어졌구나.
콩 갈앗구나.
- 엇/앗네
콩 싱글 때도 아난디 콩 싱것네.
(일꾼들이) 다섯시만 넘어가까민 '갈 때 땀네 갈 때 땀네…….'
- 카부네
물 엇건 취동 오카부네.
- 크라네
물어보크라네. 우리 밧더레 이제 일로 넘어가젠 험수다 헨에.
- 르로구나
아이고 자인 오늘꺼정만 이시민 내일은 갈로구나.

Ⅳ. 명령 · 청유법

1. 흐라체

-(으)라

반찬은 엇다마는 먹으라.

담배 저레 앗다 노라.

낮이랑 쇠출 주라이.

우유 멕이라.

-엄/암시라

밥 어스난 요거 흐끔 신 거 먹엿시라.

불 숯앞시라 나 어디 강 오마.

이디 직혀엿시라.

-자

우리 밥덜 먹잔. 시장허지덜 안허나?

2. 혀여체

-어/아

보리 싹거당 보리 늘어.

나한티 풀아게.

-심

이레 아정 오심.⁹⁾

그만 행 내부심.

-엄/암서

이거라도 흐썰 먹엿서.

--주

유월 스무날랑 둑 잡아먹주.

이레 들어오주.

-게

오라, 물에 가게.

9)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하는 말.

3. 흡서체

-엄/엄십서

이거라도 먹엄십서. 이제 곧 밥 허쿠다.

이거 불 훗설 숯엄십서. 나 어디 강 오쿠다.

-(으)버서

이래 아저읍서. 내가 다 하간저 해주저.

아무거라도 먹고 싶은 거 먹읍서.¹⁰⁾

-(으)시버서

옛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올라오십서 허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요거 그래 먹으십서.¹¹⁾

-(으)버주

이제라그네, 밥 먹읍주. 아이고 배고프지덜 안허봐?

V. 지 명

松堂里하면 신화 전설의 고장이라 할만큼 각 地名마다 전해오는 地名由來 또한 흥미를 끈다. 다음은 이 지역의 地名由來이다.

1. 동네 · 거리

1) 웃송당(上洞, 令田洞)

송당리 1641번지 일대. 松堂里의 위쪽에 위치해 上洞이라고 부르며, 令田洞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지금으로부터 200여년전에 이 마을 출신인 光山金氏 형제가 同房及第를 하여 깃대를 뽑아 풍악을 울리며 이 곳을 令田洞이라 명명했다 한다.

10) 제보자에 의하면 '자십씨'라고 말하는 것은 최근에 와서 남자이거나 조금 유식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다.

11) 미워서 마구 욕하는 소리.

2) 셋송당(中洞, 굴내전)

송당리 1380번지 일대. 中央에 위치하여 中洞이라 불리우나 한편 동네 앞뜰이 움푹한 평야로 둘러싸여 있어 굴내전이라고도 한다.

3) 알송당(下洞)

송당리 513번지 일대. 이 마을의 中央에서 下位에 위치하므로 알송당이라고 하나 4·3 사건으로 廢洞되었다.

4) 들개기목(大川洞)

송당리 2614번지 일대. 예로부터 삼령목장에 들개기목이라는 지명이 있어 그렇게 불렀으나 泉來川이라는 큰 냇가 있으므로 大川洞이라 하였다.

5) 장터(長基洞)

송당목장 안. 본래 목장이 있어서 목장을 할 터가 넓고 길게 뻗었다는 데서 “장기터”라 불렀으나, 이 지역 역시 4·3 사건으로 廢洞되었다.

6) 비석거리

송당리 975번지 일대. 내안가름(옛 당터 옆) 네거리 팽나무가 있는 곳에 제주 牧師의 善政碑 9개가 있어 비석거리라 불렀는데 지금은 다 소실되고 없다.

7) 대물동네

송당리 1917번지 일대. 동네에 큰 물이 있어 대물동이라 불렀고, 대물이 있는 동산을 대물동산이라 불렀다.

8) 삼곡동산

셋송당에 있는 작은 언덕으로, 나라에 국상이 나면 주민들이 이 동산에 모여 북쪽을 향하여 곡을 했다.

9) 기타

(1) 대물골목, (2) 첫손당골목, (3) 로타리골목, (4) 절간골목, (5) 북문동네¹²⁾골목

2. 오름

1) 돛오름(猪岳)

송당리 산 3번지. 산 모양이 돼지와 비슷하여 돛오름이라 불리우다 한자 표기에 의거 猪岳이라 하며 산을 중심으로 坪垆리와 경계를 이룬다.

2) 높은오름(高岳)

송당리 산 213-1번지. 높은 지대에 우뚝 서 있어 高岳이라 하며 松堂里的 代表的인 山岳이다.

3) 문석이오름(文石伊岳)

송당리 산 234번지. 산모양이 文魚形인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4) 아보름(亞父岳)

송당리 산 164-1번지. 산모양이 둥글고 한복판이 움푹 파여 있으며 믿음직하여 마치 가정에서 어른이 앉아 있는 모습과 같다하여 “아보름 → 아버지 오름”이라는 데서 亞父岳이라 붙여졌다.

5) 큰돌임이(大石額岳)

송당리 산 246번지. 산모양이 伏號形으로 범의 이마딱과 비슷하다 하여 “큰 돌임이”라 한다.

6) 작은돌임이(小石額岳)

송당리 2451번지. 大石額岳과 같은 유래이나 그보다는 작다는 데서 연유했다.

7) 백약이오름(百藥惡)

이 산에 여러 가지의 색다른 약초가 많고 그 종류가 百種이라는 뜻으로 백약이 오름이라 부른다.

12) 4·3 사건 때 지명.

8) 민오름(民岳)

산 모양이 손주먹과 같이 매끈하므로 '민작한 오름'이란 뜻에서 민오름이라 한다.

9) 샘이오름(泉岳)

송당리 산 145-1번지. 물이 흘러내림이 샘이 오르는 것과 같다하여 "샘이오름"이라 한다.

10) 당오름(唐岳)

송당리 산 199-1번지. 이 산은 예로부터 산신제를 지내는 堂이 있었으므로 "당오름"이라고 불리었으나 한자 표기로 唐岳이라 한다.

11) 기타

(1) (동·서)거른오름, (2) 체오름, (3) 밧돌오름, (4) 안돌오름, (5) 가문이오름, (6) 아친오름, (7) 불근오름, (8) 손지오름, (9) 성불악,¹³⁾ (10) 되애기오름, (11) 조종머루, (12) 가매옥, (13) 쥐구부니오름,¹⁴⁾ (14) 칩오름, (15) 비치미오름, (16) 거친오름

3. 발·지경

1) 영전밭(令田-)

송당리 1125번지 일대. 官의 소를 기르던 곳으로 成長하면 진상하였다.

2) 득산이티

송당리 71번지 일대. 높은 오름앞에 있는데 득산이가 토굴을 파고 살았다고 하여 득산이티라고 한다.

3) 유구니 굴왓

송당리 128번지 일대. 中洞에서 500m 동쪽의 中山間 도로 부근을 말하는데 유근

13) 성보악, 성보람, 성벼람, 성각락 : 산 이름

14) 쥐가 숨어 있는 모양.

이가 살았다 한다.

4) 당팻

송당리 787, 985번지 일대. 송당리 985번지와 787번지의 일대를 당 팻이라 하는 데 현 당오름에 본향당을 설치하기 이전에 당으로 모셨던 곳이다.

5) 세덕앞은밭

송당리 1937번지 일대. 대물동네 남쪽 1,000m 지점에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설 문대 할망이 솔을 앗혀 밥을 지었다 하여 수톤의 암석 3개가 솔 아궁이처럼 되어 있었는데 중산간 도로 확장시 한개는 없어지고 2개만 남아있다.

6) 콧구멍귀

송당리와 상덕천 경계에 있는 곳으로 콧구멍처럼 구멍이 나 있음

7) 기타

(1) 지믄드름, (2) 뒤고브니, (3) (동·서)목잇도,¹⁵⁾ (4) 비두리통, (5) 종지기야개, (6) 알천못밭, (7) 그물밭, (8) 내갯밭, (9) 새동밭, (10) 무넙도, (11) 굴레왓, (12) 머들 나무들밭, (13) 오디남믄들,¹⁶⁾ (14) 신평밭, (15) 가시남동, (16) 양애굴왓, (17) 새뭉이 굴왓, (18) 오분이굴왓, (19) 거슨쟁이,¹⁷⁾ (20) 울오레기,¹⁸⁾ (21) 너븐밭, (22) 가시남봉 오지,¹⁹⁾ (23) 드(르)레이, (24) 폭낭거리, (25) 중지앞개, (26) 거믄머슬(동네),²⁰⁾ (27) 웃빌레, (28) 자부미, (29) 구레이도, (30) 울흐레기, (31) 당동산, (32) 애기엷은밭, (33) 설리터, (34) 큰물밭, (35) 선반밭, (36) 돛오름밭, (37) 넘덕빌레, (38) 만수물밭, (39) 질진밭, (40) 무넙도,²¹⁾ (41) 지럿뱅의,²²⁾ (42) 대물쿨왓, (43) 갱이믄르,²³⁾ (44)

15) '도'와 '또'의 두가지 유형이 나타난. 이하 동일 대상을 제보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부르는 것들은 주에 실었음.

16) 오디남믄들

17) 거슨쟁이, 거슨새미 : 오름이면서 물 이름이기도 함

18) 물로레기, 물로레기, 물로레기, 울흐레기, 울로레기, 울르레기

19) 가시남동이

20) 거믄머들, 거믄믄들

21) 도량 이름

22) 시럿뱅의

물곰논밭, (45) 당오름밭, (46) 진드르, (47) 즈른드르, (48) 존동산(캐), (49) 쟁이굴, (50) (안, 밭)고령밭, (51) 벤밭, (52) 언개또, (53) 콩불린목,²⁴⁾ (54) 사모미굴왓, (55) 간밭레, (56) 묵은통, (57) 한므을, (58) 중죽은도,²⁵⁾ (59) 복은캐, (60) 모른진디, (61) 조중므루,²⁶⁾ (62) 진므루쿨랭이,²⁷⁾ (63) 버들못,²⁸⁾ (64) 곡도므루(동산), (65) 독모리동네, (66) 삼남매동산, (67) 셋동네, (68) 정물동네, (69) 대물쿨왓, (70) 설리손당, (71) 내팻동네, (72) 내엄동네, (73) 직세,²⁹⁾ (74) 진밭가름, (75) 사장밭, (76) 궁므루, (77) 개개빋동산, (78) 말천이, (79) 사근이도, (80) 물손이,³⁰⁾ (81) 남동산, (82) 가매흙,³¹⁾ (83) 망동산,³²⁾ (84) 선죽이(오름), (85) (죽은·큰)돌래미, (86) 쉼똥진, (87) 모소른목장, (88) 도리목장, (89) 씹튼계, (90) 비찌미,³³⁾ (91) 앞근다람쉬, (92) 다람쉬

4. 물 이름

※ 뒤의 지도 「송당리의 물」 참조

(1) 옷빌레물,³⁴⁾ (2) 버들못,³⁵⁾ (3) 만수물, (4) 고브니물, (5) 알천오름물, (6) 큰물, (7) 저근굴물, (8) 돌오름물,³⁶⁾ (9) 민나리목,³⁷⁾ (10) 말천못, (11) 진수내, (12) 엉물,³⁸⁾ (13) 싯낭계, (14) 세미못,³⁹⁾ (15) 울리튼못, (16) 구쟁이물, (17) 모사니,⁴⁰⁾ (18) 물

23) 팽이므르

24) 콩불리는목 : 바람이 센 곳

25) 중이 죽어났젠 허난

26) 조중므루

27) 진므루쿨왓

28) 거들못

29) 옷손당에 있음 : 앞거리, 뒷거리가 있음

30) 서장과 동장이 있음 : 목장 이름

31) 데계

32) 망동산 올라상 망 보난

33) 비치미

34) 옷빌레에 있는 물 이름

35) 너븐밭에 있는 물 이름

36) 생수.

37) 빗물 이름.

38) 지경, 물 이름

록, 41) (19) 자귀낭통, (20) 올로레기

제보자

김태현(남·63세) 고원유(남·68세) 허정봉(남·67세) 고인천(여·70세)
이신생(여·56세) 박봉주(남·70세) 김두향(남·74세) 고평선(여·80세)
고갑생(여·83세) 이정렬(여·7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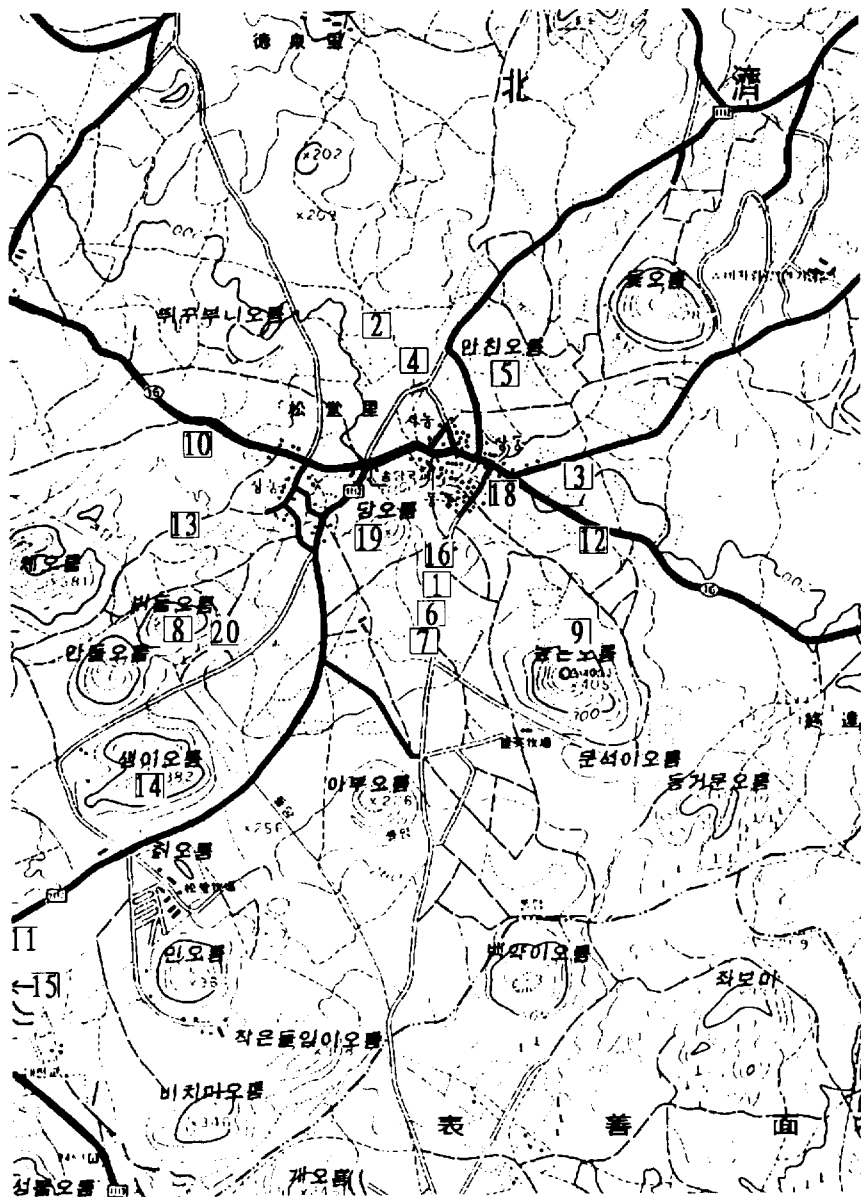
제보자 박봉주

39) 새매못. 생수.

40) 덕천리 소재.

41) 현재 메워서 주차장으로 사용.

송당리의 물



民 謠

目 次

1. 밧 불리는 소리
2. 검질 매는 소리
3. 마당질 소리
4. 출 비는 소리
5. ㄱ래 ㄱ는 소리
6. 방애 소리
7. 소 모는 소리
8. 툇질 소리
9. 자장가

제주도 민요 중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민요는 노동요이다. 그 가운데서도 <김매는 노래>, <맷돌·방아노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노래들은 힘든 작업시 수고를 잠깐 잊고, 일의 통일성과 능률을 올리고자 하는 것들은 다른 지역에서 마찬가지이다.

이번 송당리 민요조사 중에서도 <김매는 노래>, <맷돌·방아노래>, <출 비는 소리>, <마당질 소리>, <밧 불리는 소리>, <소 모는 소리> 등 밧 농사시 부르는 노래와 기타 <툇질소리>, <자장가 노래> 등을 들을 수 있었다.

민요 제보에 참여해 주신 분으로는 고순선, 이계선, 허정봉, 김정수 네 분이 계셨다. 농사를 마치고 돌아와 피곤한 상태이고, 또 노래하는 데 있어 작업을 실제로 행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다.

1. 밧 불리는 소리

조사일시 : 1996년 8월3일

조사장소 : 고순선 할머니댁

제 보 자 : A 이계선, B 허정봉)

이 노래는 앞에서 말을 모는 사람이 선창을 하고, 뒤에서 따라 가면서 발을 불러며 후창을 한다. 발볼림이란 여름철 씨앗을 파종한 후 마소와 남태로 발을 밟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지역은 화산회토로 쌓여있기 때문에 바람에 흙이 날려 버리거나 수분 증산을 막아 발아가 잘 되도록 발볼림을 해야 한다. 보리 수확이 끝나고 주로 좁씨를 파종할 때면 여기 저기서 발 밟는 구성진 노래가 들려온다.

A : 하~월월월월 소리에

돌아나오라 위우위우위

월~월~월~월~위우어 어화하라

B : 에~헤 오뤄뤄뤄~

이몰들아 간데에 가고 온데에 오라

굳작없이 벌여사 한다

으르르릉~ 으르르릉~ 어에 어홍아

A : 하~헤 산천~언 경기를 구경을 가자

죽장을 짚엉

호로료~ 호호호 하랑

B : 하아 히헤 흐르르 이몰들아

선디 산중 몰든 몰아

허러러 소리에 돌아나온다

이히히~ 히히 흐르르~ 으으

우~ 우~ 우~ 훨~ 훨~

A : 하~헤 이몰 저몰들아 말 모를 증성들아

어러러 소리에 뱅뱅 돌아나오라

어~ 어~ 허~라

위리위리위리위리위리위리 월월월월월 월랑

1) A는 선소리, B는 후소리를 담당했다는 표시이다. 이하 같다.

저물 이래 다올리라

B : 에헤헤 여~ 흐울르

워러러 소리에 돌아나온다

이 곳녜 사름은 월월월 소리에예예 신녜들에 넘어산다

저 뵈에 사름은 월월허는 소리에예 뭍 재기 몰아야 흐는다

이힝 이힝~흐르릉 으흥 으응 월월 하라

A : 하아~ 헤~

뭍 모는 사름들이 뭍뭍이 구멍 몰아사 허주

그래저래 새경 뵈리면 뭍들이 돌아오느냐

어러러러~ 오오러러러러러

저물 이래 다 올리라

월~월~월~월월워월~월~월~ 월~월 하라

2. 검질 매는 소리(아웨기)

조사일시 : 1996년 8월 3일

조사장소 : 고순선 할머니댁

제 보 자 : A 고순선, B(후렴) 이계선, 김경수

제주도는 토지 특성상 논농사 보다는 밭농사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보리와 조 농사가 대표적이다. 김매는 작업은 농사작업 중에서 가장 고된 작업의 하나로, 한 여름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세 벌씩이나 김을 매야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고, 고 통스런 작업이다. 이것은 주로 여인네들에 집단적으로 행해지고, 이 작업과 더불어 불려진 노래가 노동요인 제주도의 <밭 매는 노래>, 곧 <김매는 노래>이다.

여기에는 제주인의 생활정서, 삶의 방식 등이 사설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김매는 노래>는 지역에 따라 그 명칭이 '아웨기', '홍애기', '사데 소리'라 불리워지기도 한다. 아웨기는 '서우젯 소리'의 가락이 <김매는 노래>속에 유입되어 <김매는 노래>의 사설과 함께 불리는 경우이다.

이 노래들은 선창과, 그에 이은 후창의 반복적인 후렴을 통해, 힘든 작업이 반복

되는 지루함을 줄이고, 일의 능률과 통일성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

A : 어야~아~아도게 멩에로구나

B : 아하아아야 에헤양어허어요

A : 어여차~옥~소리에 해 넘어간들

B : 아하아아야 에헤양어허어요

A : 검질~짓고 끝 너른 밧디

B : 아하아아야 에헤양어허어요

A : 어여차~옥~소리에 다 넘어간다

B : 아하아아야 에헤양어허어요

A : 일광~넘~도 재~보~러 가고

B : 아하아아야 에헤양어허어요

A : 우리~적군도 집~으로 간~들

B : 아하아아야 에헤양어허어요

A : 선~소리~랑 즈직즈직

B : 아하아아야 에헤양어허어요

A : 훗~소리~랑 드~랑드~랑

B : 아하아아야 에헤양어허어요

A : 먼데~사~람 듣기나 좋게

B : 아하아아야 에헤양어허어요

A : 보딘뵈~사람~덜 구경도 좋게

+허뵈(B)

B : 아하아아야 에헤양어허어요

A : 선~소리~랑 두~줍반씩

+허뵈(B)

B : 아하아아야 에헤양어허어요

A : 훗~소리에랑 서넉줍반씩

+허뵈(B)

B : 아하아아야 에헤양어허어요

A : 지첫~구~나 다~지첫간다

+허름 잘 한다(B)

B : 아하아아야 에헤양어허어요

A : 우리~적군덜 다~지~첫거늘

+우 잘한다(B)

B : 아하아아야 에헤양어허어요

A : 일락~서산엔 해는 다 지~고

B : 아하아아야 에헤양어허어요

A : 월출~동경에 들~솟~아온다

B : 아하아아야 에헤양어허어요

A : 우리~적~군도 집~으로 가져

+봄(B)

B : 아하아아야 에헤양어허어요

A : 검질~짓고 골 너른 밧디

B : 아하아아야 에헤양어허어요

A : 앞 멩에랑 들어오고 뒷 멩에랑 나~가라

B : 아하아아야 에헤양어허어요

3. 마당질 소리(타작소리, 태작소리, 도깨소리)

조사일시 : 1996년 8월 3일

조사장소 : 고순선 할머니덕

제 보 자 : A 김경수, B 이계선

A : 어요 하양

B : 어가 흥아

A : 어야도 흥

B : 어가 흥

A : 누굴 보라

B : 어가 보라

A : 행국 동산

B : 즘을 잔다

A : 즘을 잠져

B : 예요 하양

A : 어가 흥아

B : 어야도 하양

- | | |
|------------|-------------|
| A : 요걸 보라 | B : 어요 하얏 |
| A : 누게 앞고 | B : 예가 흥아 |
| A : 설룬 정네 | B : 예가 흥이 |
| A : 앞일러라 | B : 예요 하얏 |
| A : 어가 흥 | B : 어가 흥아 |
| A : 어요 하얏 | B : 흥저들어 |
| A : 오요 흥아 | B : 어가 흥아 |
| A : 잘이나 떡젠 | B : 어야 흥아 |
| A : 산중에 가난 | B : 어야 흥아 |
| A : 멀리 정당 | B : 어가 흥아 |
| A : 쉼정당 줄에 | B : 어가 흥아 |
| A : 발을 걸러 | B : 어가 흥아 |
| A : 유럽서라 | B : 예가 흥아 |
| A : 유럽서라 | B : 예가 흥아 |
| A : 어야도 하얏 | B : 간간 놀젠 |
| A : 어야 호옹 | B : 놈의 첩 드난 |
| A : 어가 흥 | B : 어디 간간 |
| A : 어요 하얏 | B : 놀암서니 |
| A : 어요 하얏 | B : 오름에 돌광 |
| A : 어라 호옹 | B : 지서명은 |
| A : 이야 흥 | B : 등글다도 |
| A : 어가 흥 | B : 사름에 난다 |
| A : 어요 하얏 | B : 오갑률 |
| A : 어가 흥 | B : 요거 누게 |
| A : 어야 흥 | B : 앞에 가니 |
| A : 어가 흥아 | B : 설룬 정네 |
| A : 어요 하얏 | B : 앞의로다 |
| A : 어요 하얏 | B : 정강 믈디 |
| A : 어요 하얏 | B : 설랑거령 |
| A : 어야 흥 | B : 때리고 때리져 |

松堂里 學術調查報告

- | | |
|-------------|------------|
| A : 어야 흥 | B : 문착문착 |
| A : 어야도 하얏 | B : 골라진다 |
| A : 어요 하얏 | B : 요거 보라 |
| A : 한므루랑 | B : 거덩 가게 |
| A : 놀고 가고 | B : 아 거더오계 |
| A : 한마루랑 | B : 홀로홀로 |
| A : 쉬고나 가자 | B : 거덩 가자 |
| A : 먼디사람 | B : 홀로홀로 |
| A : 듣기나 좋게 | B : 걷어줍써 |
| A : 가까운데 사람 | B : 상대 집의 |
| A : 보기나 좋게 | B : 즘을 잔다 |
| A : 요걸 보라 | B : 어요 하얏 |
| A : 누계 앞고 | B : 어가 흥아 |
| A : 설문 정네 | B : 어요 하얏 |
| A : 앞을 보라 | B : 어가 흥아 |

4. 출비는 소리(흥애기)

조사일시 : 1996년 8월 3일

조사장소 : 고순선 할머니댁

제 보 자 : 허정봉

허야 뒤야 흥애기로구나 어허 어~ 어흐

스르릉 스르릉~르 엉

원냏 나양냏 잘도 먹어간다

비어 산아 비어 산아

앞 멩에 들어나오라 뒤 멩에 나고가라

이 출~올 비영 동지에 선달 소 맥영

훈푼 두푼 모은 돈 훈꺼번에 모아 목돈 맨들자

어흐~ 흥아 여~ 웅
어흐~ 흥아 흥아 넘어간다
흐 여산이 여비여
흥사 십리에 해당화 꽃진다고 설위마라
백년 춘삼월 또 돌아오는구나
어혜 이허도 우~ 허~허
이야 흥아~ 학이야

5. ㄱ래 ㄱ는 소리

조사일시 : 1996년 8월 3일

조사장소 : 고순선 할머니댁

제 보 자 : A 고순선, B 김경수

A : 이여 어~ 이여~ 이여도 ㄱ래

B : 이여 어~ 이여~ 이여도 허라

A : 이여 어~ ㄱ래 헤~ 고들베 고랑

B : 저녁이랑 붉은데 흐저

A : 본데저녁억~ 어둑은 집의

B : 오늘~이엔 붉으자 혼다

A : 이여 이여 허~영 이여도 허라

B : 이여 이여 허~영 이여도 허라

A : 이여도 ㄱ래

6. 방에소리

조사일시 : 1996년 8월 3일

조사장소 : 고순선 할머니댁

제 보 자 : 이계선

松堂里 學術調查報告

방에소리는 말방아(말이나 소의 힘으로 돌리는 연자방아)를 돌리며 부르던 노래로, 정미소가 없을때 곡식을 탈곡하고 정제하던 곳으로 비가 오는 날이면 동네 아 이들이 노는 유일한 장소가 되며 이 곳은 피방아 때문에 15개소가 있었다고 한다.

이여 이여 이여도 방에
고들배 지엄 저녁이나
붉은데 혼자
흙-흙-흙-
이여 이여 이여도 허랑 이여방에 이여도 허랑
가시오름 강당장 집의
식콜방에
새글럼서라
전승곳인
이내몸가난
다섯콜도
새맛아간다
음-음-
고랑줍쓸 맹심허근
우리어멍 말으시 살라
음-음-
고대 고대 허리질엄 배지다 커나 아기랑 베영
음-음-
이여 이여 이여도 허랑
도리송당
큰애기들은
피방에 지기가 일등이여
성읍리 가시리 큰애기들은
화토치기가 제일이로구나
조천 함덕 큰애기들은
망구탕구 일등이여

이여도 허랑 이여도 허랑
겉곳 집의 드실랑 심경
쓰냐 도냐 맛보면서도
사는 놈은 하나도 없다
음-음-
서울 서울 어떻게 서울
훈술 밥을 세놈이 먹어
설리 사난 서울이더라
음-음-
우리 어멍 날 무사 나전
일천 고생 다 시기는고
음-음-
설룬 어멍 날 서러울 때
어느 바당 미역국 먹엉
모를 모를 날 울리는고 날 울리는고
우리 어멍 걸어간 길은
좁아난 길에 걸어갔져
가난을줄 몰라진다
음-음-

7. 소 모는 소리

조사일시 : 1996년 8월 3일
조사장소 : 고순선 할머니댁
제 보 자 : 이계선

이러 이러 이러 이로 이로 오~ 오~오 이러~ 이라~
이 놈의 쇠들아 훈저글라
노리 꼴랭이만한 해에 재계 가사 서너니번 땡겨사 험것 아니가 아~ 아~

松堂里 學術調查報告

식~ 존말말고 저 앞의 쇠가 노시 건지 안햐꾸나
이러 어 이러 이러 이라 이~ 이러~ 이호 이러
어~ 오~ 어라~ 어라
저 놈의 썩 어디래 감이라게 곧작흔길 가지 안햐이에
이러 오 이러~ 허 이로 이러 오~ 오
해는 쪽쪽 가는디 재기 아니 걸영 어똥 흔젠
헉 썩썩썩썩 저 놈의 쇠 노시 건지 안햐꾸나 허
이러이러~ 오 이러~ 허 이로 이러 오~ 으라 허
저 놈의 썩 어디래 감이라게 곧작흔길 가지 안햐이에
이러 이러 이러 이르 이러 이로 이로 이르이라
(자꾸 반복)

8. 툽질소리

조사일시 : 1996년 8월 3일
조사장소 : 고순선 할머니댁
제 보 자 : 허정봉

저 놈의 툽은 스프롱 스프롱 잘도 넘어간다
물뚝비 베는 소리는 소리도 없지마는~ 어~ 어~
스프롱 소리나는게~ 툽질소리
허야 뒤야~ 요놈의 툽은 비호같이 낭글 먹어가는구나
허에~ 헤~ 헤 허야 뒤야 산이로다
허야 뒤야 산이여 물이여 어흐~
흔저~ 땡경 흔저~내리우자

9. 자장가1(애기 흥그는 소리)

조사일시 : 1996년 8월 3일

조사장소 : 고순선 할머니댁

제 보 자 : 고순선

자장가는 어른이 어린아이를 잠재우기 위해 부르는 전승동요로, 때에 따라 어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어린이에 의해서도 불려지기는 하지만, 주된 창자는 어른이다. 전승동요의 경우, 가창의 주체는 대부분 어린이들로서 어린이의 의식과 정서를 투영시키는 것과는 달리 자장가는 어른들의 정서와 의식이 동심의 세계와 결부되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전승동요와는 유별되는 특이한 동요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노래 사설중에 나오는 금자동, 은자동, 화목동, 효심동, 충성동, 인심동은 삼강오륜적 사상이 투영되어 있다. 자랑 자랑 뽕이 자랑, 우리애기 재와도라 등 자장가에서도 나타나는 후렴형식은 흥을 돋고, 음악적 선율을 일으키는 역할과 창자에게 다음 사설을 생각케 하는 휴식의 시간이 되며, 사설의 이해를 돕고 그 내용을 음미하는 시간의 휴식적 성격 또한 띠고 있다.

자랑 자랑 뽕이자랑 뽕이 뽕이
 우리 애기 자는 소리 놈의 애기 노는 소리
 뽕이자랑 뽕이자랑
 자는 것은 줌소리여 노는 것은 노는 소리
 뽕이자랑 뽕이자랑 자랑 자랑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은저동아 금저동아 어서 자라 어서 자라
 자는 것은 줌소리여 노는 것은 노는 소리
 어질거든 할마님이 내온 즘손
 할마님이 끈을 봐줍써 어~
 낮에 내난가워 밤인 불짚가워 국국마련
 뜨는 할마님아
 어질거든 할마님아
 아자천리 보고 사만리 보는 할마님이 내온 즘손 아님네가
 송광괴광 저보감제 허영 어진 애기 재와줍써

윙이자랑 윙이자랑 자랑 자랑 잘도 잔다

자장가2(애기 흥그는 소리)

조사일시 : 1996년 8월 3일

조사장소 : 고순선 할머니댁

제 보 자 : 김경수

자랑 자랑 자랑 어질거든 할마님 즈식
자랑흐저 자랑흐저
초사흠은 초일에
열사흠은 열일에
스므사흠은 스프일에
어진 곶은 순한 할마님
애기 머리에 짐재해영
애기 줌 재웁써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어진이도 자랑흐저 순둥이도 자랑흐저
애기어멍 철모르고 때모르니
무쇠술디 화신 먹는 인간이야
무신때를 알까부리까
승광괴광 저보감제 해여
이 즈식을 잘 그늘화줍써
자리동아 자리동아 어서 뉘자랑흐자
우리 애기 자는 소린 줍소리 우는 소리 움소리
은자동이도 자랑흐저
금자동이도 자랑흐저
물아래랑 옥돌이도 자랑흐저 동네에랑 인심동이 자랑흐저

방상에랑 화목동이 자랑호저 부모에랑 효심동이 자랑호저
나라에랑 충성동이 자랑호저
어서도 자라나서 훌륭한 사름되라

제보자

허정봉(남·67세) 고순선(여·67세)

이계선(여·70세) 김경수(여·62세)



제보자 김경수, 이계선, 고순선 (좌로부터)

說 話

目 次

- | | |
|-------------------------|--------------------|
| 1. 설촌 유래 | 12. 옛말 사서 도둑 쫓은 사람 |
| 2. 제주도 당신 원조 금백조 | 13. 묘 잘 써서 부자된 3형제 |
| 3. 소천국 I | 14. 악한 계모의 최후 |
| 4. 소천국 II | 15. 꿩 하나로 부자된 사람 |
| 5. 지리관 처남 매부 | 16. 시신이 정한 명당 |
| 6. 쥐 변신 | 17. 동침한 사돈 |
| 7. 박만손 I | 18. 고려장이 없어진 이유 |
| 8. 박만손 II | 19. 토산뱀 |
| 9. 박만손 III | 20. 헛뱀거리의 유래 |
| 10. 알아야 면장 하지 | 21. 혼인 이야기 |
| 11. 낳아준 부모보다 길러준 부모가 낫다 | |

1. 설촌 유래

제 보 자 : 채희주(남·1919년생)

조사일자 : 1996년 8월 2일

조사장소 : 채희주 자 채운배 씨 덕

요약 : 송당 본향당신인 금백조 할망은 제주도 당신의 원조이다. 신라 경순왕은, 견훤과 왕건이 동서로 침입해 오자, 하는 수 없이 나라를 왕건에게 내주고 말았다. 그 때 신라의 공주인 금백조는 소천국과 세명주를 대동하고 송악산에 가서 선왕신께 축원한 뒤에 제주도로 들어왔다.

탐라(耽羅) 신당(神堂) 원조(元祖) 금백조 할마님은 길흉화복을 관장하고 안녕과 질서를 수호해 준다고 믿는 본향신(本鄉神)이고, 마을 사람덜은 이 할망을 위령명 살아오고 이십니다. 지금까지 대단히 금백조 할망당을 제일 위해서 뒤, 전도민이 여길 위협니다.

그러면, 신라, 여기 내력인데 신라 56대 경순왕은 경기도 장단 좌소궁에서 동으로는 후백제 견훤이 경주를 함락하고 서로는 왕건이 침입하자, 약세불능(弱勢不能) 경순왕은 고립이 돼서 할 수 없이 약세불능자(弱勢不能者)난 왕건 태조에게 신하를 보내서 합병을 호 거죠.

경순왕이 합병호는 것을 약속하자, 왕비 박씨 생 삼남 일너는, 그 당시 왕비는 박씨데 삼남 일너, 일너는 신라의 천년 사직을, 허무함을 탄식하고, 태조는 금강산으로 들어가 마의초식(麻衣草食), 마의태자, 또 박씨 아들덜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해인사로 들어가고, 그 여식 공주 김백조죠, 여기 온 할망인데, 전유궁 궁소이 장군 소천국과 세명주를 대동하고, 송악산이죠, 경기도 송악산인데 송악산으로 올라가 서왕신, 그 이계 민족보결에서 선왕신, 송당지신(松堂之神)께 축원하고 천기(天機)를 보고 탐라로 도피, 경순왕의 처자식들은 완전히 신분을 감추어 버렸어요.

2. 제주도 당신 원조 금백조

제 보 자 : 채회주(남·1919년생)

조사일자 : 1996년 8월 2일

조사장소 : 채회주 자 채윤배 씨 덕

요약 : 공주 금백조는 제주도로 들어온 뒤에 소천국과 백년가약을 맺고 송당을 만들었다. 18남매를 낳았는데 이 자식들이 제주도 각 지역의 당신이 되었다.

탐라 도피길인데 공주 김백조는¹⁾ 궁소이(?) 장군이죠, 소천국 그 당시 그 궁궐의 장군 소천국을 또 삼궁 공주, 세명주, 부하 군졸을 대동하고 가물개 지금 삼양

1) 김백조 : 본풀이에서는 일반적으로 금백조라 한다. 제보자는 '신라공주 김백조'라 하여, '금이 아닌 김(金)씨 성(姓)으로 인식하고 있다.

(三陽),²⁾ 삼양이죠. 가물개는. 삼양으로 내려 산중교래(山中橋來),³⁾ 교래로 올라가 수렴으로 생애……. 금백조는 곰곰 생각 끝에 드리⁴⁾ 조린납,⁵⁾ 조린납이라고도 하고 조린납이라고도 하는데. 지명(地名)이주. 금백조와 소천국이 백년가약을 맺은 지명이죠. 또는 우리 조상이 납폐(納幣)를 올렸다고도 할 수 있죠. 폐백(幣帛)을 올렸던 게 그 시대 신라 때 성골(聖骨) 진골(眞骨) 그 때는 성을 말허지 안허구 빼다구를 말하는데 성골 진골 시대 소천국은 빼다구가 없지요. 무골(無骨)이니까. 문무(文武) 격차. 문무격차를 막론하고 부부가 되었으니. 금백조는 금백조 명령되었으나. 금백조 명령에 남편이. 남편이지마는 소천국은 복종하였다 해서 이게 송당 당오름당인데 백조당은 존칭. 맑은 조상 할머님. 이민(里民)을 사랑한 것. 소천국은 천국 하늘나라 사람. 세명주는 명주. 백조. 맑은 부부란 그말. 명주란 말이여. 그래서 이 송당 여기에……. 요 걸 다 써 드렸으면 좋겠는데. 금백조의 유적지가 지금도 그대로 굴읍니다.

금백조 할머님은 스방을 둘러보고 들판 너른 송당을 지정 군졸을 드리고 백계밭 동산. 이거 뜻이 짙은데. 동산, 백계밭동산은 무용(武勇) 힘이 있고 아주 엄중하던 말인데. 동산에 좌정(坐定)하고 이민에게 거중을 선포한 지명.

지금도 이 '백계밭동산', 송당리 이민은 백계밭동산 호민 다 그대로 굴읍니다. 지형을 살펴보고 북풍이 감추어지고 온화한 지대 '차게터', 이것도 아주 뜻이 깊어요. 남양. 차게터라 함은 남양, 남양주현. 신라의 그 자손이 공주가 그 신라를 반대해서 도망쳐 나왔으니까 남양주현이란 말은 남쪽 먼 끝에 가서 혼 고을을 맨들었다. 취락. 이 송당에서 혼 고을을 맨들었다. 그말인데. 김백조와 소천국은 부부 18남매를 낳아 자녀들이 제주 전 지역에 벌어져 신당이 되어서. 송당리 김백조는. 김백조 신당이 원조란 건. 이걸 『제주도 문화재』에 신당의 원조라고 돼어 있어. 이것이기(기록해 놓은 노트를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 18남매 다 기록된 건데. 문성공 검훤이가 광정당. 삼이 신성당. 이거 죽 해서 마을까지 기록된 거요. 김백조 유적지 가물개, 교래마을 조린납, 백계밭동산, 손당마루. 차게터, 무임도, 조종마루, 당동산, 오봉이굴왓. 이거 지금 천 이백년이 지났지만 송당에서 이대로 지명 그대로

2) 삼양(三陽) : 제주도 삼양동.

3) 산중교래(山中橋來) :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산간 마을이라 산중교래라 했다.

4) 드리 :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의 본래 이름.

5) 조린납 : 지명.

로 부릅니다. 이 지명 송당리 거주하는 농민은 누구든 지금 이거 오봉이굴앗이 어
디고 백계밭동산이 어디냐고 하면 다 아르켜줄 꺼여. 이 지명은 유적은 약 천 이
백년 전이라고 본다.

3. 소천국 I

제 보 자 : 고여봉(남·1923년생)

조사일자 : 1996년 8월 2일

조사장소 : 송당리 노인회관

요약 : 소천국이 밭을 가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밥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밥을
먹고 가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밥을 다 먹고 가 버렸다. 소천국은 배가 고파 밭
을 갈던 소를 잡아 먹고 또 주변에 있던 소까지 잡아 먹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금백조와 헤어지게 되었다.

소천국이 죽은 역사를 말하라고 하는 것은 그 때 송당에 와서 농사를 짓는데 밭
을 갈래 보내면, 요러니깐 정심 가정 간 것을 거 지나는 손님이 시장허니깐,

“좀 밥이나 가지고 왔으면 좀 달라.”고.

그래서 주니까, 다 먹영 가불 줄은 모르고,

“저기 있으니깐 먹을 만이 자시고 가라.”고.

그래서는 말허니깐 거기서 그 밥을 먹는데 모조리 다 먹어부렀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밭 갈다가 정심 먹을라고 해서 보니깐 밥은 다 먹고 가부렀는데, 배가
고프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밭 갈던 소를 자기가 잡아먹었다고. 이런 것 전설로
말해 오는 건데, 소를 잡아먹고서도 배가 고파. 그래도,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소 한 마리를 또 다시 잡아먹을 결구는 먹었는데, 그 금백조 할망이 정심을 따시 가지
고 정심 그릇을 가지래 가보니까, 소를 아니하고 그냥 잠대를 배때기로 밀면서 밭
을 갈고 있거든. 그렇게까지 장군이랬지.

“소를 어떻게 하고서는 이런 것을 허고 있냐?”

그러니까 그 나가 말한대로,

“지나가는 행인이 시장하다고 하니깐, 그래서 참 저기 좇아 먹고 가라고 허니까

松堂里 學術調查報告

밥을 먹고 가버리니까 배가 고파서 소를 잡아먹었다. 그러니 이 우리 소만 잡아먹었어도 시장이 차질 안 해서 남의 소까정을 잡아먹었노라.”고.

이렇게 말을 해 버리니깐, 이젠 그 할망이,

“꽤 씹한 놈.”이라고.

“이녀 소만 잡아먹으면 말지, 놈의 소까지 잡아먹었으니깐 도적놈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할망하고 그 소천국이 갈라진 원인이라는게. 그래서 인제 쫓겨버리니깐 그 소천국이 여기에 피행 오란 살아난. 여기 당동산,⁶⁾ 굽은이물.⁷⁾ 그래서 그 굽은이물이라는 것이 그 명칭을 지어서 굽양 살았다는 것을 뜻해서 굽은이물이라고 해선 거기 그 하르방을 모션 막 돌아가 죽은 지 후제도 저기도 가서 좀 대접을 했다고. 며칠날 며칠날 이렇게. 그래서 그 할망하고 하르방이 헤어진 원인이라는 것이 소잡아 먹어서 뭘 해버리니깐,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걸 쫓겨버리니깐, 나아가서 그 두분이 갈려진 것인데, 그래 세밀한 그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 서적으로서 지금 조사한 때까지 조사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보면은 자세한 것은 나타날 거고. 그래 여기서 그 이상 얘기를…….

4. 소천국 II

제 보 자 : 고갑생(여·1914년생)

조사일자 : 1996년 8월 2일

조사장소 : 송당리 노인회관

요약 : 소천국이 발을 갈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중이 그의 점심을 다 먹고 가버렸다. 이에 배고픈 소천국은 발 갈던 자기 소와 이웃 발의 소를 잡아 먹어 버린다. 이 사실을 안 아내 백주또는 결별을 선언한다. 자식들이 성장한 뒤에,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나선다. 소천국은 자식이 귀여워 안아주는데, 아들은 담뱃대를 부러뜨리고 수염을 잡아 당기는 등 어리광을 부린다. 소천국은 이를 불효한다

6) 당동산 : 지명.

7) 굽은이물 : 지명.

여기고, 아들을 무쇠솥에 넣어 바다에 버린다. 떠다니던 무쇠솥은 용궁의 산호수에 걸리게 되고, 아들은 용왕의 셋째 딸과 혼인한다. 그러나,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흠이 되어 쫓겨난다.

중놈이 넘어가당 우알을 영 슬퍼보니, '이거 확실히 밧 갈앙 농사해 먹영 살 사 람은 아닌디 왜 밧을 가는고?' 이제 우리 점심이나 뻘 먹어볼겐 경 헛 거 아니꽈? 거 쉼 잡아 먹영 뿔창이 난 거우다게. 경허난, 그 백조 할망은 이제 [칭취불명].

"아이고 요거 무신 일이꽈? 아들 애기 으뭇은 어리가씨 해 먹으멍, 딸레기 스물 요뭇은 어리가씨 해 먹으멍. 아 쉼도독놈 아기랜. 이제 어디가서 해 먹읍네까? 나 쉼 잡아먹으른 용서해지거니와 아이 놈의 쉼까지 잡아 먹어시난 쉼도독놈이랜 안 됩니젠."

허난.

"너넨은 쉼에 난 넨은 올쟁이(?) 아니냐, 두리쟁이(?) 아니냐, 당창쟁이(?) 아니냐?"

허멍, 막 이젠 서로 빗내연 싸완, 두 가지 살림을 갈라진 거주게. 경 행, 네 나 둘 음으로 내음살 맞추기 실퍼그네⁸⁾ 둘음으로⁹⁾ 가겐 허난, 경 둘음으로 가불고, 이제 저 할망광 하르방이 갈라지나네, 널랑으네 어서 산에 올랑 살채기 잡아 먹영 살고, 나는 이제 너광 이제 따신 배합(配合) 안해볼겐 해 부난, 저 해남밭 진밭 가네 광진네기 딸을 얻연, 고침을 해연 살당, 허물할망, 허물할망 해수게. 경허난 맞지. 그 아방신디.

하도 선성신디¹⁰⁾ 가민, 아방 애비없는 흐르새끼, 흐르새끼 허난, 어멍을 부수닥 달이 허연 백조할망을 닥달 해연. 이젠, 저 아방신디 막 그르침센 허난, 저 해남밭 …… 큰, 저디 저 돛베오름이렌 허는 오름 엇우꽈, 저 붉은오름 서쪽에. 경허난 그 돛베오름 우의 간 할망은 거드래기 나 앓아 돛서르, 저 내¹¹⁾ 나는 거 느네 아 방 사는 집이난 훗양 가랜 해여부나네 가네. 이제 아방이 하도 아까우난¹²⁾ 영 손

8) 내음살 맞추기 실퍼그네 : 뽕새를 말기 싫어서.

9) 둘음으로 : 짝 걸음으로.

10) 선성신디 : 선생에게.

11) 내 : 연기.

12) 아까우난 : 사랑스러우니.

침을 양지씨를 느려오는 게 새끼 손가락에 쉬염을 걸린 동겨부난¹³⁾ 매어지난. 씹에 난 너석 설뜨기도 시시나고 꼬리나드니만은, 이놈의 새끼 행실머리 부죽허덴. 영 허난 담배, 생전 담뱃뎀 봐 뇌수과. 담뱃뎀 탁탁 두드리난, 담배 대구리가 특 그쳐전 돌아나부런. 특 그쳐전 돌아나부난, 아 이놈의 새끼 갈수록 삼각수도 매여 불고 행실머리 나쁜 게. 그 때 무쇠술 속에 출런 바당더래 띄와부나네. 경헌 거. 그게 봉판이우다. 무신. 솟아난 게 어디 구신인 줄 알아과?

(조사자 : 그제 딸이과? 아들이과? 그럼.) 아덜, 아덜. 이 할망 죽은 아들. (조사자 : 아, 작은 아들마씨. 이름은 뭔디 마씨? 이름은 모르고 마씨?) 이름은 그때 나 들머시든 허주만은 안 들어부난 모르크라. (조사자 : 그니까 몇 번째 아들마씨?) 막번째 아들. (조사자 : 여덟번째 마씨?) 응, 여덟번째. 서울 우의 강 본소(本所)에 가도 이거 틀리지 않은 말이라. 몇 번 올라간 거라. 이거 또 몇번 올라간. 경허난 삼각수, 부모 삼각수 매는 새끼 낳당 뵈허젠. 부모 담뱃통 꺼꺼부는 놈의 새끼 낳당 뵈허젠 헐, 무쇠술 똑 출런 바당에 띄여부난. 죽으랜 띄여분 게 살양 오라가난. 그 무 [칭취불명] 찾아간 무우나무 상가지에 강 걸어정. 이와(?) 현 게 우의 간 걸어정. 밤에는 저 풍악을 짓고 낮에는 옥통재를 불고 허난. 그 딸래기 낭 보난,¹⁴⁾ “아무것도 엇우다. 아방도 헛소리허지 맘서.” 이제 셋. 죽은 셋딸래기 나왕 보난. “아무것도 어수다. 무슨, 성 못 본 거 난 봐집니까?” 영 행 들어가 나네. 죽은년아 느나 강 보랜 허난. 이제 아버지 이디 뜯금없는 무쇠 술 거기 걸어져수덴 허난, 무쇠술 것거던¹⁵⁾ 느려오랜 허난. 이젠 큰 성을 보내도 못 느려가. 죽은 성, 셋성을 보내도 못 느려가. 허난 이젠 죽은 아신 간에, 귀신이건 하늘옥황으로 올라가불고, 생인이건 이제 내려오랜. 헐, 그 문 앞 굽을 두드리난. 자글랑허게 느려오란. 그 마당에 십어다 놔에, 이제 동창쾌¹⁶⁾ 문 열리고 서창쾌 문 열리고. 서창쾌 열어도 석달 열흘 백일 먹으난, 다 비여 간. 홉 수 웃이 두가¹⁷⁾ 출런 내와부난, 솟아난 집 된 거 아니과.

13) 동겨부난 : 당겨버리니.

14) 낭 보난 : 나가서 보니.

15) 무쇠술 것거던 : 무쇠술갈것거든.

16) 동창쾌 : 東倉庫.

17) 두가 : 두 부부.

5. 지리관 처남 매부

제 보 자 : 허정봉(남·1932년생, 송당리 1516번지)

조사일자 : 1996년 8월 3일

조사장소 : 송당리 노인회관

요약 : 지리관 처남매부가 있었다. 매부가 외출을 했다가 물쇄형국의 지리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을 묵을 집을 찾는 중에 홀어머니 집을 가게 되었다. 재워주고 좋은 식사를 대접 받고 보니, 은혜를 갚으려고 그 주인 남편을 안장할 자리를 봐 주고는 물쇄형국 중 코 양두새에 안장시키라고 했다. 나중에 돌아와서 처남과 장기를 두면서 정혈을 물었더니, 양두각이라는 것이었다. 그 제야 매부는 다시 가서 양두각으로 이묘를 해 주었다.

옛날에 처남매부지간이 있었는데, 처남하고 매부에게, 이 사람들이 다 처남매부가 다 지리풍수¹⁸⁾요, 다 둘이가 처남도 지리관이고 풍수고, 예, 매부도 지리관이고 풍수고, 서로 다 처남매부가 '내가 잘한다', '내가 잘한다' 서로가 둘이 다똥어, 다똥는다, 그 매부되는 분이, 예 좀 어디 지리를 좀 살펴본다. 이렇게 해서 썩 외출을 했는데, 제 외출을 해서 지리를 살펴본 결과, 아 그 지리상이 물쇄형국¹⁹⁾이여, 형국이. 이제는 그저 묘를 잘 써야 집안에 자손이 잘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지리학들이 그저 전부 뭐, 정태룡에 유좌모양이면, 뭐 피가 물파라며는(?) 물이 어디로 흘러가야, 이제 즈손이 어떤 즈손이냐고, 안봉²⁰⁾이 어떤 안봉이 이서야 뭐 출세할 즈손이 탄생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한 그 논문이 있는데, 보니까 물쇄형국이여, 그래 물쇄형국을 딱 보아 놓고서는, 아 집으로 되돌아올라 그러니, 하여튼 일몰이 되었어, 해가 저물아서, 아, 이젠 집의는 올라 그러며는 이젠 어둑어서 오진 못허게 되고, 그 근처에 부락이 있는데, 예 하룻밤 유의(留依)하고, 하룻밤 자고 돌아올라 그래신데, 이젠, 아 집을 하룻밤 유의혈 방을 얻으래 이렇게 다니는데, 아 날이 어둑어 노니 방을 얻을 수가 없어, 다 문 걸어 잠가부리고, 이제 해

18) 풍수지리 : 풍수지리에 뛰어나다는 의미.

19) 물쇄형국 : 물소 형국.

20) 안봉 : 案峯. 풍수학에서는 흔히 案山이라고 한다.

노니까, 어떻게 하다가 혼 집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사실은 지리관이고 풍순디, 아 날이 어둡어서 하룻밤 유의해서 가겠는데 방을 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주인 허는 얘기가. 하필이면 또 홀어머니 집에 갔다 이거야. 해서 그 홀어머니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²¹⁾

“난 홀어머니고, 이렇게 하기때문에 방을 빌려줄 수가 없다.”

이러니,

“아 그러면 어째서 홀어머니가 되었느냐?”

남편을 이어서²²⁾ 남편이 병중에²³⁾ 이제 몇년 있다가 남편이 죽어서, 물어봐서 계속 홀어머니가 되었는데, 물론 그 때는, 그 때 시절에는 홀어머니집에 외간 남자들, 경 혼 것은 들여놓을 수가 없을 때였거든. 그러니, ‘아 이제 못들여 놔준다.’ 이러니,

“노루 사냥해서 뭐 야밤에 어디 갈 수도 못하고, 이문간이라도²⁴⁾ 좀 자고 갈 터이니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해서 허니, 이러니 이제 그 주인 홀어머니 허는 얘기가, 아 풍수라고 이케 하고 지리관이라고 이케 하니, 아 그찍에는 삼년 계 소상, 옛날에는 초상, 소상, 대상 했거든. 겐디 대상 전의 안장을 해 놔야 대상을 해 먹는데, 토롱식이나 구토롱이라 하여서 사람이 죽어 좀 가내가 좀 펜안한, 좀 넉넉한 부잣집이 아니고는 토롱 해 놔서 삼년전의, 대상허기 전의 안장을 해놔야 대상을 해 먹었됐거든. 이러니, 아 대상을 허기 전이고 안장도 못한 처지라서, 그 홀어머니 생각에 소님이 ‘풍수다, 지리다, 지리관이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생각이, 좀 후딱 이분을 교체해서 남편을 어디 안장시켜 놔야, 에 새봄에 대상을 남편 대상을 해 먹게 됐는데. 이와 같이 탁 감각이 떠올랐다 이거야. ‘아, 그러면은 방을 빌려준다.’고 그래서 이젠 아 그 침 방을 빌려준, 그날 좀 잠을 잤는데. 그 풍수 생각에 가내가 웅색하고 했는데, 들어아정²⁵⁾ 조반상이 들어오는데, 아 조반상이 뭐 좀 굉장히 잘 들어왔거든. 그래

21) 야기 : 이야기.

22) 이어서 : 여의어서.

23) 병중에 : 병중에.

24) 이문간 : 대문.

25) 들어아정 : 방에 들어앉아 있는데.

거기서도 그 흠어머니가 동네에 다녀서 침, 그 때 쌀이 귀했는데 쌀꿈²⁶⁾이라도 좀 어디 가서 얻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던 거여. 그래 이제 조반상 얻어먹는 그 풍수 생각에도 ‘야튼 내 이 은혜는 이제 갚아뒀 가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먹고 있는데, 조반상을, 딱 진지를 들고 와서 이제 승냥을 가져왔는데, 승냥 가져온 때에는 그 주인 그 흠어머니를 잡아 놓고서는,

“그 가내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은 내가 흠어머니 된 것도 남편이 이제 혼 몇 해 울다가 죽었는데, 내년 봄에는 대상을 해 먹어야 되겠는데, 안장을 못해서, 지금 가내가 녀석했으면은 풍수지리라도 불러다가, 데려다가 샴을 주면서도 땅을 봐서, 남편을 안장시켜서 대상을 해 먹겠는데, 아 그런 기력도 없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고민 중이라.”고 허니까,

그때야 그 풍수 생각에 ‘아 그런 어려운 가정에, 아 아저 진지도 그리 잘 채려 주고, 이렇게 허니까, ‘아 이걸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젠 그 물쇄형국을 좇아가는 판이여. 제 정시 생각에는, 풍수 생각에는 ‘물쇄는 정혈이 어디냐’ 하는 것을, 아 이제 생각 중인데, ‘아 그거 물쇄형국에는, 아 뽕이 영 나고두 손을 머리에 올려 소의 빨처럼 만들며), 머리가 영 있고, 꼬리가 있고’ 이케 허니까 그 정시 생각에, ‘아 물소는 코 양두새²⁷⁾가 이제 정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코 양두새를 되언. 그 풍수 생각에 ‘코양두새가 왜 정혈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물소가 숨 쉴 때마다 코가 벌룩벌룩 헐 때마다 아 이제 재산도 불어나고 자손도 불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 코 양두새를 갖다가, 물소에 그 양두새를 갖다가 정혈로 해서, 에 제의(提議)를 놔졌어. ‘요기다 산 쓰면은 틀림없이 돈도 벌 것이며, 즈손도 번창할 것이며, 아 이렇게 할 것이다.’ 딱 정혈을 이제 잡아서 제의를 해주 고 택일해 주고,

“아무 날, 아무 시라그네, 그디 영장을 허고 대상을 해 먹으라.”

이렇게 해서. 이제 와, 그래 뭐 사채(私債), 그 어려운 중에, 또 사채 어디 간 구해다 주니까,

“아아, 그거 뭐 필요없다.”

26) 쌀꿈 : 쌀을 꾸어 움.

27) 코 양두새 : 콧구멍 사이의 인중.

이렇게 뚝서 아니 받고 그냥 돌아왔는데. 건 무의식 중에 자기 속셈으로만, ‘물쇄형국에는 코 양두쇄가 정혈이다’ 하는 것 뿐 알았지, 도식에는 ‘정혈이 어디 있다’는 것을 모르거든. 자기 무의식적으로 자기 생각하는 것에만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간 물쇄형국은 분명히 물쇄형국인데, 정혈이 어딘가를 제의를 해줬지만은, 어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 이젠 처남안티, 이젠 ‘거 형님, 물쇄형국이 그 정혈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난하고,²⁸⁾ 서로가 ‘나가 잘한다, 처남이 잘한다’ 이렇게 다튀노니까.

하루는 께가, 괴상한 께가 나기를, 형님더러, 처남보고, 처남형님보고,
“형님 장기나 한 판 돕시다.”

이렇게 했거든.

“아 그러세.”

장기를, 처남매부지간에 장기를 뛰 가는데. 이제 매제가 ‘장군’ 혈 무렵이 나왔다 이거야. 이제 장기를 앓양 허당, 탕 허게 두드리면서,

“장이요 군이요, 물쇄는 정혈이 어딘고?”

아, 이젠 ‘멍군’ 허자 하니, 처남이 멍군허자 하니,

“으 멍이여 군이여, 물쇄 양두각(兩頭角)이 정혈이지!”

아, 이제 바른 말을 해부렀다 말이며, 그것도 무의식적으로 바른 말을 해 부렀어. 물쇄형국은 양두각이 정혈이지 허면서, 멍이여 군이여 했거든. 이 물쇄형국은 양두각이 정혈인데, 양두각 허면은 빨광 빨 사이가²⁹⁾ 정혈인데, 이 매제는 코두새를 정혈로 잡아 산을 써취동³⁰⁾ 왔단 말이며.

그땐 장길 탕 치면서,

“아이고 형님한테 내 승배합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그때야 바른 투정을 했어.

“내 영 정 해연 다니다 보니, 어떠한 빈곤한 집안에서 소상을, 대상을 해 먹지 허는데, 아 그 산을 써 봐야 대상을 해먹게 됐는데, 아 그 나 생각에 물쇄형국은 분명헌데 코두새가 정혈로 알안에,³¹⁾ 아 거기다 제의를 해줬습니다.”고

28) 난하고 : 難하고 어렵고

29) 빨광 빨 사이 : 빨과 빨 사이.

30) 써취동 : 써주고

“음 아이됐네. 물췌야 양두각이 정혈이지, 어찌 코두새가 정혈이 되겠느냐?”
아, 이젠 부라부라 찾아간 보니까니, 그 동네 가서,
“아 이제 그 아무 아이 집이, 그 몇 해 전에, 그디 이묘를 해서 소, 대상을 해
먹어살던디, 그 집안이 어떻게 됐느냐?”고 해여.

“하이고 곧도 말고 이르도 말라고, 어떤 개궁탱이 정시가 오라가지고, 몰란 물췌
형국에 코 양두새가 정혈이라고 해 써 쥐 버리니까, 이 그냥 산 쓴 후젠, 그놈의
집에, 개궁창이 들려가지고, 사름이 다 입도 트라지고³²⁾ 코도 트라지고 눈도 트라
지고 난리났다.”고

하, 이거 매 맞앙 죽기가 알맞았던 말이야. 그냥 장비 다 찰리고, 아 그 그자 자
수해서 들어가서 말이지,

“그 내가 좀 제를 잘못 지내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장비 다 당할테니 이묘(移墓)
를 곧 해 달라.”고

아, 그래서 그저 코두췌에, 물췌 코두새에 묻은, 이제 그 남편을 이묘시켜서, 물
췌형국 양두각에. 이제 정혈에 가서 물어줘서, 장비 다 책임지고 찰리고. 아 그루
후제,³³⁾ 아 그 개궁창 든 것이 다 좋아버리고, 아 그 집이 번창해져 가지고. 아 그
풍수 죽으니까 조문갔다 오더라고 허는디, 아 나도 거 조문 갈려고 했는디, 그 저
좀 집에 일이 바빠서. (웃음) 얻어먹으래 가야 헐 건디.

6. 쥐 변신

제 보 자 : 허정봉(남·1932년생. 송당리 1516)

조사일자 : 1996년 8월 3일

조사장소 : 송당리 노인회관

요약 : 한 제관이 변소에 가면서 두건을 아무데나 벗어놓았다. 그런데 늙은 쥐
가 그 두건을 쓰고 제관으로 변신하였다. 변소에 갔다 온 진짜 제관은 어쩔 줄 몰
라 점장에게 찾아갔더니 삼족(三足) 고양이를 사 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31) 코두새가 정혈로 알안에 : 코두새가 정혈로 알았기 때문에.

32) 트라지고 : 비뿔어지고

33) 그루후제 : 그 후에.

제관은 삼죽고양이를 구해다가 잘 먹여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결국 그 늙은 쥐는 삼죽고양이에게 물려죽었다.

요즘 흔히 쓰는 말이 '쥐 좃도 모르는 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아녀. 그 이유를 알겠소? 그 뭇 때문에 '쥐 좃도 모르는 거'엔 험니까? (조사자 : 굴아봅써.) 그 이유가 있어.

옛날 혼 집안에 우군이 살았는디, 제관이 살았는디. 요즘 그 나나 놈이나, 이것도 좀 상식적인 면에서 좀 그런 것도 알아야 되는다. 어디 변소에 갈 때, 상 난 집에 가서 뭐 권복이라고 해서. 두건 주지 아니허여. 두건 쥐서 허민 이거 두건 쓴 차 변소에 가는 것이 아니여. 두건 써서 변소에 가는 것이 아니여. 게 두건 꼭 반다시 벗어두고 변소에 가고, 상복을 벗어두고 변소에 가곡. 겐디, 부모가 파해서 제관이 사는디, 부모가 파해서 출벽을 했는지, 안장을 했는지 몰르되, 삼년이 되기 전 이저든, 두건을 썼으니까. 그래, 아 그 집의 조화가 들라 그러니, 아주 그 집이 조화드는, 아주 그 큰, 옛날 늙은 쥐가 있었는데. 아 남편이, 아 이제 두건을 썬 들어가부러시면, 거 벗영 들어가는 것이 원칙인디. 두건도 그 베길되 강 벗영 내빌민 아이되는 거주게. 제난 집안에서 벗어똥 변소에 가야되는 건디, 아 변소 가당 생각해 보니까니 두건 써졌거든. 두건 벗어똥 변소에 간다는 것7정은 알았는디. 변소는 급하고, 아 두건을 아무데나 벗언 내붙어똥 변소 보래 갔다 말이야. 변소엔 간오랑 보니, 두건이 어서졌다 말이야. 아, 그 뒤적뒤적 뒤져봐도 두건이 없어.

“이디 두건이나 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인 보고 허니깐,

“저거 어떤 녀석이 저디 들어왔으나?”고.

“어떤 미친 녀석이 들어와서 두건을 찾느냐?”고.

그 순간에 막간을 이용, 변소 보래 간 막간을 이용해서, 늙은 쥐는 두건을 툇허게 쓰고선, 조화³⁴⁾를 부러선, 아 그 변소 보래간, 부인과 옆에 동좌해서 이렇게 앉아서, 두건 써 노니까, 이거 부인도 쥐인 중 모르고, 남편 얼굴을 변색(變色)똥서³⁵⁾ 왕 툇 앉아노니, 변소 보래 간 남편 와시키부덴 이제 7치 앉안, 두가시³⁶⁾

34) 조화 : 조화(造化).

35) 변색(變色)똥서 : 변장을 해서.

36) 두가시 : 부부.

영 행 앉안. 진짜 남편은 두건 좃당 버치니까, 부인보고,

“두건 어디 못 봤느냐?”고 허니까네,

그 남편마저 “저 자식, 어떤 미친 녀석, 미치광이 왔느냐?”고.

아 부인도,

“저거 어떤 녀석이 저기 왕 두건 좃당시냐?”고.

원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아니 부인보고 부인이랜 곱으면, 저거 어떤 거러지가 왔느냐고 말이지. 이렇게 허면서 원 남편을 막 베절디로 내쫓아 부러서, 아, 원 적 분해서 못살겠어.

“하이, 원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 거 일등 문점허는 놈이 있고, 아 일등 문점허는 놈이 있는데, 아, 이제 돈을 아무만이, 그때 돈 백냥인가 천냥인가 가져오면은 좋은 문점을 해준다는 그런 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아 동네 사람은, 아 그 사람을 알고 이렇게 해……. 그 집 안에만 들어가면은 이녀 남편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여. 아 이제 돈 빚져서 물라는(?) 문점을 허는디, 어디 가서 삼죽께³⁷⁾를 사오라구. 삼죽께라 하면은, 고양이 세발 돋은 거가 그렇게 쉬울 것이냐 이말이여. 세발 돋은 কে를, 하 그거 참. 방방곡곡을 누비어서 세 발 돋은 고양이를 이젠 사서, 그 고양이를 몇 달 동안 맥여서 몰래, 그 집주인 몰래 이제 문 술짜이 열연 삼죽구를 탁 디물랑으네,³⁸⁾ 양펜으로 놉 빌렁은에³⁹⁾ 문을 탁 지들르라고.⁴⁰⁾ 아 그래서 이젠 좀 방방곡곡 다니면서 삼죽께를 세 발 돋은 고양이를 사다가, 한 몇 개월 잘 맥여서, 아, 그 시킨대로 이젠 집안에 가서, 이젠 아 창문, 밤에 창문으로 문 열어서 이젠 고양이를 들이쳐서, 놉 빌렁 놓고 지계문을 창에 딱 지들라 놔서, 그냥 고양이 들어왔다 소리엔, 그냥 방안에서 와당탕 와당탕 싸우는데, 허 게 그 삼죽구, 잘 맥여 논 고양이. 삼죽구 아니면은 사죽께는, 예 그 쥐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거여. 그래서 그 삼죽구한테 그냥 얻어 물려서 그 놈으 쥐가 죽었는데, 자빠지니, 고양이도 자빠지고 쥐도 자빠지고.

그때야 들어가서 부인보고 허는 말이,

37) 삼죽께 : 다리가 셋 달린 고양이. কে는 고양이.

38) 디물랑으네 : 드리밀어서.

39) 놉 빌렁은에 : 일꾼을 빌어서.

40) 지들르라고 : 짓누르라고

“이거 보라. 이게 뭣이냐고. 이제야 사름 보이느냐고. 아 쥐 좃도 모르고 ㄱ치 살았느냐?”

깡으네, (일동 : 웃음) 쥐랑 ㄱ치 살아지믄, 쥐 좃도 모르고 ㄱ치 살았느냐. 아 이래서 쥐 좃도 모르는 얘기가 나왔덴. (웃음).

7. 박만손 I

제 보 자 : 허정봉(남·1932년생, 송당리 1516)

조사일자 : 1996년 8월 3일

조사장소 : 송당리 노인회관

요약 : 박만손이라는 이는 이름난 노름꾼이었다. 뿐만 아니라, 남을 등쳐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무명 팔러 온 무명장수와 노름을 하다가 숙임수를 써서 무명배를 모두 빼앗아 버리기도 했다.

이거 송당에서 있는 일인디. 에 저 송당에서 있는 일인디.

영 정 올라가는 디 웃손당이라고 해서, 상동(上洞)이라고 해서, 여기 옛날 거 외 도 아이 혈⁴¹⁾ 뎨디. 박만손이라고, 망전 있을 시절이라느디. 박만손이라고 현 분이 살았는데. 이 머릿둘레가 커서, 자 두치⁴²⁾ 망전을 꺾자 이 코가 배라전(손가락으로 이마를 가리키면서) 뒤끈을 못맨다 해나서. 그 사람이 머리가 억수로 커노니까.

박만손이렌 양반이 살 때, 또 웃손당은 광김촌⁴³⁾이라서. 그디 광침에, 그 어느 훈가지에 별호가 많이 붙은 집안이 있거든. 그 소위 뭘, 뭣이니 뭣이니 그 와중에 소옥들이라는 양반이 훈 분 살았고.

젠디 이 박만손이라는 양반은 순 ‘나는 놈위의 타는 놈 있다.’는 이말 끝에 내가 이전 야길 하겠는디. 거 순 노름바랭이라.⁴⁴⁾ 거 남의 등골이나 치고, 그자 놈일 뺏겨먹고 이렇게 해서 살다가, 이제 어디 저 남군⁴⁵⁾ 쪽에서, 그때는 물물교환시대

41) 아이 혈 : 아니 혈.

42) 한 자 두 치.

43) 광김촌 : 광산 김씨(光山金氏) 집성촌(集成村).

44) 노름바랭이 : 노름꾼.

기 때문에 이 무명베를 가지고 와서 감중의(46)라고 해서, 그 저 제주문은(47) 대충 알겠는데, 그 감중의 맨드는, 감적삼 맨드는 무명을 가지고 와서 풀래 왔는데, 아 그래서 이젠 그 무명장시가 어떻게 해서, 이젠 옛날 투전도 있었지만 골패라고 그래서 저 요만씩한 까만 거, 바닥에 영 놔서 영영 둥글리다가 쭈르룩 허민 일자로 영 쭈르룩 바저비영 쪽 뽑는 사람한테 일등하는 그 골패가 이서서, 그놈의 무명장 시도 무명장시도 노름을 상당히 잘하던 분인데, 아 이제 그 박만손이가 그 무명이 나 해서, 빼앗아불라고 해서 몇 사람하고 영 노름을 허는, 박만손이 노름을 잘 하는데, 아 그놈한테 돈을 문딱(48) 일러부렀다 말이며, 경 행 원 추궁해볼 배가 없어, 그 소옥돌이라는 별명붙은 그 양반한테 눈 끄막끔막(49) 해연 놓고서는, 이젠 박만손이가 그 옆에 앉안 골패 한 장 곱져다가 그 무명장시 무릎팍에 어떻게 해연 찢러왔단 말이며, 은폐해연 찢러놔서, 이제 노름을 영 해 가는 와중에, 그 양반이 코가 좀 막더래(코가 막힌 소리를 내며),

“야야, 원 골패가 어서 봐다. 야 그 저 소옥돌아, 골패나 좀 세 보라.”

영 심영 뽕뽕 느다, 뽕뽕허라 영 심영 메다치고, 느다 심어당 메다치자, 이거야 원 뽕뽕 느다 뽕뽕허라. 하이 이러니, 이젠 그 대맹이조광, 그놈이, 아주 음성혈 놈이, 뭐 돈 판 거 다 내놓곡, 짙어온 무명베 다 내노고,

“이거 이거 제발 먹어줍써.” 허더라고.

겨난 이제 그거 행 먹은 좀 좇을 내놔 먹당 보니까, 요놈의 돈은 다 떨어지고, 늦은 봄날에 어디 초원 트멍에(50) 앉았으네 허리띠 배싸동(51) 니나(52) 잡을 수밖에 더 이수과. (일동 : 웃음)

8. 박만손Ⅱ

45) 남군(南郡) : 제주도 남제주군.

46) 감중의 : 갈중의. 전통적인 제주의 노동복으로 풋감즙을 들어 만든다.

47) 제주문은 : 제주문은. 제주 사람이면.

48) 문딱 : 모두.

49) 끄막끔막 : 깜짝 깜짝.

50) 트멍 : 틈.

51) 배싸동 : 풀어두고

52) 니 : 이.

松堂里 學術調查報告

제 보 자 : 허정봉(남·1932년생, 송당리 1516)

조사일자 : 1996년 8월 3일

조사장소 : 송당리 노인회관

요약 : 박만손이 소옥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굶히는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박만손은 소옥들을 시켜서 심방청 왕수가 왔다고 하고 그럴싸한 곳을 해 나간다. 그러던 중 박만손은 가산(家産)이 돼지집 속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것을 소독하고 잘 두면 병이 나올 것이라고 하자, 박만손이 신통한 줄 믿고 무명배를 많이 준다. 그러나 박만손과 소옥들은 이 무명을 노름으로 다 잃게 된다.

(앞 이야기 끝에, 이어서) 아, 이러하니 해 볼 직업이 없어. 옷도 잘 놓고 심방칠도 잘 하고, 모든 게 아주 참, 참 백분이며, 흐른 영 해 바른 출늘⁵³⁾ 어염에⁵⁴⁾ 강 앉안, 영 니 잡단에 소옥들 보고,

“야. 야. 소옥들아, 우리, 우리 저기 저 지경(地境)더래, 우리 놀래나 가게.”

“저기 나가민 무스 거 험디까?”

“에, 제도 입을 년 먹을 년이 난다.”

“개민 걸읍씨.”

아 쟁헨, 일로 영 나간 성산포 넘어간에, 아 저 어디 신산리⁵⁵⁾ 쫘م 가가니, 하 큰 대 세워놓고 곳을 와랑당 험서.

“야 소옥들아, 그디가 여쭙어라, 목의⁵⁶⁾ 심방청 왕수가 일루 지난다고 여쭙어라.”

하, 이렇게 해, 그 집안은 이제 잘 들어갔주게, 하 이제 큰 제사를, 곳을 허는디, 아 이제 설랑 설랑 곳을 해가는다, 아, 이제 소옥들 보고,

“이젠 너 강, 저기 저 심방청, 목의 심방청 왕수가 일루 넘어간덴 하고, 심방한 터 강 전갈을 부치라.” 이겨야.

아, 이젠,

53) 해 바른 출늘 : 햇별이 잘 드는 골 노적.

54) 어염에 : 옆에. 근처에.

55) 신산리 : 남제주군 성산읍 신산리.

56) 목의 : 濟州牧의.

“엣!”

흐멍 간,

“아, 목의 심방청 왕수가 일루 건너가다가 큰대 세운 거 보고 야기 현다.”고 했거든.

하이고 눈이 부떠분⁵⁷⁾ 심방들이, 두어분 심방들이 그냥 막 삼석치고, 막 심방청 왕수를 모사드리젠 허거든. 아, 이놈으 그 자두치⁵⁸⁾ 망건 쓰고 혼 그 박만손이는 커드랭이 사서 들어와지느냐 말이여, 아이 들어가거든. 아, 이젠 사람들이 무녕베 석줄 깔아놓고 그제야 막 패두드러가니까, 그제사 으상으상 들어왔어.

아니, 아무때도 여자로 해 가지골랑 탄로가 나는 것이지. 그래서 여제가 그집 그집이, 환자 원인은 뭇이나 하면 화병(火病)으로 앓는 사람이여. 어, 아덜이 술먹고 노름하고 팔아먹을 것 다 팔아먹어버리니까. 그니, 아방이 화병으로 지금 죽어 가는데, 굿만 설랑설랑 허는 것이지. 그니 그집이 그 아덜 어멍 부인뻘은 양반은 하르방 죽으민 물젠 혼 가산까지 풀아 먹어볼카부덴,⁵⁹⁾ 그 가산은 어디다 곱졌느냐. 풀아먹카부덴 돛집 속에 낱 곱져났다 말이여. 돛집 속에, 도야지 움막에. 아 그 예팬으로 해가지고 일이 난다는 것이, 그제,

“아, 심방청 왕수가 왔젠헨게, 저 거시기 가산 곱져논 거 알크나?”

아, 그 얘기를 듣저 보저덜 막 했는디, 아 얼른허게 그런 소리를 그 박만손이 그 귀에 들리거든. 이젠 심방덜 그 얘기는 들으면서 심방덜 7라,

“어, 췌지영 가져오라.”고.

“곳은 어디까지 가서?”

영 허니까니,

“예, 거 아무까지 갔습니다.”

췌지영 공약이여 가져다 노니까니, 어 그거 아전. 아 곳을 혼자 굿허는디, 춤 왕수모양으로 허거든. 아, 그래 맹주라고⁶⁰⁾ 있어. 그거 저 영 설랑설랑해서 쳐 보건, 아 이것이 갈라졌다 엮어졌다 허거든. 아, 설좌노니,⁶¹⁾ 아 이젠 허는 말이,

57) 부떠분 : 붙어버린.

58) 자두치 : 한 자 두 치.

59) 풀아 먹어볼카부덴 : 팔아 먹어 버릴까 보아서.

60) 맹주 : 맹두.

61) 설좌노니 : ‘설르다’는 ‘일을 하다 마치다.’ 또는 ‘치우다’의 뜻. 곧 곳을 마치고 나서.

“으, 뺨은 거슴⁶²⁾ 낫을리고.”

“아주 이상한 물건이 아주 높은 디가 추첩헌 디 놔졌다.”고.

“아이고, 이제 알았다.”고.

심방청 왕수가 왕수라고, 짐 치레 가면은 대충 영 맞춰가면은 영 맛이민 맛있던 허고, 정 곱아사 천덴 허멍 점쟁이들은 곱읍니께. 거난 이젠 맛있덴, 이젠허멍 맛있다고 허니까,

“예, 그럼 영 정 해네, 그냥 집이 아들놈이, 모든 걸 몰아먹고 허난, 이것도 몰아먹카부덴 돛집 속에 곱져수께.”

“그거 어떻 거기 놔 둘 수가 있느냐?”

“경해도 그거만 좋은디 뵙으네 잘 소독해 두구, 이켓말로 잘 소독해 두고, 잘 모시른 뺨 좋그라.”

아, 영해 뵙 거짜거짜 나오랑, 아 거기서 그냥 그 심방들이, 그냥 심방청 왕수가 와신디 그냥 보낼 수가 없거든. 아 이젠 거딱거딱 나오라 가니, 하이 그때도 물물교환 때니까니 베영 미녕이영⁶³⁾ 막 이젠 혼 트럭 그냥 트럭채 앗아당으네 강 대령허지 앗아서.

“음, 우리 그런 거 아이 받아.”

영 행 이젠 그 거짓 왕수는 이렇게 허니까, 소옥돌이라는 양반은 받젠 해께.⁶⁴⁾

“음, 우린 그런 거 아이 받는다…….”

영 행 이젠 넘어갔지, 아이고 그 주인네선 족양 안 받암시카부덴, 혼 대여섯 필 앗아당 그냥 막 권, 이젠 못 이긴 척 해 가지고설랑 썩 반양 가름 배끼⁶⁵⁾ 영 강, 이젠.

“어, 오라 우리 흐썰 쉬멍 가게.”

아, 이젠 턱 아정,

“이게 입을 넌 먹을 넌 아이가.”

아, 이젠, 그루 후젠 그걸 풀멍 먹으멍 돌아오당 교래라고 있어, 저 옛날 드리 드리 허는다.

62) 거슴 : 거의.

63) 미녕 : 무명.

64) 받지 않는다는 뜻의 반어문

65) 가름 배끼 : 동네 바깥에.

“아, 오라. 우리 드리 강으네, 노름이나 혼 쪽행 가게.”

드리 노름허래 강, 아 박만손이 머리 큰 것은 바로 우리 교래는 다 알려진 사실 이니까, 머리 큰 머리 보니까니, 금방 송당 박만손이 노름 잘 하는 놈인 줄은 알 았거든, 드리 분들도, 아 노름은 영 혼메당 골패 강 혼메당 해보니, 아 돈이 거반 가물어 가니까니, 아 이제 드리분덜도 폐가 이서, 옛날 가죽 보선이라고 이서, 그 쇠주불로⁶⁶⁾ 맨들안, 보선 모양으로 주언, 앞 코지 꼬짱허게 맨들고 해그네 헛 가 죽보선. 그 가죽보선 불통이다 돌아뻤단, 거멍헌 굶은 가죽 보선을 아시다가 탁 스러두고, 앞 코지 보선코지 담은 앞코지만 탁 그차두고, 이제 노름헌디간에 골패 를 가죽보선에 탁 담은 소복 담은 와글와글 흔들다그네, 똑허게 문지렁 요건 당신 찍시,⁶⁷⁾ 또 혼글영⁶⁸⁾ 당신찍시 하나까니, 외기할 수 없으니까니, 그 놈으 미녕 베⁶⁹⁾ 문떡 일러부렀다 말이여, 아 경행 돌아와 따시 여기 영 니잡단 죽어뻤젠⁷⁰⁾ 해여.

9. 박만손Ⅲ

제 보 자 : 허정봉(남·1932년생, 송당리 1516)

조사일자 : 1996년 8월 3일

조사장소 : 송당리 노인회관

요약 : 제주 신관사또로 부임한 이몽동 목사는 박만손이 노름을 잘 한다는 말을 듣고 불러서 도패장이란 직지를 준다. 박만손은 여산 영감 아들이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한다는 말을 듣고 가서 골탕을 먹인다.

아, 겐디 박만손이가 경헌디 후제 우스운 얘기로 이잡단 죽어뻤덴 해주마는, 그 후제 제주도 '이몽동이 목사'라고 지금쯤 도지사디, 이몽동이 목사가 헛 때에 노름

66) 쇠주불 : 쇠불알.

67) 당신찍시 : 당신 몫. '찍시'는 몫.

68) 혼글영 : 혼들어서.

69) 미녕베 : 무명베.

70) 죽어뻤젠 : 죽어버렸다고.

도패장까지 했어요, 그 양반이. 그냥 노름 도패장까지 했다고. 왜 그러냐면은 이몽동이, 이 목사가 제주도 신관사또로 제주도 들어와서, 부임해서, 이제 모든 정치를 살펴보니 제주도는 빈곤한 이제 도이면서 뭐 다 실업자들만 노름이나 하고 이렇게 한단 소문을 듣고,

“노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수소문을 하니까, 송당의 박만손이가 올라가. 경 행 박만손이 잡으래 온 때는 (영림 도집씨 명의해줍씨)(?) 하인들 보내그냉에 스령부 같은 걸로 왔자. 그 박만손이를 계속 못잡아 가났어. 겐디 이몽동이 목사가 와서, 이 박만손이에게 초청장을 보내었어. 초청장을 보내신디, ‘허 거 이번사 제주 목사 님은 사람이 훗나 들어와신디 츠쳐장을 보내었다.’ 아 경행 현 베두루메기 이제 둘러입고 행경 훈배 지고 해서, 아 저 그땐 공무 볼 때는 거 관덕정에서 봤거든. 관덕정의 어땡 들어간 었드려져부난,

“예. 송당의 박만손이 대령했습니다.”

헐 거 아니라. 아, 그 목사가 있다가,

“아 자네가 박만손인가?”

“예.”

허니까,

“어, 이래 올라오라.”고.

“예, 겐히 제가 어찌 제가 목사님과 같이 동좌(同坐)합니까?”

“아니라.”고

“내가 초청장을 뭇 때문에 보냈는가. 이리 올라오자고 예 경현디 자네 직업이 뭐인고?”

“예, 저 촌 끝에 농사나 하십주.”

“아, 그래도 좀 특수한 직업이 있지 아이 것는가?”

이렇게 해서 물으니까,

“아이, 그저 투전장이나 문직아 보이교 합니다.”

이렇게. 아, 투전해서 투전이라고 해서, 모제가 요만하게 넓은 건디 좀 좁더라 이거여. 투전이라는 게. 이게 요거 잘 허문 세개(손가락 세개를 보이며) 네개 쫘 현 거여.

이게 것도 영 이놈으 도람프⁷¹⁾ 모양으로 자르록 행 허는 건디. 아 투전을 아시

다72) 와서.

“아, 계전 우리 심심한데 투전장난이나 하자.”

이렇게 해서 이목사, 이몽동이 목사하고 영 허가 시작허는디. 꼭 목사는 ‘가보’면 진73) 요넬. 또 목사는 이젠 뭐 땅74)하면은 진 뭐 또라지면서 꼭꼭 찍었어요. 아 이젠, 목사가 잡으면 내가 지고, 내가 잡으면 내가 다 먹고. 저 박서방은, 내가 잡으면 목사는 꼭 죽어요. 한끗씩, 그거 참 요상한 게.

“거민, 이젠 골렐 허자.”고.

골패를 해도 내내 마찬가지라. 목사가 행으벙에 노나주면은 박만손이가 지고, 박만손이가 잡아가면은 목사가 지고. 아 이젠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야, 이거 대형문 이방 있느냐!”고.

“예!”

허멍, 대형문 이방이 들어왔거든.

“이 사람 제주도 노름 도패장으로 직결해 주라.”고

“아, 이거 너무 과분합니다.”고

헌디, 제주도 노름 도패장으로 이젠 직지를 맡아서. 그 행정에 갔다가, 이제 도패장 직지를 부쳐 아치고75) 도천봉 여산 영감네 집의, 여산 영감 아들이 신촌76) 노름 잘하는 놈한테 얻어 걸려서 그냥 그냥 가산이 막 탕진하다시피 했는디. 여산 영감 아들이 하는 말이,

“노름이나 혼 축해 주던가. 내 솔직히 말하지. 요 신촌 누구네광 노름 혼 몇 패 해연 나 가산을 탕진하다시피해서. 어이 이걸 놀앙으벙에 이번 기회에 혼 얼만이라도 훔아주던가 어떻게?”

경 행, 아 신촌더래 연락해서. 춤 아무 날짜 오랑 노름하기로 이젠 했는데, 아 이젠 다 관전 노름 돈 말하자면, 지금 돈 천원씩이면 천원씩 다 몬딱 각자가 다 찬, 대 여섯이 서로가덜 영 아장허거든. 노름을 그런대로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해

71) 도람프 : 트럼프

72) 아시다 : 가져다.

73) 진 : 자기는. 박만손은.

74) 땅 : 가보

75) 아치고 : 갓고

76) 신촌 :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보니까, 노름을 잘하고 이렇게 하느디.

“이기 노름을 해서는 아니될 것이주. 내가 노름허자 허자 현 것이 아니고 누가 노름꾼이고, 누가 노름 잘한다 혼 것을 시험을 받자 한 것이 올씨다.”

그 사람들 문딱,

“저디 저 제주 목사 대형문 이방신되로 가자.”고 뒤희면서.

그때사 행정으로 노름 도폐장 직지를 툅 내놔.

“이저 방 굴아줘이!”

아 이러니,

“몬저 따 먹은 돈 다 내놓코 허크매, 그자 게나제나⁷⁷⁾ 둘앙가지만 말아줍씨.”(사정하는 시늬를 하면서)

10. 알아야 면장하지

제 보 자 : 허정봉(남·1932년생, 송당리 1516)

조사일자 : 1996년 8월 3일

조사장소 : 송당리 노인회관

요약 : 오폭헌 아들은 신임목사가 각 풍헌을 일시소집한다는 말을 듣고 걱정을 했다. 그러자 오폭헌은 아들에게 자기와 친분이 있는 허우적에게 들르라고 하였다. 허우적은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오폭헌 아들이 허우적을 찾아가자 허우적은 스스로 온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시켜서 온 것인지를 물더니, 후자 쪽이라고 하자 그럴 거라면서 제주도의 장, 소, …, 남인구, 여인구가 몇인지를 써주면서 외우도록 했다. 그런데 과연 일시소집을 하여 신임사또가 묻는 것을 보니 허우적이 써 준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문자마자 외운 것을 모조리 답했더니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다.

요. 세화리⁷⁸⁾ 남궁 오폭헌이라고. 저 세화동네 오폭헌이라고 하는 그런 양반이

77) 게나제나 : 이러나 저러나.

78) 세화리 :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살았는데. 한 동(洞)에 허효백이라는 양반이 살았는데, 건디 제주도에 일소장 이 소장허는 얘기 들었지? 음막에는 일소장 이소장 십소장까지 이서계. 못질허는 사람들이 그 저 그 송당에서 꺾 살아난 집터가 있고, 그 때 이 제주 목사가, 신임 목사가 들어와서 제주도에 각 구릿짓 면장 각 풍헌을 하루 훈 날 훈 시에 일시 소 집을 가졌어. 아주 돌연 일시소집을 하거든. 아, 이제 남궁 오평헌 아들이 구릿짓 면장인디 막 이건, 막 크게 큰 일이 나불언, 이건 가면 구릿짓 면장이 타지나,⁷⁹⁾ 경 아니른 승진을 허나 허게 되는 그런 판국인디. 그 허문적과 구릿짓 면장, 그 말헌 오평헌아들 구릿짓 면장광은, 구릿짓 면장 아방광은, 허우적광은 좀 친인이라서.⁸⁰⁾ 좀 직합이 흐끔⁸¹⁾ 아래고 허우적이랜 허는 사람이. 그러니 이녀 아방이, 구릿짓면장 아방이 허우적광 친해노니까 그 아들이 허는 야기가,

“원 아버님은 거 좀 그 집 사람광 노는 걸 삼가해시믄마썸.”

요 야길 자꾸 해댔어. 이러니 아 경허는 와중에 구릿짓면장, 제주도 구릿짓 면장이 하루 훈 시간에 일시, 요즘말로 도지사가 소집허거든. 영 허니까니 틀림없이 구릿짓면장은 타지나 경 아니른 승진을 허게 될 그럴 입장이어니. 경 해서 그 사실을 아버지한테,

“이젠 이번 신임 신관 사또가 들어오멍씨라⁸²⁾ 다 소집을 햅수다, 아바님.”

“음 그럴거라고. 너 가당 한동⁸³⁾ 허우적한테 가 들러 똥 가라.”

이러니, 아 게 아버지 곁는 야기가 그디 가지말썸 아버지한테 단단히 곧곡했는디도,

“그디 들러똥 가라.”

허는 야기에서 아주 미심쩍고 이렇게 허니까니, 가다가 이젠 들러보지 않을지라도 이젠 한동 허우적이한테 가시니, 한동 허우적은 침 관상 잘 보고 모든 걸 잘 아는 사람이여. 그러니 이젠 아들을 볼 때에,

“당신님 생각, 므음 먹언 읍디가 아니면 아버지가 시견 읍디가?”

이렇게 대번 야길 물었어. 허니까 양심이 가착되니까,⁸⁴⁾ 이젠 시견⁸⁵⁾ 온 거랜.

79) 면장이 타지나 : 면장자리를 물러나거나의 뜻

80) 친인이라서 : 친한 사이여서.

81) 흐끔 : 조금.

82) 들어오멍씨라 : 들어오자마자.

83) 한동 :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

84) 가착되니까 : 가책되니까.

“가당 아버님이 들러방 가랜 허연 외수덴.”

“경 혈 거우다.”

오곶 들어강계 창호지 두루머리라고 해서, 창호지 영 몰아그넵에 영 몇개 영 불여 는 게 있어. [칭취불명] 필묵 앓아내연 글 써가는데 그 창호지에 글 하날 슝박⁸⁶⁾ 썼어. 이것을 가정가명 ㄱ으니므르 동산, ㄱ으니므르 동산까지 가명 다 외와 지저들랑 구릿짓 면장 사는 줄 알고 이것 다 못 외우면 구릿짓 면장 엇수덴. 아, 경헛 속슝헛⁸⁷⁾ 들렁 보니,⁸⁸⁾ 제주도 도 일원(一圓)에 장(場)은 몇 장이며, 소(所)는 큰 소는 멧 뒤 멧 개 혼착, 죽은 소는 멧 개 혼착, 물은 멧 뒤 혼착, 각 할당(割當)허고 창고에 데머진⁸⁹⁾ 창고는 멧 말 멧 되 멧 홉. 아, 이젠 제주도 남 인구는 멧, 여 인구는 멧, 아남(兒男)은⁹⁰⁾ 멧, 중남(中男)은⁹¹⁾ 멧, 그걸 문딱 써 노니까니, 아 ㄱ으니므르 동산ㄱ지 그걸 읽을 수가 없어.

“이저 외와지저들랑 구릿짓 면장을 사는 중 알고, 게 아니저들랑 포기하라.”고 허니, 하 이저 바로 미친 놈 모양으로 그자 가당 돌뿌리 채연 엇디지멍, 그거 보멍, 그자 미친 놈 모양으로 막 허멍, ㄱ으니므르 동산을 갖는다. 아 이젠 아닐카 아니라⁹²⁾ 관덕정(觀德亭)에서 강(講)은 받는다, 그 때 ‘고마면’이 어디산지⁹³⁾ 저 저시기 들은 야긴디.

“고마면 면장부터 문저 들이라.”

고 해서, 고마면 면장 턱 드니까니,

“너 제주도에 남인구는 멧, 여인구는 멧, 아남은 멧, 중남은 멧, 노남(老男)은⁹⁴⁾ 멧, 멧이야?”

이렇게 물으니까니, 통통구리⁹⁵⁾거든, 하 그때사 세화리 구릿짓 면장은,

85) 시견 : 시켜서.

86) 슝박 : 가득.

87) 속슝헛 : 조용히, ‘속슝’은 아무말 않고 조용함을 말함.

88) 조용히 들러보니

89) 데머진 : 쌓인.

90) 아남(兒男) : 아이 남자.

91) 중남(中男) : 중년 남성.

92) 아닐카 아니라 : 아니나 다를까.

93) 어디산지 : 어딘지.

94) 노남(老男) : 노인 남성.

95) 통통구리 : 아무 것도 몰라 멍청히 있는 모양.

“이제사 면장은 내가 살아졌구나.” 했어.
세 번째는⁹⁶⁾ 이제,
“구좌면(舊左面)⁹⁷⁾ 면장 들라.”

고, 이제 허니까니 들언. 아 그자,

“너 각 창고 환상(還上)^{은,98)} 이제 제주도에 각 창고가 환상은 멧 말 멧 리 멧
흡이나?”

허니까 글로부터⁹⁹⁾ 시작한 이녁 외와진 것만, 묻지 안 해도 그자 풀어부련. 게연
그찌 앞안 강을 봤다 이거야. 게연 그루후젠 세화리 오침광 허침은¹⁰⁰⁾ 사돈도 안
했어. 이제 바로 부모도 모셨어. 허단 세대가 흘러부난 이제 뭐 사돈도 허고 뭐
다 햄수께. 게연 이제 떡 먹으래 다니고 그랬다고. 거니까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11. 낳아준 부모보다 길러준 부모가 낫다

제 보 자 : 허정봉(남·1932년생, 송당리 1516)

조사일자 : 1996년 8월 3일

조사장소 : 송당리 노인회관

요약 : 조정의 한 신하가 첩의 자식을 버리자, 다른 신하가 그 자식을 주워다가
키웠다. 이 두 신하가 그 자식을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다투니, 임금은 길러준 것
이 부모라고 판결했다.

옛날 있잖여. 낳아준 부모보다 길러준 것이 부모가 분명헌 것이여. 낳양만, 즈
식을 낳양만 내붙어도 부모가 될 수 없어요. 길러준 게 부모지.

그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옛날 조정에 신하들이 우알녀집의 신하가 살았어.
조정의 신하가 우알녀집의 영 살았는디. 거 조정에 가면은, 그 조회(朝會)덜 험

96) 세 번째 : 세 번째.

97) 구좌면(舊左面) : 현재는 북제주군 구좌읍.

98) 환상(還上) : 수확시에 돌려 받기로 하고 백성들에게 빌려 준 곡식.

99) 글로부터 : 그것으로부터.

100) 오침광 허침 : 오씨(吳氏) 가문과 허씨(許氏) 가문.

때에 자기 그 생각된 바 분명히 허는 모든 것을 영 관찰하고, 이렇게 행 가서 정부에 반응을 해서 말이지, 이제 국민을 편안히 살게끔 허는 그런 디가 있었는데. 혼 신하집이 그 즈식을, 어떤 첩의 즈식을 낳아서, 이제 그뻘 칩허면 아주 떨시해 낫주게. 아, 경 헨 봉가다가서 내버려둔 즈식을 좇어다가 키운 집이 있는데. 이 신 하가 넘어가당 보난.

“이건 내 즈식이라.”

“이거 내부린 걸 내가 봉가당 질렀는데, 내 즈식이다.”

이렇게 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봤어. 그 걸 보았는데, 보안¹⁰¹⁾ 조정에 조회허는 더데 가는데 하튼 늦어부렀어. 지각이 되어버렸어.

“왜 아무가이는 왜 지각했느냐?”

이렇게 물으니 흐는 얘기가,

“예, 오다가 이상한 것을 보다가 도저히 원 저 즈신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생각하면서 오는 것이 늦었습니다.”

“어떤 것을 봤느냐?”

이젠 이유로 야길했어.

“웃논과 알논이 있는데…….”

응, 육지는 논 아니여게.

“우엣논과 아랫논이 있는데, 우엣논 씨가 아랫논드레 흘러와서 그 씨가 곡식 포기가 컸는데. 우엣논이 좇아 가겠다고 해서, 아랫논 사람은, ‘내가 길렀고 내가 이만큼 크게 맨들어서 여물지게 만들었는데, 네가 좀 수가 있느냐?’ 윗논은, ‘내 씨가 내려가서 허니까 내 것이다.’ 이렇게 다투는 걸 보고 그 판결을 못해서 왔습니다.”

“그 뭐 길른 것이 이제 임제가 되지. 씨 흘러버린 사람이 임제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판정이 되자,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당 보니까 사람을 놓고 둘이 다투는 걸 보고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옳으니, 아 제가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해서, 그거 강 그걸 해결해줬다 말여. 그러니 키운 게 부모. (조사자들에게 재확인 을 했다.)

101) 보안 : 박사.

12. 옛말 사서 도둑 쫓은 사람

제 보 자 : 채계병(여·1912년생, 송당리 1379-3)

조사일자 : 1996년 8월 4일

조사장소 : 송당리 노인회관

요약 : 한 할머니가 옛말 사겠다고 광고를 붙였다. 소문을 듣고 한 옛장수가 찾아왔다. 그러나, 옛장수는 잘 먹여주면 배불어서 말할 수 없다 하고, 조금 있으면 배고파서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러다가 화장실에서 두렵이 밤에 날아들어 무엇을 집어먹고 나가는 것을 보고 옛말을 팔았다. '후룩 날아드네, 쿡 집어먹네, 후룩 나가네'. 옛말 판 사람이 나가자 밤 중에 부부가 옛말 산 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왔다. 할머니가 도둑이 숟뚜경을 열고 밥 먹을 때 '쿡 집어먹는다'고 하자 도둑은 자기가 들어온 것을 아는 줄 알고 도망쳐 버렸다. 그 할머니는 다음 날이야 도둑이 왔다간 것을 알고 옛말 산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옛날 할망덜 옛말 사켄 광고를 붙였어. 광고를 붙이니까 이젠 어디 저 옛장시 능구래기 흔 잡놈이 둥글어대다. 아 옛말 폰다고 그 하르방신디¹⁰²⁾ 좃앙 갔어. 아, 막 잘행 맥연. 이젠 배불영 못굴으켄 아니 굴아. 아 이젠 조금 잇이문 배고팡 못 굴으켄. 이젠 또 맥여.

"하, 어느 제문¹⁰³⁾ 굴을 거냐?"

"오마 나덜 썩은 놈아."

하이 닷셀 살아가도, 잘 행 맥이민 이젠 굴으켄 해뵙 배불영 못 굴으켜. 아, 경 험다가 이 사람이 똥싸렐 화장실을 간. 영 올라산 베려보니 두렵이 발더래 후룩 날아들거든. 옴다. 이젠 이말 내가 풀게 됐다.

"두렵이 이젠 꺽 집어먹네. 뵘을 쿡 집어먹네. 집어먹네. 후룩 나가네."

아, 이젠 세 곡지¹⁰⁴⁾를 배워서, 이젠,

102) 하르방신디 : 하르방에게.

103) 어느 제문 : 언제면.

104) 세 곡지 : 세 마디. '곡지'는 이야기 단위.

“예, 이 저녁은 옛말 곶으쿠다. 풀쿠다.”

하니, 잘행 맥여놓고,

“두림이 후룩, 건전 전갱이광 후룩 놀아드네, 이젠 꼭 집어 먹네, 후룩 나가네, 다 곶아수다.”

아 그거 세 곡지 곶아된, 뭐 옛말 폰 놈은 나갔어. 즈낙엔 도둑놈이 그 하르방 들 사는디 들어오랑, 아 이 도둑놈이 오랑 있는디,

“이젠, 할망, 엇처냐 우리 옛말 산 거 곶아보주.”

좀 자단 부부가,

“건전 전갱이광 후룩 놀아드네, 꼭 집어먹네, 나가네.”

아, 이 하르방이영 할망이영 그 옛말을 곶았나봐, 아 도둑놈이 오란 솔 올안,

“밥을 꼭 집어먹네, 아 이제 후룩 나가네.”

나간덴 헐 댐 나간, 아 이제 도둑놈은 아 이거 알앙 곶암젠, 그만 돌아나거든, 둘 아나부렀지, 뒷날은 보니 도둑놈이야.

“아, 우리 도둑놈 다우련.¹⁰⁵⁾ 침 옛말 잘 사졌다.”

13. 묘 잘 써서 부자된 3형제

제 보 자 : 채계병(여·1912년생, 송당리 1379-3)

조사일자 : 1996년 8월 4일

조사장소 : 송당리 노인회관

요약 : 이정시라는 영감이 죽으면서 여우 바둑두는 곳에 묻어달라고 했다. 3형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자 여우형국에 가서 잘 묻었다. 그리고 대죽낭망대기와 콧박 세기(바가지) 하나, 7래(맷돌) 한 배, 쇠방망이를 각각 나누어 가졌다. 첫째 아들은 고총귀신이 제사날 가서 빼 놓은 처녀의 혼을 대죽낭망대기에 담았다가 도로 돌려줘서 그 처녀를 부인으로 얻게 되었다. 둘째는 탕자나무에 올라갔다가 도깨비들이 돈을 해 와서 좋아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고 7래를 갈면서 오줌을 싼더니 도깨비들은 벌이 떨어지는 줄 알고 도망가 버렸다. 결국 그 돈을 가지고 부

105) 다우련 : 쫓아버렸어.

자가 되었다. 셋째는 잠을 청하려고 어느 집에 갔더니 한 처녀가 죽은 사람이 아니거든 돌아가라는 말에 그 내력을 듣게 되었다. 셋째는 그 집안 귀신을 쇠방망이로 죽이고 기와집에 사는 처녀를 구해 부인으로 얻고 잘 살게 되었다. 소상날은 3형제가 모여 잘 차려먹고 다 잘 살았다.

이정시엔 흰 영감이 있는디 아들은 세 성제라. 원 각시도 죽어붙고 이젠 아들 세 성제만 남았는디, 아 이놈으 하르방이 이젠 그냥 죽었어.

“날랑 죽진 여위형국, 여위덜 바둑두는 디 강 물어도라. 물어도라.”

해연. 이젠 아덜덜 보고 기원(祈願)해땡 죽었어. 이젠 아방을 여위 바둑 두는 형국에, 산에 강 물어도라 해땡 죽었어. 아 이젠 아덜덜, 이젠 지 아방 죽은난 코펜 연 그 고망 소곱에,¹⁰⁶⁾ 여위 형국에 끼어강,

“야, 아방 웃엄져.”

그 코펜 디 끼엄 가가난 입이 해씩해씩행 혼난.

“야, 아방 웃엄져.”

이젠 경 헨 강. 이젠 잘 감장해주고, 큰 아들은 대죽낭망대에 곡박세기 하나를 물려주고, 물려줄 게 엇이난 셋아들은 쇠방망이 하나를 물려주구, 어 저 7래 한 배¹⁰⁷⁾ 물려주구 셋아들은,¹⁰⁸⁾ 죽은아들은 쇠방망이 하나를 물려진. 성은 이젠 곡박세기 잇양 가당가당 날이 저무니까 고총(古冢)엘 강 누웠어. 골총에 강 누니 고총구신이 나오랑.

“아랫녘의 대정소유 저 집의 이 즈낙¹⁰⁹⁾ 제서, 제서 먹으래 가자.”

“삼년 고총이나 가 잡취요. 나는 안가겠소.”

“나는 백년 고총이요.”

그 나그네가,

“나는 백년 고총이고, 고총은 삼년 고총이요.”

흔니, 아 백년 고총이면 잠 장도할테니까 그 대가릴 좀 내놓으랜. 곡박세기를 써 내 대죽낭 망대기. 정갱이 내놓앙 두드려보니까 대죽낭 막대기는 쟁쟁 안헐 꺼짜.

106) 고망 소곱에 : 구멍 속에.

107) 땡들을 세는 단위.

108) 둘째에게 쇠방망이를 물려 주었다고 했다가, 곧 7래를 물려 주었다고 고쳐 말했다.

109) 이 즈낙: 오늘 저녁.

또 대가리를 두드리니 꼭박세기는 쟁쟁 안힐 꺼. 아 십년 고통이 장성허겠네. 이젠 아랫녘의 김정승침에 식계¹¹⁰⁾ 먹으래 가켄 허난.

“아, 난 안 갈테니까 형님이나 저 주연이나 가세요.”

이젠, 간 그 김정승침의 간 식계 먹으래 가니 일로 가도 아니 주고 절로 가도 아이 주고 허니까, 그 단똥애기¹¹¹⁾ 혼(魂)을 뺐 오라부러서. 혼을 뺐 대망대기에 지영 오란. 식계 먹언 오고랜. 내가 우로 가도 아니 주고 알로 가도 아이 주고 똥애기 단똥애기 혼을 뺐 오라불¹¹²⁾랜.

“잠깐 좀 뵈우세요. 아이 좀 뵈우세요.”

요마니¹¹²⁾ 내봐.

“조끔조끔 더 뵈우세요.”

더 뵈와. 아 뵈우난 그 혼을 확 뺐. 그 나그네가 확 뺐에 새 날 들어부난 고통 구신은 기어들어 불고. 이게 거짓말인가 헛말인가. 이제는 그 대감집의 좃앙 가보 쟈. 뒷날은 좃앙.

“저지 좀 동냥이나 주세요.”

허니까,

“하이고 말도 말라. 단똥애기 죽언에 이디 막 우녕곳이 벌어졌다.”¹¹³⁾

“그러냐. 우리 저지도 좀 볼 수 있어요?”

“저런 저지가 보면 뭘 헐 게요.”

“아, 그러지말고 우리도 좀 보겠소.”

허여. 이젠 하도 보켄¹¹⁴⁾ 허난.

“겨건 보랜.”¹¹⁵⁾

하아. 이젠 고쩌사불랜¹¹⁶⁾ 헨 문을 딱 더쩍 간 혼 빼는 걸 난 코더래.

“혼 달라 혼 달라.”

흐난,

110) 식계 : 제사.

111) 단똥애기 : 무남독녀(無男獨女).

112) 요마니 : 요만큼.

113) 우녕곳이 벌어졌다 : 슬픈 일이 생겨 울음바다가 되었다. 식구들이 모두 울기 시작했다.

114) 보켄 : 보겠다고

115) 겨건 보랜 : 그러거든 보라고

116) 고쩌 사불랜 : 비키라고. '고쩌 사다'는 '비키다'.

“아이고, 아버지 나 좀 너무 자져수다.”

허멍 버들래이 깨나. 이젠 땅 혼착 물 혼착 살림만 허먼은 그 똬의 사위허고 이젠 주기로 딱 했단 말이여. 하, 이젠 뭐 그디 사위 들고 하 이젠 잘 살아.

하이고 이젠 셋아신¹¹⁷⁾ 이젠 어덜 갔는고, 나는 이제 잘 살암는다. 이젠 셋아 들은 그래 한 벨 째어전 가단가단 날이 저무니까 탕자나무에 그렐 앓안 올란. 밤은 깊어가고, 네 발 생이도채비들이 돈을 멧 만금(萬金)을 막 해 완. 그 아래에서 갈르젠¹¹⁸⁾ 막 자자자자. 겨니 이젠 그래랑 박박 골멍, 오즘이랑 갈갈 싸멍 팍 느리치니.

“하이고 하늘의 별이 떨어점맨.”

다 돌아나부러.

돈을 막 시꺼앗언. 이젠 부자가 땀. 각시하고 잘 살안.

아이고 죽은 아신 가단가단 막 산촌(山村)으로 막 올라가단 보니까, 지와집이 열다섯 거리 이신디 처너 하나만 눈물만 짚짚 나멍 울엄서.

“좀 재워주시오.”

“죽을 어른이건 들어오고 살 어른이건 나갑써. 이디 우리집이 백년 질른 새구신이 나오란 우리 어멍 아방 동생덜 다 물어가부난 이 저녁은 나 차례우덴. 나 물어가민 매기우덴.”

“그러냐고 나 내가 좀 이 즈낙 그 구신을 다올리겠다.”고.

“지켜주겠다.”고.

그 처너는 케 속더래 난 문 잠가두고. 문을 다 도래도래 잠강, 어디 밤이 지망 지망해 간. 그놈의 쉼구신이 나오란 꿀떡 우루 광 광 쇠방망이 외장창 탁 두드려 부난 야 배룩 둥글둥글하다. 어뎡해연에 이 저녁은 다르네. 열 두 문을 막맹기멍 그 쇠방망이로 그놈을 막 방둥이해서,¹¹⁹⁾ 게니까 이제 새날을 드니 그 쉼구신이 들어가버려. 애기씨는 파랑계 그냥 막 혼미허연. 허난 이젠 어디 묻은 디 보래가 켜. 이제 물을 덜 보랜 해영 우영에 묻어시니까. 숲을 쉼 바리. 이 동네 다 해서 쉼 바리해서 불을 채 질르라고 질르고, 쇠곡지 찌르게 해서 이젠 그 봉분을 쉼구신 묻은 걸 일런 보니 쉼가 시퍼렇게 살안. 살아나난 그 쉼 바리, 불살란 그놈 막

117) 셋아신 : 셋아우는. 삼형제 중 둘째. ‘셋’은 둘째, ‘아시’는 아우.

118) 갈르젠 : 가르려고 나누려고

119) 방둥이 : 장난질.

캐완. 칼로 이젠 막 쏘고.¹²⁰⁾ 허난 이젠 아시도 그 처녀에게 그 처녀신디. 이젠 그 기와집 열두 거리 다 차지허고. 이젠 소상날은 막 세 성제가 벌런 백계차멍¹²¹⁾ 막 오랑. 소상 잘해 먹엉 다 잘 살앙. 여위는 아무 놈으새끼들. 지 아방 오란 물어 부난 우린 이젠 바둑도 못두고. 거 홀 수 없다.

14. 악한 계모의 최후

제 보 자 : 고갑생(여·1914년생, 송당리 1479-4)

조사일자 : 1996년 8월 4일

조사장소 : 송당리 노인회관

요약 : 두 딸이 있던 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계모가 들어 왔다. 오누이를 낳았다. 그러자 계모는 전처소생의 두 딸을 구박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계모는 큰 딸이 밥을 하다가 쥐에게 쌀을 조금씩 던져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계모는 쥐를 꼬여 나오게 한 뒤 펄펄 끓인 물을 부어 죽였다. 그리고는 죽은 쥐를 큰딸의 이불 속에 넣어 두고, 남편에게 딸을 모함한다. 그리고는 아들을 시켜 딸을 죽인다. 그러자 큰 딸이 귀신이 되어 동생과 아버지 꿈에 나타나서 모두 못으로 데리고 가 죽인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나타나 아들을 잡아먹으려 했다. 아들은 급한 김에 독 속에 숨었으나 숨이 막혀 죽고 말았다. 계모는 무서워서 딸에게 아들 시체를 치울 사람을 불러오라고 했다. 딸은 어머니가 마음을 나쁘게 써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절하였다. 결국 계모 자신이 직접 시신을 치우려고 나갔다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 홀로 남은 딸이 원수를 갚아준 호랑이와 살것 다고 하자, 호랑이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딸 성지를¹²²⁾ 놔땡 각시가 죽어부난. 이제 따시 각시를 강 언어울 거 아 니우과. 언어오난, 아이를 오누일 난. 허난 이젠 그 큰어멍 난 애긴 '밥 허라. 물 질어 오라. 방애지라. 이제 빨래허라.' 그거 딸 성제만 막 민엉 경 자꾸 그것덜 답

120) 쏘고 : 쏘(射)고

121) 백계차멍 : 벌런 독교를 타면서.

122) 성지 : 형제.

두리허난.¹²³⁾ 아니 큰딸이 밥을 허래 가민, 쥐가 졸락 허게 나오민 쌀을 흑 허게 데끼민 그거 좃어먹엉 기어불고.¹²⁴⁾ 졸락 허게 나오민 또로 흑 허게 쌀을 데끼민 좃어 먹억 현 게.¹²⁵⁾ 아니 큰 고냉이만큼 현 중이¹²⁶⁾ 하나 되여, 큰 고냉이만한 중이 되난. 그 가시어멍은 그 중이를 쌀 주멍 키웁는 줄 알앙.

“이년은 나한테 절령 죽을 목이 되주. 요년은 죽을 목이 될 거난, 이 저녁은 요년 죽일 연구(研究) 허주.”

이젠 돌그록 돌그록 아척의¹²⁷⁾ 강으네 돌그록 돌그록 허난, 쌀 좃어 먹엉 들어 가는 걸 보고, 따시 이젠 또 밤중 되난 어멍이 강 돌그락 돌그락 허난, 따시 그거 쌀 얻어먹젠 쥐가 나오자, 솟딴¹²⁸⁾ 물을 팔팔 굽여네 팔팔 끓여 이제사 쥐가 주물락허게 나오난 바락 솟차¹²⁹⁾ 얹어부난 쥐가 오꼳 죽지 안해게. 오꼳 기냥 허성해 연¹³⁰⁾ 죽으난. 아, 바놓으로 그자 목을, 쥐목을 팍팍팍팍 질르난, 곧 죽은 거난 피가 벌컥벌컥 날 거 아니라. 막 피로 범벅이 지난에 큰딸아기 그 이젠 뺨스를 앓 여단에 그걸 툠툠하게 싼에 이제 큰년 늙는 방에 간에 이불 속더래, 이불 속더래 묻언. 묻언 허난.

“아이고, 이녁 얘기 속도 모릅니다.”

이젠 영감³⁾라.

“얘기 속도 모릅니다.”

“어떻해연 말이라. 전에 들도엇이 무슨 말이라게. 저 사람은, 끝도 어신 말을 곺아.”

그때 나온 말이우다. 끝엇인 말 곺는 말이. 끝엇인 말을 곺앙 영 행.

“아니 저 저년이 우리 모르게 무신 잼힐 짓을 해연. 애길 지난 물어수게.”

영허난.

“저 사람 봐서?”

123) 답두리허난 : 닥달하니.

124) 기어불고 : 기어들어가 버리고.

125) 먹억 현 게 : 먹곤 한 것이.

126) 중이 : 쥐.

127) 아척의 : 아침에.

128) 솟딴 : 솥의.

129) 솟차 : 솥 썰.

130) 허성해연 : 희생(犧牲)하여.

“봤주게.”

“거 이래 아저와 보저.”

아전오난 게 쥐새끼난 게, 뺄스고 내의고, 경 사람고치룩¹³¹⁾ 피를, 경 동동이
저오란. 그럴 리가 시카. 차마 그럴 리가 시카. 영 행 허난.

“이제 널랑으넝아 저 큰 후젤 돌양강으넝아 물에라도 강 빠청 죽여볼렌.”

허난, 오라방이 이젠 그놈을, 죽으레 가지말젠 하는 걸 지롱지롱 끌어앗어간 자락
이젠 물 속으레 거리밀리젠 허난¹³²⁾ 물 속으로 호랭이가 나오란 훌훌차고 똑기
그차먹어부련. (조사자 : 누게. 지집아이?¹³³⁾) 아니, 소나이. (조사자 : 소나이?)
지집아이는 그 물에 걸어 앉아부난 죽엿주게. 죽으난 암만 지다려도 성이 안오라.
이놈으 죽은년은, 아신 암만 죽게살저 밤낮을 지다렸자 이제 성이 안오난. 이젠
흐룻밤은 누워시난 성이 머리 탁 허치고¹³⁴⁾ 물 졸졸나는 옷입고 해연 오란.

“죽은년아, 잠다?”¹³⁵⁾ 영허난.

“하이고, 누게파?”

영 와들랑 일어낭 뵈리난, 번쩍 문안에 들어가 뵈리난, 사름.

“어디 갑디까?”

“나 조름에 오라.¹³⁶⁾ 나 조름에 오라.”

경 행 졸졸허게 끄어강, 물더래 오물락이 안앙 기어들어부련. 형제가 다 죽어부
난, 이젠 이제 다심어멍이 시원힐 거 아니파. 다심어멍 시원허난 흐룻저녁은 시난
에, 이젠.

“아버지, 잠수파? 잠수파?” 영 허난.

“거 누게냐?”

“나 이름으로 아무가이우다.”¹³⁷⁾

“무사 오란디?¹³⁸⁾ 어디 간디, 어디 간디.” 영 허난.

131) 사람고치룩 : 사람처럼.

132) 거리밀리젠 허난 : 떠밀려고 하니.

133) 지집아이 : 계집아이.

134) 탁 허치고 : 풀어 헤치고

135) 잠다? : 자니?

136) 나 조름에 오라 : 나를 따라 오너라.

137) 아무가이 : 아무개.

138) 무사 오란디? : 왜 왔니?

“나 저 어머신디 갖추다. 어머신디 가난 아버지도 읊서.”

“니네 어머이 어디 실 말고? 저런 아들 놈들께 해도 저런 악심이 엇어난 느네 어머신디 강 나 얼굴이나 뵈 오켜.”

“영 읊씨. 나영 갑주. 갑주.”

해여. 딸들이 지네아방 꺾어당 또 음막허게 빠지난 죽어불지 안해서.

이젠 밤낮 이놈으 호랑이가 창문에만 도라정 박박 뜯어 그자. 앙 허민 그자 그 자 문이 혼주멍해영 들러 먹영 이 저녁은 어뎡 살코. 널 저녁은 어뎡 살코 허는디 아니 혼 닷셀 경 오랑 막 겁내웁당 이젠 옛새챗 날은 창문을 오랑 닥닥 두드렁. 호랭이 소리도 안허고 닥닥 두드렁. 이젠 허민 창문 고망으로 영 뇌리문 호랭이라.

“나 돈 어디 갔느냐? 나 돈 어디 갔느냐?”

곧 사람고찌 말 굴으멍.

“아이고 무사 좃암수과게. 무사 좃암수과. 호랭이야저씨 무사 좃암수과.” 영 허난.

“아니 네 아들이 너무 불리허고 몰상식한 짓을 허난 소개끼를 나가 다 잡아 먹 어버렸다. 겨난 이 저녁은 너 아들 적시다.”

경 허난.

“아이고 이번만 살려줍씨.”

이 놈 암만 해도 아들만 찾아내랜 허난.

“아니 아들을 어뎡행 찾아넌니까? 어디사 가신지.”

경 만약 호랭이가 오랑 물어나 가카부단. 큰 독속에 뵈 두결 툯 더꺼부난 숨 고 읊전¹³⁹⁾ 죽어부련. 죽어비언 허난 이제 일뤼챗 저녁엔 오랑에.

“아이고. 이젠 누게 빌영 이거 묻으코. 누게 빌영 묻으코. 죽은년아. 어디 강 묻으코. 묻으코.” 영 행.

“아이고. 난 무서왕 못 나가쿠다. 어머이나 갑서. 난 무서왕 못나가쿠다. 오라바 니 독 소꿉에서 썩어도, 나 모소왕 못나가쿠다. 못나가쿠다.” 영 허난.

“해낮인디 모습느냐? 어머이 해낮이 모소왕 독 숨에 신 사름 나오람수가게. 어 멩냥으로 강 뵈씨.”

저 올래 뵈겔디 나오지 말젠 괴로. 경 이젠 어뎡허는 행동이 나쁘난 딸은 이젠

139) 숨 고읊전: 숨이 막혀서.

松堂里 學術調查報告

먹음을 곱게 먹은 거라. 아명 했자¹⁴⁰) 이제 서너우 새끼 죽여먹어 놓고 날⁷라만 가래 허는 걸 보난 나꺼지 죽여먹겐 허는 거구나. 날랑 이젠 올래 뱃걸디 나가지 말앙 어명을 내 보내젠.

“어명냥으로 잡서, 뭐 독 소곱에 앓앙 죽은 사람 어명헛네까. 어명헛네까. 썩으문 그디 싣주. 썩으문 그디 싣주.”

허난, 이젠 낮의 묵은 날로 여드레챗 날은 어명이 이젠 어디 강 늪을¹⁴¹) 빌코? 영장헛 늪을 빌코 행 나가져 말져 허노랜 허자, 그자 와락 돌려드난 야개길 특기 물영, 그자 어명을, 그자 쥐새끼 죽이듯 하니, 아이고 딸은 나오랑 허는 말이,

“호랭이 아저씨, 이제 집에서 사람 살릴 목심 살릴 적선뱃기 엇이난, 호랭이 아저씨광 날광 살민 어명허우파게.”

경 허난 그 호랭인 사람되드라 헛디다.

15. 핑 하나로 부자된 사람

제 보 자 : 고갑생(여·1914년생, 송당리 1479-4번지)

조사일자 : 8월 2일

조사장소 : 고갑생 할머니 댁

요약 : 김백년이라는 사람이 핑 한 마리를 잡아서 팔았다. 그 돈으로 닭을 샀다. 그 닭에서 얻은 병아리를 팔았다. 그것으로 다시 말 한 마리를 샀다. 말은 또 망아지를 낳았다. 말이 망아지를 낳고 망아지가 자라서 다시 망아지를 낳으니 결국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저디 저 김백년 광산(光山) 짐씨¹⁴²) 김백년이랜 현 사람이 어 저... 거시기 핑 혼 마리 잡아네, 이젠 풀안 앓땀 하날 산. 이젠 빙아리 깨와네 그 이제 병아릴 이젠 서른 두 마린가 몇 마릴 길런 풀아네, 이제 몰 혼 마리를 산, 혼 게 그 몰이 올리도¹⁴³) 하나 나민 내년도 하나 나고, 또 내년도 하나 나곡 허는 게 저... 저...

140) 아명 했자 : 아무리 해도

141) 늪 : 일꾼.

142) 짐씨 : 김씨(金氏).

평 흔 무리로 부제엔 흔 사람, 백년이라는 흔 사람이 서 낮주.

16. 시신이 정한 명당

제 보 자 : 고갑생(여·1914년생, 송당리 1479-4번지)

조사일자 : 8월 2일

조사장소 : 고갑생 할머니 덕

요약 : 아버지가 병이 들어 아들이 약을 지으러 갔다. 가 보니 약국도 상중이었다. 이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약국에 상이 났으니 약이 필요없음을 알고 돌아왔다. 와보니 아버지는 이미 죽어 있었다. 어머니가 이번에는 아버지 택일을 해 오라고 했다. 남을 위하여 택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집의 택일, 묘자리 등은 좋은 자리로 보아 잘 살고 있을 것이라 했는데 지관의 집도 못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냥 돌아와 운명대로 될 것이라며 부친을 지계에 싣고 매장하려 하는데 어느 곳에서 돌부리를 차서 넘어지는 바람에 부친이 땅에 떨어졌다. 이들은 그 곳이 부친이 누울 자리라 생각하고 부친을 그곳에 묻었다. 그랬더니 그 자손들은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옛날에 아들 하나하고 내외간이 살아서. 산디 서방님은 뽕이 들고 하니 이젠 아들은 단아덜이니까,¹⁴⁴⁾

“아이고, 우리 아바진 병이 난 죽게 되었다.”

“약 지어 와라.”

아들이 약 지으러 갔어. 하나 이거 거짓말 아니고 법문(法文)이야. 약을 지으러 강 보난 그 집의도 우념이 벌어졌어.¹⁴⁵⁾ 경허난 이 사람이,

“약도 필요없구나. 약방이 왜 자기네 병을 못 고짜냐.”

그냥 온 거라. 오란 보난 이젠 아바진 돌아가셔서. 계난 어머니 허는 딸이,

“아이고, 야야 약을 일찍 지엄 오라시문 느네 아버지 살릴 거 아니가.”

143) 울리 : 울 해.

144) 단아덜 : 독자(獨子).

145) 우념이 벌어졌어 : 울음바다가 되어 있었다.

“아이, 약방에도 강 보난 사람 죽어십데다. 그 집이도 사람죽는디 약이 무슨 필요 이수가게.”

“아이고, 게나 제나.” 해여 놓고.

“정시침의 가그넝에 날 택일이나 해여 오라.”

허난 그 아들이 날 택일허래 간 거라. 간 보난 정시침인 오막살이벳기 못 살암서. 게난 그냥 오란. 어머니 하는 말씀이 아들보고,

“야, 정시침의 가난 언제 묻으랜 허더니.”

“어머니, 그 말씀허지 마서요. 그디도 간 보난 아주 못 삼데다. 왜 잘 알민 자기 네가 못 살아요. 어머니 이제 아버지가 구신¹⁴⁶⁾ 안다 하니 아버지가 좋은 땅을 봉글 겁니다.”

“아이고 그래, 그렇게 허여라. 게매 네가 아는구나.”

이젠 아들 따라 갔지. 아들이 이젠 아버지를 가단 가단 배민¹⁴⁷⁾ 쉬곡 쉬곡. 막 천장만장 가당 보난, 발을 툭 차난 탁 쓰러져. 쓰러지난,

“어머니, 아버지가 좋은 땅을 봉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디를 판 잘 모시난 잘 살더랍니다.

17. 동침한 사돈

제 보 자 : 김기옥(여·1908년생, 송당리 911)

조사일자 : 1996년 8월 4일

조사장소 : 송당리 노인회관

요약 : 사돈을 그리워 하여 병이 난 사람이 있었다. 딸은 아버지가 자기를 시집 보내고 나서 자꾸 병이 나자 걱정이 되어 물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사실대로 사돈과 같이 앉아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딸은 피를 내어 아버지를 여자로 변장하여 집에 놀러오도록 하였다. 다음 날 아버지는 여장을 하고 딸네 집으로 갔

146) 구신¹⁴⁶⁾ : 귀신같이.

147) 배민 : 무거우면. '배다'는 무겁다의 방언.

다. 딸은 아버지를 시어머니와 함께 앉도록 하여 저녁도 같이 먹고 같은 여자끼리 한 방에서 자고 가도록 한다. 그 날 밤 아버지는 피를 내어 사돈과 동침을 하게 되고 새벽녘에 간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마루를 닦으면서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하나 사람은 딸 데려오전 사돈침의 가난, 하이고 사돈은 홀어멍이주, 사돈은, 사돈을 보래난.

“하이고, 저 사돈 조꼳디 간 맞아바시민 조켄, 저렇게 고운 사돈을.”

겐 아 잔치해돈 심발병(心發病)¹⁴⁸⁾ 난 막 죽게 돼서, 그 사돈 조꼳디 강 못 맞아방. 게난 딸ㄹ라 곤느디.

“아이고, 아버지 어떻허난 날 풀아두고 행 그추룩 죽어 감수파.”

“아니다. 난 너 풀아된 사돈을 보난 하도 아까완, 사돈 조꼳디 맞아만 바시민 허주만 못허난 화병난 난 죽어간덴.” 경허난.

“아, 사돈 조꼳디 맞임이사 어려웁니까게.”

“아니다. 경해도 사돈 조꼳디강 아자바시민 막 현덴.”

“아 쟁허거든에 오랑 씨어멍을 대협씨.”

허난에 씨어멍 대허래 가민 윈 아멩해도 잘 출령가야 헐건디. 잘 출령을 가난, “아버지 허는 거 보난 아이 되수다. 예편으로 출령 읍씨 게진. 게 저 씨아방 죽 어분디 가그네 사돈 조꼳디 맞앙 무신 예 없덴 못허고 헉니다. 예편으로 출령읍씨.”

느 시엄이¹⁴⁹⁾ 나 시엄에 춤 맞다.

“게난 저 내일랑 읍씨예.”

아방은 예편으로 출령오랑.

“아버지가 경 죽어볼민 됩니까? 게난 아방이 살아살건디.”

“기여.”

“예편으로 잘 출령 읍센 헨.”

내일은 이젠 어스렁헌디, 이눔으 조식이 테닥테닥 갔주게, 사돈침이 갔주게.

“예헨 나 이거이 사돈침일 왕 어떻 어떻행 잘도 좇아 오랏젠.”

148) 심발병(心發病) : 상사병(相思病).

149) 시엄이 : 딸이 제시하는 계략이. 시엄이.

松堂里 學術調查報告

“아고, 아고 사돈님 어떻습수젠.”

단속곳 입고 막 예펜으로 치매 입꼬 그냥 막 여펜으로 막 잘 찰령 갔주게. 그리 앞전에.

“아고 우리 아버지 겐 어떻헐 읍데강. 이디 읍씨게. 이리 읍씨.”

헐 저녀 헐 먹고 혼디 사돈이영 앓안. 허당 이젠 딸은 재랜주래 가멍 저 어머니영 이영 가그네.

“저 그저 곱은 여자난 혼디 뵈당 갑씨.” 영 허난.

“어 기여. 기여. 니 말이 맞다게.”

경해연 이젠 사돈이영 혼디 누니까. 무시거엔 불 쫓단에 이젠 꺼두고. 헐 드러 뉘 두면서 드러뉘 뉘서.

“원 사돈님 원 이거 헐 말은 아님주만은 난 헛 좇이 등기여수다. 헛좇이 등기연.” 예편이 경 고란.

“어디 놀렐 가민 우린 거 자파리로 막 우슴 뺨탁 허멍 합니다.”

영허난, 혼디 누었다. 아 그 나덜놈의 예편이.

“아이고, 그저 무슨 말이파? 영 험셸. 그디. 아이 영험씨 보저.”

슬째기 영 허난 개만이 헐 개 좇이 시여. 몽쿨락허고 개만인 허고, 심영.

“이거 헛좇이우다. 게 이추룩 허기로 막 놀래간덜 예펜덜 심영 막 험니덴.”

영 앓전.

“사돈님도 이걸 혼 번 대여봄씨. 춤 재미집니덴.”

허난, 그놈의 걸 개만인 헐 걸로 막 그냥 그날 처녀 두드려 해주게. 해연 뒷날 아 척은.

“아버지, 침 저 어머니. 어디 볼 디 시난 오단 들렀고랜 헐게 혼저 갑씨.” 허난.

“기여. 걱정말라. 새백이 똑 가키여. 너네 할망광 7찌 닝 자뵈.”

경 가불었어. 이젠 가부난 뒷날은 씨어멍은 막 광착광착해연, 어떻해연 가시고 행. 기냥 씨어멍은 마리를 다끄는다.

“하이고 지네 아버지짓 춤쫓보단 좋더라.”

지만이 마리 다끄멍(걸래로 마루 닦는 시늬를 하면서).

“어머님 요건 좀 물 젖은 수건이우다.”

“기여 기여. 하이그, 지네 아버지 춤쫓보단 좋더라.”

시어멍도 지꺼지연 허난. 메뉴리가 막 지꺼지여서. 제난 뵈도 좋구. 치맛뵈도 좋곡.

18. 고려장이 없어진 이유

제 보 자 : 채계병(여·1912년생, 송당리 1379-3)

조사일자 : 1996년 8월 4일

조사장소 : 송당리 노인회관

요약 : 고려장을 할 나이가 다 된 아버지를 버리지 못하고 마루 아래에 숨겨서 모시고 사는 신하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국천지에서 나무를 보내어 이름과 상하를 알아오도록 했는데 신하들끼리 몇 날 며칠을 의논해도 알 길이 없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근심이 있음을 눈치 채고 밤을 차려온 며느리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물웅덩이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래이고 나중에 들어가는 것이 위이고 나무이름은 상나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신하는 임금께 고려장 법을 어겨 아버지를 숨겨왔었는데 답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그러자 임금은 노인도 쓸 데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법을 없앴다고 한다. 또 한 부부가 있었다. 남편이 죽어가자 부인이,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하나?”고, 대성통곡을 하니, “신랑은 다 사는 법이 있다.”고, “궁작새도 낮거미를 먹고 산다.”는 말을 하고 죽는다. 다시 대국천지에서 궁작새를 보내와 살찌워서 보내라는 명을 한다. 그런데 이 부인이, “남편이 죽을 때 궁작새는 낮거미를 먹고 산다는 말을 했다.”고 하자, 왕은 사람을 시켜 낮거미를 잡아다 먹이니, 잘 먹고 굶어죽지 않아 돌려보낼 수 있었다. 결국 대국천지는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지 않았고 고려장 법은 없어졌다고 한다.

옛날 칠십 나민 개고 제고 고례장을 해주. 훈 날은 이젠 아방이 칠십나니까 산에, 지계에 지영 갔단 말이여. 아덜은, 손지가 또 데려서 갔어. 아방이 이젠 그 지계를 아방 고려장을 해두고 지계를 버려뒀 오켄 허난.

“아이 아버지도 칠십나민 내가 지어 올 거 아닙니까. 지계 정 걸웁센.”

“아이고 요 것이 뜻이 있는 말이라.”고.

이젠 아방을 지어 앓안 오랏어. 지언 오란 마리 아래 곱전 때를 날라주는다.

신하덜이, 이제 허면서 이제 소문난 낭을 보내면서,

“이 낭, 상 알을 알고 이 낭 이름을 알아드리라.”

松堂里 學術調查報告

대국 천지에서 보내어서 아무도 멧 날 메칠을 뭐 회의를 하여도 그놈의 이름도 몰르고 저 덩치 알도 몰르꼭 허거든. 막 아덜이 오랑. 그 놈 기상을 보니까 조드는 기가 나. 메누리가 이제 때를 마리 아래 놔둔 갈 때.

“어찌 아덜이 즈드느냐?”

“멧날 메칠 대국천지에서 소문난 낭을 보내서 이 나무 이름 알곡 상하를 알라. 헨 보내노니까 메칠 멧날 상의를 하여도 알지를 못하여졌습니다.”

“음 그러나 물 웅덩이에 물 떠놔서 그 낭을 침방 드리치면은 먼저 들어가는 거는 굽이고, 말제 들어가는 것은 우이고, 이름은 상낭이다.”

뭐 병난 아방 골은대로 간 골으난,

“아이고, 이런 어떻게 이 순낭이 있느냐고.”

“우리 아버지가 저 칠십이 고레장을 허래가니까 우리 아덜이 아버지도 죽으면 지어 올꺼 아입니젠 헨 지어다가 법이 무서워서 이제 마리 아래 숨겨 때를 안네는데 아버지가 골았습니다.”

“아이고 늙은이도 쓸 때가 있다고 이제는 이 고레장 법을 설르랜.”

이제 훈 신랑 각시는 이제 신랑이 죽어가면서 남편이 죽어가니까,

“아이고 나 어떻 삼니까. 나 어떻 삼니까. 저 지만 죽어볼민 나 어떻 삼니젠.”

누운 양.

“내가 죽어볼어도 살 때가 있느니라. 우리나라 궁작새도 낮거미를 먹고 사느니라. 살 때가 난다.”

계된 죽어볼언. 아이 이젠 대국천지에서 궁작새를 보내어서 이걸 막 훈남 솔지왕 보래랜. 뭐 만날 쇠끼기, 지랄, 나룩밥을 행 멕여도 아이 먹고 막 몰란 죽어가. 이젠 그 신랑 각시가,

“야, 니 아방 죽어갈 때 나 어떻 살리, 나 어떻 살리 허난, 우리나라 궁작새도 낮거미 먹고 사느니라, 살 때가 난다 허더라.”

이젠 낮거미 막 잡아단 주니까 막 먹언. 술전 대국더래 보내연. 이거 우리 이조선도 아주 참, 뭐 헌 나라라고. 그루후제 이 칠십이 고레장도 설러붙고, 그걸 알았다고.

19. 토산뱀

제 보 자 : 허정봉(남·1932년생, 송당리 1516)

조사일자 : 1996년 8월 일

조사장소 : 송당리 노인회관

요약 : 멧때기 마을에서는 토산당을 모시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한 부인이 병이 들어 점점 말라갔다. 그 원인은 뱀을 잘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니 뱀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밭일을 나가고 없을 때 남편은 방에 들어온 큰 구렁이를 방망이로 때려 죽인다. 그런데 남편에 잠자고 있는 사이에 큰 구렁이의 냄새를 맡은 다른 뱀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도리깨로 뱀을 죽였다. 남편은 부인이 오기 전에 뱀을 처치하여 구워 먹고 뼈는 물어 버렸다.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없었다. 그런데 무당이 굿을 해보고는 조상이 뱀인데 옥에 갇혀서 못나오고 있으니, 그 토산이 나오도록 해야 마을이 잘된다는 말을 한다. 하는 수 없이 남편은 묻었던 뼈를 몰래 꺼내어 감나무에 매달았다. 그랬더니 죽었던 뱀이 살아나 달아났다. 사람들이 뱀신을 믿는 것은 뱀이 복수할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토산당에 이런 얘기가 있다 허. 저 불어네 미화된 거고. 토산에 그 토산당을 게스므레 아주 막 신봉허주게. 신봉허는디 토산당이라고. 멧때기 모을이랜 현 디가 있어. 토산에. 지형이 멧때기 모을이랜 현 디 토산당을 모셨는디. 그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흐 사람이 그냥 그 어찌 어찌허다가 토산당을 잘 아이 모시니까니 죽게 되어서. 이 사람이 죽게 됐는디. 이거 선뵤 모양이라이. 선뵤디 막 몰라가지고 행 보난. 옛날은 이 폐병을 보고 저 염병. 폐병보고 폐병뵤 죽게 되었던 말이여 이젠. 경허는디 가만히 책을 보고 뵤 허는디. 예펜은 들녁에 가고 예펜은 뱀을 거시지 말라 허매이? 뱀을 거셔난디 뵤이 있다. 팔이 있다 해갓고.

“그 당신은 남편을. 당신 남편이 뱀을 거스려부니까 그렇게 몰랐다. 염병을 몰랐시니까 뱀을 거시지 말라.”

그런 말을 들었다 말이여. 겐디 몰란 그 얼마나 죽게 마련이라 경허는디. 배업이 올래로 그냥 구렁이가 들어와. 큰 구렁이가. 그걸 보니 그것을 고만히 봐둘 수가 없어. 힘이 었어도 그놈을 몽둥이 아정 간 그냥 눅전 죽여버련. 죽영 줌 잇이니 어두어가니까. 고만히. 줌 흐 줌 장 잇이니¹⁵⁰ 또 뵤이 들어오는 거라. 아 늑

젠 행 보니, 아 뱀이 들들 또 들어오지 안허여. 아 이젠 그놈을 이젠 몽둥이로 못
 하고 도끼로 두드려, 이 도끼로, 혼 도끼로 힘이 엇이니까, 그 죽인 걸 영 알아보
 니까 앞이 들어온 뱀이 뭐냐면, 암늬이, 큰 구렁이가 발정을 헨 거라. 게 뒤에는
 그 뱀새 말앙 오는 대로 이젠 죽인 거란 말이여. 응, 그래 죽인 예가 열인지 스물
 인지 모르지. 젠 죽여 노니 이거 예펜 오기 전이 처치해야 될 거 아니라. 여름이
 니까니 툷 여남은 못 해당 나무랑 완 그걸 불붙영 그래 다 놓아서. 아 이거 태와
 간 거의 다 타가는 걸 보니 비실비실허멍 그 지름기 나오고 향이 나와. 아 이젠
 먹지도 못하고 이젠 모두 다 나름이여, 가만히 이젠 불은 꺼지고 이거 하나 먹어
 보카. 아 먹으니 그만이 맛이 좋을 수가 있어? 소금을 아저다 놓고 그놈을 다 들
 러다 먹었다 허여. 다 들러다 먹고 이제 그것은 빼만 행 물어버렸거든. 이젠 물어
 놓고, 그 예펜 오니 일절 이 뱀 혼 마리 잡앙은, 자기가 토산당을, 죽낸 하니까니,
 아니 먹은 채 행 이젠 빼는 물어붙고 허는다. 건강은 헨다 말이여. 혼 해엔 그냥
 나상. 그놈은 이제 잊어버령 내버렸는다. 아이 예펜이 뭐 자꾸 굶을 허여. 무당이
 굶을 허면은 토산 넷때기 모을이랜 헨 디서 굶을 허면은 저 영험이 잇수다(조사자
 에게 영험이 있음을 확인시키며).

“그 조상이 배엄인디, 조상이 이젠 나오질 못험수다.”

경 잘 알드라 이거여.

“어째서 못 나오냐.”

“옥에 가뒤편져서 나오지 못헨덴.”

저 토산이 나오도록 해야 이젠 이 모율이 크게……. 조상이 어디에 있느냐. 무
 당이 그 집이 가보라 허니까,

“아 우리 그런 거 엇수다.”

이젠 거짓말 허당 남편이,

“에잇, 여자로부터니 모든 것이 또 피재가 나겠다.”

너네 서방 먹엇덴. 계난 큰일난다 뭐다 허니까, 솔솔 행 이젠 좋은 빼 드러나니
 까 안 먹엇덴 했지 뭐. 젠 이젠 묻은 건 예펜이 알아시니까 이젠 판보니 빼가 그
 대로 있어요. 이젠 찰리¹⁵¹⁾ 담야다가 어디 아무도 모르게 감낭¹⁵²⁾ 아래다가 돌아

150) 좀 혼좁 장 잇이니 : 잠을 한잠 자고 나니

151) 찰리 : 부대.

152) 감낭 : 감나무.

맹 내붙었젠. 게니 그게 찾아가드라 하여. 경헌디 쫓아가는디 만약에 이놈이 우리 집안에 다시 나타남은 근본엇이 해지쳐불렌 경 약속을 해남. 그 집인 오문 토산당을 믿지도 안허고 다신 또 배척도 안허고. 옛날은 뭐 저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믿었냐 허면 척(153)이 무서와서. 원수를 갚은다는 것은 미신에 철리는 일이다. 척헌다 하여서. 그런 그 뱀도 큰 뱀 두드려 때리부수면은.

“너 척허민 너 큰일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느려왔지. 이것의 유래가 이거라.

20. 췌대거리의 유래

제 보 자 : 허정봉(남·1932년생, 송당리 1516)

조사일자 : 1996년 8월 3일

조사장소 : 송당리 노인회관

요약 : 웃송당 췌대거리는 그 곳에서 광대들이 불을 켜 놓고 놀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붙었다.

웃부락에 췌땃(췌대)거리랜 헌 디, 저 신작로가에 큰 폭낭이 시여이. 그 폭낭으로 호끔 사름 호가위 넘어가문 췌땃거리랜 헌 디라. 그 디가. 세거리. (조사자 : 거긴 무사 췌땃거리랜 허는 거 마씨?) 이게 옛날에 서울 강 베실을 해영 내려 오민 이제 그 디 이제 천막을 쳐놔 이췌말로 천막을 쳐놔 광델 거느려 오란 광대가 그디서 노념놀이 해나부난 췌대 꼽아놔 불 썩 놔 놀이 해나부나네 췌대거리랜 허는 거주. 췌 꼽아놔부난, 불썩는 췌대 꼽아나부난. 경행 췌대거리랜 허는 거주.

21. 혼인 이야기

제 보 자 : 허정봉(남·1932년생, 송당리 1516)

조사일자 : 1996년 8월 3일

153) 척 : 해(害).

조사장소 : 송당리 노인회관

요약 : 송당 고씨 신랑집에서 눈미(와산) 신부를 데려오고자 하니 아래웃댁 양반에게 상객을 부탁했다. 아래웃댁 양반은 모든 준비를 갖추고 신부집으로 가서 납폐상을 받았다. 그런데 원래 납폐는 겉과 안에 모두 도장이 찍혀져 있어야 되는데 겉봉에는 도장이 없고 근배상장에만 도장이 있었다. 상객은 근배상장을 받아들면서도 신부집이 꽤 씩한 생각이 들어 흠잡을 것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비오는 날이라 신부집 하인이 양반들이 신는 굽 높은 나막신을 신은 것을 보게 되었다. 상객은 하인들이 굽 높은 신을 신으면 양반들은 무슨 신을 신고 다니냐면서 호통을 치면서 하인을 메다쳤다. 그러자 신부집에서 그제야 겨우 사죄를 하여 혼례를 치루었다.

눈미라고. (조사자 : 와산?) 응, 와산.¹⁵⁴ 거 눈미보고 와산이랜 현 거. 와산 그디 양반의 집이 있었어요. 게 송당에도 좀 양반가이 있었고 거 눈미 거기는 에 신부집이고 여기는 신랑집이고. 송당 고침에 신랑이 이제 현디 여기 저... 누구 고 보경이 압니까 고보경이. (일동 : 알주!) 보경이 증증가 고조된 분이 아주 양반이면서 학식도 높고 뭐 얘기도 잘하고 이렇게 했던 분. 옛날은 상객을, 이제 상객을 보낼라 그러면은 옛날은 상객 가는 이가 그 흥색구시라고 흥색구시, 참 똑똑한 분 아니면은 흥색구시를 못 갔는디, 눈미 고침에서 혼담을 메겨서 눈미 새각시를 가져오게, 데려오게 되니까 아 고침에서, 그 눈미는 양반가이 집이 아니고 좀 문서가 고진 집안이니까. 해서 흥색구시 상객 갈 사람이 아래웃댁 그 양반을 청해다가, "아 미안하지만 좀 상객을 가다주십사." 허니까,

"어 거 그러자."

게 상객 가는 사람은 그때에 만단준비라. 그래서 요즘말로 만단준비 그때는 출릴 건 다 출령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필먹을 다 이제 저 모음던 보고 가지라고 그래서 다 가졌거든..... 또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그날은 침 봄철이라서 가랑비도 너스너스 오고 마당에 물은 진벽진벽 해고, 이렇게 했는데. 상객은 썩가서 납폐를 썩 이제 들이고 나니까, 아 거기서 이젠 납폐를 이젠 병풍 쳐 놓고

154) 와산 : 복제주군 조친을 와산리.

상방 마루 안에서 이제 납폐상 받는다. 돼야지 머리뺍 올리고, 어 이제 향불 피와 놓고 해서 이제 그 납폐상을 턱 받아서, 이젠 그 집안에 이제 문장되는 어른이나 좀 집안에 높은 사람이 것을 영 납폐를 깨 보게 됐는데, 누구 집 입납(入納) 이렇게 해서 그 영 깨보게 됐는데, 그 척 그 흥세함을 깨고 보니까, 그게 걸봉에 도장 놓는 법이 있고 안에 근배상장이라는 그 도장 놓는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요즘은 실수라고 할까 봐 걸봉 찍고 안에 찍고 이렇게 해서 허니까, 그 뭐 그 땀 걸봉에는 아이 찍고 안네 근배상장에만 도장을 찍어 갔는데, 거기서 폐함을 잡는데 그 납폐우시한테 그 잘못된 그 점을 지적해 가는데, 뭣이라 그러면 "왜 걸의 올은 아이 막고." 이렇게 했거든. 거너 대답하는 얘기가 아라웃덱 그 하르방이 대답하는 얘기가.

"예! 걸의 올은 혼사가 치룬 다음에 머흙 놈 몇 개 보내어서 걸의 올은 막아 드릴 것이고 근배상장에 보십서!"

이렇게 했거든. 아 이젠 게 봉투 깨어보젠, 아 납폐 써는 것은 보니까, 근배상장에는 도장이 찍어졌거든. 그래 이젠 아무 소리 안했 받아드렸는디 그 상객 간 아라웃덱 생각에 괴썸허거든. 잘못된 것이 크게 없는데 상객을 그렇게 폐함을 잡았으니, 잘못을 지적해서 잡았으니 겐 패썸허니깐 상객 방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그 집에 그 신부집에 행동을 영 슬피는 와중에, 그때는 그집에 머슴이나 신발을 신은 사람이 조금 양반가이 집이기 때문에, 예 굽 높은 신이라는 것은 나막신을 못 신 영 다녔거든. 젖어도 짚신에 그자 막 빌착빌착 대었지 그 양반덜이 앉은 앞에서 굽높은 신이라고 해서 나막신을 못 신었거든. 그랬으니 가만 서 보니까니, 아 그 집의 머슴놈이 비오란 영 빌착빌착 허고 허니까니, 남신을 신언 막 돌아다니거든 허니, 자기가 데령간 아라웃덱이 데령간 그 하인 보고.

"거 누가 그디 있는가?" 영허니

"옛!"

허멍 들어오거든.

"저 놈 잡아 올리라."고.

"옛!"

허면서 저 남산 신영 댕기는 놈, 신언 다니는 놈 하인 놈을, 그 집의 하인 놈을 심영 둘러매당 그 질퍽질퍽 현 디 착 메다치거든.

"잡아눅혔소."

松堂里 學術調查報告

“그 놈 곤장 치라.”고.

“나쁜 놈 해가지고 말이지? 지네가 굽 높은 신 신으면은 우리네는 무슨 신을 신
영 땡기느냐?”고.

하이고 경 그 질퍽질퍽 헛 디, 그 집의 하인을 심영 마당더레 잡아 쳐 노니까
니, 하이고 거 신부침에서는 큰일 난리가 났거든.

“하이고 잘못했다.”고.

막 스정해서, 아 이제 아라웃댁한테 완 스정해서.

“하이고, 폐힘 있더라도 이제 용서해 주십사.”고.

해서 그자 사정해서, 그 날 혼사가 무사히 치뤄져 났다고 하여.



제보자 허장봉



제보자 고어봉

信 仰

— 목 차 —

- I. 개 관
- II. 공인종교
- III. 마을신앙
- IV. 개인신앙

I. 개 관

송당리에는 제주도에 있는 모든 당의 원조격인 금백조 할망당이 있다. 당에 대한 억압으로 그 세력이 많이 쇠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금백조 할망당은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라 할 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에서 치러지는 행사도 성대하게 벌어진다. 이 외에도 개인적 비념이 주로 이뤄지는 산신당과 일뿔당이 있는데, 이 역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공인종교로 장로교와 불교가 있지만 신도가 많지는 않다. 특히 교회는 주민들의 냉대로 포교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단한 노력으로 간간히 신앙민들을 확보하고 있다. 불교의 경우는 송림사라는 절이 있고 신도들도 비교적 많이 다니고 있어 송당의 중심 종교라 할 만하다. 하지만 절에 다닌다 할지라도 당에 대한 믿음이 강해 당의례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마을제로 儒式 포제를 윗송당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과 크게 차이를 보이는 바는 없었다. 그러나 마을제를 지내려 해도 참여하는 제관이 모자라 2년전 부터는 그만두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노인층이 많고 젊은이는 離村하거나 직장생활 때문에 정해진 날에 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송당리의 신앙을 살펴 보고자 한다.

II. 공인종교

1. 송당교회

- 1) 명칭 : 대한예수교 장로회 송당교회
- 2) 연혁 : 1974년 6월 30일 신축하였으며, 1992년 서울에서 조남회 목사(8대)가 부임했다.
- 3) 대표자 : 조남회 목사
- 4) 시설 : 본당(예배실), 교육실, 사택
- 5) 신도 : 유치동부 19명, 중고동부 6명, 어른-38명, 모두 63명이다. 연령층을 살펴보면 초·중등 학생과 50~70대 노인이 대부분으로 청장년층(30~40대)은 거의 없다.
- 6) 운영 : 송당교회는 非自立교회여서 영락교회, 위미교회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조남회 목사가 전에 시무하던 교회(서울)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다.
- 7) 선교 활동과 주민들과의 관계 : 송당리에는 무속신앙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그리 활발하게 전도되고 있지는 않다. 주민들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의료 선교 활동을 벌였고, 경로 잔치와 바자회 등을 통해 차차 신도를 늘려갔다.
- 8) 예배 : 다른 교회와 동일
- 9) 유래 : 독실한 신자였던 네 가정이 육지에서 굴 농사를 짓기 위해 내려와 밭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올린 것이 교회의 시작이다.

2. 송림사

- 1) 명칭 : 태고종 송림사
- 2) 연혁 : 1971년 현재 위치로 옮겨 왔는데 그전의 위치는 불확실하다고 한다(웃송당쪽으로 추측). 대웅전이 지금의 종각터에 돌집형태로 지어져 있었는데 신도들이 돈을 모아서 1990년에 현 법당을 신축했다.
- 3) 대표자(큰스님) : 수삼스님
- 4) 건물 : 대웅전, 종각, 스님 거처

5) 신도 : 약 1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 송당주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제주시, 조천에서 오는 이들도 있다.

6) 위치 : 송당초등학교에서 알송당 쪽으로 약 400m 떨어진 곳



송림사

7) 특징

- (1) 신도가 아닌 사람들도 49제를 부탁하기도 한다.
 - (2) 신도의 대부분이 본향당에도 다닌다.
 - (3) 주류를 금한다. (대신 음료수 사용)
- 8) 행사 : 다른 절과 동일

Ⅲ. 마을 신앙

1. 포제

- 1) 祭名 : 醮祭
- 2) 祭神 : 醮神, 土神
- 3) 祭日 : 정월 丁日 또는 亥日 중 택일
- 4) 祭費 : 예전에는 공동개간 하여 얻은 땅에서 메밀을 경작하고 얻은 수익으로 충당했는데, 수년 전부터 각 가호로부터 제향비를 걷고 있다.

5) 儀式 節次 및 方法

- (1) 연말에 마을 회계를 정산하는 자리에서 제관을 뽑고 祭日, 祭廳을 정한다.
- (2) 제관선출 방법 : 연령순으로 뽑는다.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典祀官, 執禮, 大祝, 謁者, 奉香, 奉爐, 司樽, 奉酌, 典酌, 贊者, 都豫差

(3) 齋戒

- ① 祭廳은 제관들 집을 번갈아가며 정한다.
- ② 뽑힌 제관들은 제청에 들어가 3일 동안 정성을 한다.
- ③ 마을 입구에 금줄을 쳐서 부정한 것을 막는다.
- ④ 뱀, 동물 시체, 사람의 영장을 보면 안된다.
- ⑤ 개고기나 말고기 음식을 금한다.
- ⑥ 부부의 동침을 금한다.

(4) 祭次

- ① 제사 준비 : 저녁 식사 후 향물로 목욕을 하고 하집사들이 제장에 먼저 가서 제물을 진설한 후 제단을 지키고 나머지는 뒤따라 간다.
- ② 笏記 : 흥기란 제를 지내는 절차와 각 제관들의 행동 등 제의 방법을 기록한 문서이다.

謁者引祝及諸執入就拜位四拜祝以下皆四拜鞠躬拜興平身引詣盥洗位謁者引獻官以下入就拜位四拜獻官以下皆四拜鞠躬拜興平身謁者進初獻官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行奠幣禮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西向立搢笏盥手執笏引詣土神神位前北向立跪搢笏三上香獻幣執笏俯伏興平身次詣酬神神位前北向立跪搢笏三上香獻幣執笏俯伏興平身引降復位四拜獻官及在位者皆四拜鞠躬拜興平身行初獻官禮謁者引初獻官引詣樽所西向立執樽者攀四幕酌酒引詣土神神位前北向立跪搢笏酌執笏俯伏興平身退跪搢笏獻祝讀祝執笏俯伏興平身次詣酬神神位前北向立跪搢笏酌執笏俯伏興平身退跪搢笏獻祝讀祝執笏俯伏興平身引降伏位行亞獻官禮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西向立搢笏盥手執笏引詣樽所西向立執樽者酌酒引詣土神神位前北向立跪搢笏酌執笏俯伏興平身次詣酬神神位前北向立跪搢笏酌執笏俯伏興平身位降伏位行終獻官禮謁者終獻官詣盥洗位西向立搢笏盥手執笏引詣樽所西向立執樽者酌酒引詣土神神位前北向立前北向立跪搢笏酌執笏俯伏興平身次詣酬神神位前北向立跪搢笏酌執笏俯伏興平身引降伏位四拜獻官及在位者皆四拜鞠躬拜興平身行撤盞豈四拜獻官及在位者皆四拜鞠躬拜興平身飲福受俎謁者引初獻官詣飲福位西向立跪搢笏執事者以酌授獻官受酌飲卒酌以授執事者執事者受虛酌執事者以俎授獻官獻官受俎飲服以授執事者執事者受虛俎執笏俯伏興平身引降復位行望燎位謁者引初獻官詣望燎位西向立祝焚灼燎興平身謁者引初獻官之左白禮華出獻官以下次出謁者引祝及

諸執事俱復拜位四拜祝以下皆四拜鞠躬拜興平身祝以下次出

③ 祝文

土地之神 伏以令當 歲新隨時則告 念在此境 伏唯至靈 哀令蠢俗 家庸萬康 人亨而福 五穀豐登 六畜蕃盛 樂歌擊壤 民受其賜 敢薦菲薄 至誠伏祝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牲幣 豐劑梁盛 庶品式陳 明 薦千神 尚饗

維歲次丁卯

敢昭告于

醑神伏以 於赫明神 司我疆域 保之在上 盛矣其德 民受其賜 匪令明自昔 伏唯至靈 哀命蠢俗 家庸萬康 人亨百福 受登禾麥 乃蕃蠶角 魑魅魍魎 驅諸嶽瀆 螟虫登 蠹虫貳 屏卑火烈 茲值新正 敢薦菲薄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牲幣 豐齊梁盛 庶品式陳 明~ 薦于 神 尚饗

(5) 祭器 : 제관들 집에 있는 것을 모아서 사용한다.

(6) 祭服 : 행제시에는 파란 물을 들인 도포를 입었었는데 요즘은 검은 두루마기를 입는다.

(7) 祭物

① 穀類 : 대메(흰쌀), 기장, 피, 조, 대추¹⁾

※ 기장이 없을 때는 기장 대신 대메를 하나 더 올린다.

② 犧牲

· 醑神에게는 소를, 土神에게는 돼지를 올린다. 이것들은 털을 제거하고 내장만 깨끗이 뺀 채로 올려진다. 현재는 소, 돼지 대신에 돼지와 닭을 올린다.

· 희생의 머리는 한라산을 향하게 놓는다.

· 土神의 제물은 醑神과 같다

③ 果類(5實果) : 당유자, 대추, 밤, 비자, 꽃감

④ 菜蔬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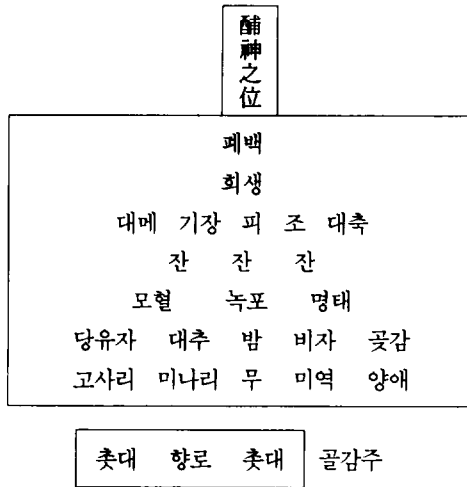
· 3탕 : 고사리, 미나리, 무

5탕 : 고사리, 미나리, 무, 미역, 양애

· 익히지 않고 소금에 절이기만 한다.

1) 수수를 말함.

- ⑤ 魚類 : 명태
- ⑥ 鹿脯 : 녹포는 원래 사슴고기 말린 것을 말하지만 이 곳에서는 쇠고기로 대신한다.
- ⑦ 祭酒 : 골감주
- ⑧ 幣帛 : 희생 위에 네 개의 발을 단 차룽(대로 만든 소쿠리)을 올려 놓고 그 속에 배 1필씩 올린다.
- ⑨ 毛血 : 희생의 털, 내장, 피를 그릇에 모아 희생의 머리와 같은 방향으로 올린다.
- ⑩ 祭物 陳設圖 : 土神을 위한 床도 醮神床 옆에 나란히 진설한다. 제물 진설도는 아래와 같다.



6) 포제단의 위치 : 제단이 따로 없고 적당한 터를 마련해 제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4·3 사건 끝난 후 대천리로 가는 포장도로 안(송당머리)에서 제를 지내다가 전기 사용이 불편해서 김영근 씨 집 뒤에 있는 밭(안골)으로 옮겼으나, 소를 풀어 놓는 바람에 주위가 청결하지 못해 당오름 근처 밭(앞동네)으로 다시 옮겨서 4년간 제를 지내왔다. 북서풍을 막을 수 있는 곳에 천막을 치고, 책력에 나온 방향을 찾아 막힌 방위를 피하여 상을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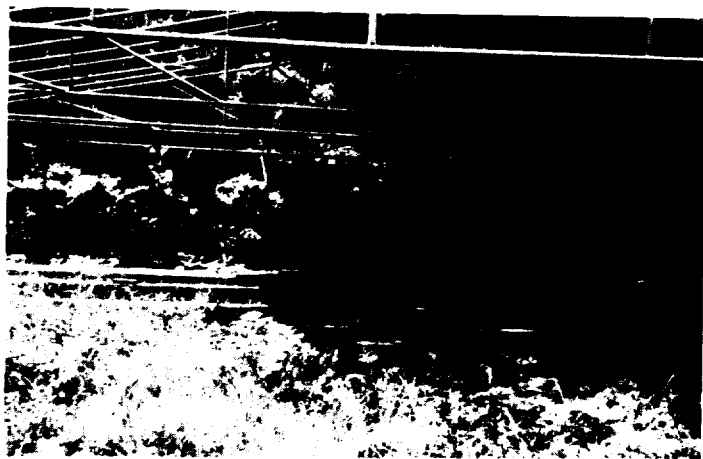
7) 飲福 : 제가 끝나면 제청으로 내려와서 회생을 삶고 날이 밝으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 나눈다.

2. 송당 본향당

- 1) 名稱 : 송당 본향당
- 2) 祭神 : 金白祖 할망
- 3) 祭日 : 음력 1월 13일(신과세제), 2월 13일(손맛이제), 7월 13일(마불림제), 10월 13일(만곡제)

- (1) 新過歲祭 : 이 마을의 제반사를 관장하고 있는 본향신이기에 올려지는 新年祭로 年中 4회의 당제 중 그 규모가 제일 큰 것이다. 이 날에는 신앙민들마다 제물을 준비하고 본향당으로 모여 매향 심방을 청하여 마을의 안녕과 생업의 풍요를 기원한다. 이때 객지나 일본 등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귀향시에 옷 등을 마련하여 간다고 한다.
- (2) 손맛이제 : 이 마을은 中山村인 만큼 海村에서 벌이는 영등굿이 대규모인 것과는 달리 소규모로 이루어진다.
- (3) 마불림제 : 이 날은 堂神에게 바쳐진 옷따위를 당집 밖으로 내걸어 놓고 그 神衣의 마를 제거한다.
- (4) 萬穀祭 : 곡식을 거둬들이고 난 뒤 새 쌀로 제물을 만들어 감사의 뜻을 표한다.
- 4) 主管 : 송당리 조합장과 이장, 상단골인 광산 김씨가 주축이 된다.
- 5) 祭場 : 당오름
- 6) 당 형태 : 사진 참조
- 7) 祭物
 - (1) 메 : 한 그릇
 - (2) 생선 : 구운 것
 - (3) 떡 : 백돌레(또는 백시리)
 - (4) 삶은 계란
 - (5) 다섯 가지 實果

(6) 그외 여유있는 자 : 치마, 저고리, 가락지, 비녀, 옷감 등



송당본향당

- 8) 祭儀執行者 : 매인 심방이 없어 제주시에서 심방을 모셔온다.
- 9) 심방 계보 : ... —고괘주—고봉선—고대중—박인주—문성남—문성남 처(현재)
- 10) 본풀이

소천국하고 백주님이 부부간이 되어, 살림살이 호고, 아덜은 열으뜸, 딸은 썬물으뜸, 육은 애긴 밥을 줌서, 비새굴이 울고, 두린 애긴 좃을 줌서 비새굴이 울어. “농스가 천 하대본이니 농스를 호자.”고 유부니 굴왓 가서 밧을 갈더니, 전관도서가 넘어가다가 밧 가는 인간을 보니 “보통 인민이 아니더라”. “밧가는 분네 지창호니 요기나 좀 주옵소서.” “머들밀디 정심 있으니 제반 삼술이나 견영 가읍소서.” 전관도서가 머들밀디 가고 보니 정심진지 이서지니 내어놓고 먹는 것이 다 먹고 지나가부니 정심이 때 되여서 머들밀디 가서 정심을 츠차보니 정심을 다 먹언 가부니, 홀 수 읍이 농애를 뜨리고, 뱃겨서 우밧불을 처질러서 지더서 익어시냐 혼다리, 설어시냐 혼다리, 먹는 것이 쇠 혼마리를 다 먹되, 먹은 것 곶으지 아녀니, 어욱 돌은 못디 보니, 남의 농애 이서지니 심어다가 남의 농애까지 뱃겨 먹어서. 양존머리를 뱃대기에 대여서 동서레레 밧을 갈암더니, 백주님이 남편네 밧가는 디 가 보자고, 오고 보니, 농애는 아니매우고 뱃대기에 양존머리를 대고 밧을 갈암시니, “농애는 어디다 두고 쟁기로만 밧을 갈니까?” “넘어가는 전관도서가 정심은 먹언 가부니, 배고파서 밧을 갈 수가 없어서, 농애를 뜨려 먹고 밧을 가노라.” 하니 어욱머들 밀디레 바려보니, 머리도 두장이요 가죽도 두장이 이서지니 “어찌해야 머리와 가죽은 두장이 됩니까?” 하니 소천국이 대답호되 “이녁 농애만 먹으니 안기슴도 아니 잔지라서, 어욱 돌은 못디 굶어보니, 남의 농애까지 뜨려 먹었노

라.” 백주님이 말씀하시되 “내 농애 내가 따려 먹기는 정호 스님이전만, 남의 농애까지 따려 먹어시니, 뭇 도둑놈 아니냐, 쇠 도둑놈 아니냐?” 서로 빗내하시되 “너는 당창쟁이 아니냐, 비리쟁이 아니냐?” 부부간이 싸움하여, 사념을 분산하고, 백주님은 손당머리 좌정하고, 소천국은 일손당 고부니를 좌정해야 사움데다. 큰아들은 거밀 문국성, 들찾아들은 대정 광정당, 식찾아들은 정이 시선당, 낫찾아들은 성안 내앗당, 다섯째는 갯머리 명동소천국, 여섯째는 드리 교련앞, 일곱째는 정이 토산, 여덟째는 짐녕 괴노기²⁾

11) 儀式 節次

새벽부터 제를 시작하여 산점까지 치면 저녁을 넘긴다고 한다.

12) 당의 특징

- (1) 췌가 둘이다(당이 커서 왼쪽, 오른쪽 두 개의 췌를 묻는다.).
- (2) 정기적인 네 번의 제 이외엔 개인적인 비념을 할 수 없다(임시제가 없다).
- (3) 남녀노소 모두 출입

13) 금기 : 3일 전부터 정성을 들이고, 고기를 먹어서는 안되며 부부간의 잠자리도 피한다.

14) 信仰民(단골) : 상중하로 신자의 계층을 나눈다. 예전에는 상단골이라야 제단의 가장 위에 제물을 올려 놓을 수 있고, 중단골은 그 아래, 하단골은 가장 밑에 제물을 올렸다. 또 상단골이 가장 앞에 앉을 수 있으며, 그 뒤에 중단골이 앉으며, 하단골은 가장 뒤에 앉았다. 그러나 현재는 구분없이 제를 지낸다. 송당의 상단골은 웃송당의 광산김씨였고, 중단골과 하단골도 구분은 되어 있었지만, 확실히 아는 이가 없었다.

3. 산신당

- 1) 名稱 : 산신당(사라홀당)
- 2) 祭神 : 삼신선백관(한라산신)
- 3) 祭日 : 6월 7일, 6월 17일, 11월 7일, 11월 17일

원래 여드렛날 다녔었는데 고봉선씨가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일렛당과 같이 제를 지내기 시작했다.

2) 구좌면 세화리 남무 고대중 구송본.
진성기, 『南國의 巫歌』(제주 : 제주도민속문화연구소), pp. 504~506 재인용.

4) 祭場(위치) : 채오름 앞(덕천과 송당 중간 지점)

5) 당 형태 :



산신당

- 14군데(총 세웠던 곳, 개 누웠던 곳 등) 케를 묻었었다.
- 댕돌 밑은 송씨 하르방이 얻어 먹고 폭낭 밑은 송씨 하르방 누이가 얻어 먹는다.

6) 祭物 : 메 3, 떡, 제숙, 계란, 육고기, 생선

7) 祭儀 執行者 : 굿은 하지 않고 무당없이 개인적인 비님을 한다.

8) 본풀이

매인 심방이 없고 이제는 과거에 칭했던 송당 본풀이를 완전히 아는 심방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송당에 거주하는 단골이 구연한 본풀이의 내용을 수록한다.

송씨 하르방은 본류가 어디서 왔는고 허니까니 이제 저 울탄금서, 이제 이 웃송당 광산 김침이 사월 들었거든. 웃송당 광산김침 그 부제침이 사월드난 몰두 백수, 췌도 백수, 천수 허는 하르방 사월 드난,

“장남 들꺼 엿수다. 나가 이 드름 사위로 이제 췌마시 ㄱ꾸쿰덴.”

허난, 이물 우영이엔 혼 거 물러췌주게. 이물 우영에 이름난 집터를, 집짓언 물려주난, 그두 두 부부간이 살아도 얘기가 윈 엿어. 얘기가 윈 엿이나네 그자 하르방은 혼 손에, 개도 아이 돌고 총도 아니 심고 해도, 노는 핏도 심어당 먹고, 노는 사심도 심어당 먹고, 노는 누루도 심어당 먹고 허난. 그 하르방은 웃한칠 송췌디. 얘기가 엿이난, 누제가 물 혼 적 해줄 사름이 엿이난, 그 하르방이 누는 핏 심영 먹기, 누는 노리3) 심영 먹기,

영 허난 할로 영산 영기가, 그 오백장군 영기가,

“너 이제야 산짐승 다 잡아 먹는, 딱딱 엇이 다 잡아먹는 놈을 심어오랜.”

삼신선을 내려 보냈어. 내려 보내니까, 내려 오란 다리 아래 앉안 바둑을 두노랜 허난, 저 송씨 하르방이 노리 다올려아전 돌려들단 보난, 정수못이엔 흐 못이 시난, 그 못에서 뜰이 나난 세수 흐름으로 이젠 대가리에 물 지천 나간 보난 튀는 노린 어디 간디 사 몰르난 혼디, 그 삼신선이 노는 디 그디 튀어드난 끝안 맞아비면 그 노릴. 겨난 그 디가 산신당이 된 거라.

게난 산신 거느린 후젠, 그 송씨 하르방도 산신 부름씨⁴⁾로 하시니까니, 송씨하르방도 굴이 얻어 먹음센 매 흐 기를 따루 행 강 그 제단 앞이, 하르방 받아난 걸 따시 철 변행 흐는 거주. <조사자: 그러면 산신 바둑 두는데 송씨가 간 거군요> 아니라. 삼신선이 느려오라, 서이⁵⁾ 앉안 이렇게 바둑을 두는디, 느리가 돌려드난 톱 끝아맞아분 거주게. 경허연,

“우리에게 치성하기 전인 노리 간 디 안 굴아주켄.”

허난, 그제사 밥해연 가고 흐는 법을 그 하르방이 모녀⁶⁾ 뵈주게. 경허난 송씨 하르방을 안 거느릴 수가 서⁷⁾ 힘도 세여나신⁷⁾라, 큰 댓돌 현연 제단 만들안. 게난, 이젠 송씨 하르방, 송씨할망도 ‘기회가 되난 얻어먹게 되었수엔’ 허연, ‘음센’ 허연 그디서 철변해여 놓는 거라. 저 상(床)맡은 돌을 해단, 네 귀 바투와네⁸⁾ <조사자: 그 송씨 할망, 하르방이 실제 있던 사람인가마썬?> 응, 아명해도 장군이란 모냥이라.

게난 그 폭낭 어염엔⁹⁾

“아이구 그 오누이가 이디 오랑 살았자 얘기가 엇이난에, 오라바님은 얘기가 엇어도 사람씨가 없도록 얻어먹으카 몰라. 아니홀 일을 설립허난 얻어먹으카 몰라. 난 어평 얻어먹코”

영 허나네,

“거 흐 좌석에 맞아난 밋인디, 나만 먹음 살아지느냐. 늘랑 요 폭낭 아래 오랑 얘기 그늘랑 얻어먹으랜.”

게난, 얘기 엇는 사름은 그디 강 빌른 얘기 낭곡, 얘기 못 질루는 사름도 그디 강 비넘허민 얘기 잘 키와주곡 허난, 이젠 온 모실이 다 가. <조사자: 게난 산신당은 삼신을 모시는 데고, 일뿔당은 송씨할아버지 하고 송씨 할머니를 모시는 데입니까.> 아니, 산신당 옆에 다 있어. <조사자: 일뿔당은 토단한집인데 송씨할아버지 누이가 여기 와서 빌런 아이도 잘 되게 하여 주는 거죠.> 응, 이력¹⁰⁾ 아니 되어그네 무시걸 해도 이력 아니되는 사름도 아무도 몰르게 그디 가그네 치성허민 사업을 해도 잘 되고, 경허난

-
- 3) 노루.
 - 4) 심부름.
 - 5) 셋이서.
 - 6) 먼저.
 - 7) 있어?
 - 8) 돌로 네 귀를 받쳐서.
 - 9) 곁에는.
 - 10) 사람이 하는 모든 일.

이젠 전체 강산이 다 빌래 가. <조사자: 누이는 토산한집엘 가서 빌었고, 오라방은 산 신한테 빌었고 하던 것이 처음 송세할아버지를 모시게 된 시초이다. 이거죠> 응. <조사자: 이것이 본풀이입니까?> 응, 그것이 본풀이 내용이주.

내려 보내난 안사라 알레 벳이 딱딱하고 그자 사름이 앓앙 놀만헌 디난 그디 좌정 행 앓안 바둑을 뒹주게. 그 하르방이게 저 웃목장에서 무신 비김인가 어디서 므시 다 울령 오랑 느려움 느려움 허는 게, 심어점직 심어점직 허멍 그 놈의 느리가 이젠 압느 리 새끼 봉그랑케 밴 거. 심어점직 심어점직 허멍 느시 못심으난, 이젠 이 므시 저 므시 다울령 다울령 헌 게, 웃돌림을 넘어상 안돌림을 오난 느리가 무산디¹¹⁾ 뻥허게 혼 번 감장을 도난 심지 못허난, 이젠 정수뭇더레 터전. 정수뭇더레 터지난 정수뭇에 오랑 물을 당허난 뭍은 찰찰허고 노린 심지 못허고 허난 애 뇨이나 씻엉 가켄. 뇨이나 씻어 내 나산 보난 느린 어디 간 츠렐 모르주게. 거난 신선이 그디 앓아들서로 보난 느리가 막 탁 지천 새 내영¹²⁾ 할할 허멍 느려웁시난 폭허게 귀아직 심어 폭허게 곱전 세 사름 트멍에 곱전 앓아부난에 그 사름은 몰란에. “저 말 몰릴 동산에 가민 덕헌 안엔 나 눈에 보일테주” 그 말몰리 동산 더레 치전당 허난 이디 괜팬헌 디 딱딱헌 잔디밭¹³⁾ 삼신 선이 앓앙 바둑을 뒹시난. “일로 흑이나 넘어가는 거 봐잡디가” 허난 “웁다 오늘은 범인을 심어오랜 허젠 허난 잘 됐다고, 어떤 일로 느릴 봐잡디겐 허느냐” 허난 “심어먹젠 마썸” “이녀석 이제도록 허락엇이 잡아먹어시니까니 오닐은 발을 주나 상을 주나 해사켄” 허난 이젠 집이 뚝 할할할 내명 집이 돌아오란 이젠 그때 밀주 헐 때난. 이제 밀 줄 챗숯 아저내, 고소리 때어내, 술을 때어내고, 주실 영 굶어뒤네 숯은 씻어시난 들어오멍 “저 나가 급허니까니 아니 먹어난 술에 쌀로 밥 혼 개 산메 쳐 드랜” 허난 “매게, 이게 어평헌 일이파. 전이도 산토엇이 점심은 집이만 오랑은 난 딱 바빻허는디” “아이 바쁘건 나가 더 바빠. 나가 더 바쁘난 제기 빨리 허랜.” 이젠 어디 아니 먹어난 쌀로 거려당 그 하르방 먹는 툴리에 산메 청 내노난 하르방은 2만히 생각행 보난 해영갈 건 없고, 시구시서 때어는 술을 혼 팽 들여놓고 이젠 독을 깨와내¹⁴⁾ 마제 연 게 보글 보글허게 하 먹음만씩 헌 거난 그거 잡안 제속으로 회성해 놓고, 돌레 메영 땡겨난 밥 차롱 큰 것더레 그것덜 들여놓고 좋은 행주 행 더끄고 사름이 셋이난 숟가락 셋 놓고, 잔 셋 놓고, 술 놓고 그 연개¹⁵⁾ 회성해 놓고 행 두러매아정¹⁶⁾ 강 영 세 사름 앓더래 영 노난 혼 어른이 “거 보라고 어떻게 치성을 행 오랴느냐” 영 허난 혼 어른 허는 말이 “그만 허민 그자 정성이 혼 엇입니까 그만 허민 돼수다.” 영허난 “이건 내어줘 불라고” 영허난 느린 귀 심영 께 테끼난 끝안 앓아부난 발은 툽툽 자리¹⁶⁾ 눈만 펄롱펄롱 딱 심어다와내 이젠 전 포시¹⁷⁾도 오라 후포시도 오라 경현 이제 이놈을 잡아와내 산신

11) 왜일인지

12) 혀를 내어

13) 닭, 곧 병아리를 가사

14) 연한 닭

15) 둘러 메어서

16) 발이 저리니

17) 포수

앞더래 올려놔주. 경 허는디 이 하르방이 이젠 “아이구 이젠 신력이 이신디나네 나는 사농만 행 먹을거난 나만 허질 안허고 너네덜투 포시덜 메아정, 너네도 느리 잡으래 갈 때랑 출렁 오거라.” 그 하르방이 먼저 법을 내왔젠 허여.¹⁸⁾

9) 신앙민 : 처음에는 테우리(마소 돌보는 사람), 사냥하는 사람들이 주로 다녔다. 이 곳에서 잃어버린 가축의 행방을 묻거나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면 곧바로 효험이 나타났다고 한다. 지금도 그 효험을 믿고 일반인들이 많이 찾아간다.

4. 일렛당

- 1) 名稱 : 일렛당
- 2) 祭神 : 태정님, 태정님 처
- 3) 祭日 : 산신당과 동일
- 4) 祭場(위치) : 산신당에서 서쪽으로 13m 가량 떨어져 있는 참나무 앞
- 5) 당 형태 : 참나무에 지전, 천들이 묶여 있다.



일렛당

6) 祭物 : 메 2, 떡, 제숙, 계란(간 것), 익힌 제물, 삼색물색, 집에 뱀을 막기 위해 날계란을 갖다 놓기도 한다.

18) 고갑쟁(여·83세), 8월 3일 조사

7) 祭儀執行者 : 외지 심방(세화리 거주)

8) 본풀이

백조 할망이 일곱번차 아덜 설¹⁹⁾ 때,

“아이고 이 어른아 영 놀앙 살아집니까? 역은²⁰⁾ 애긴 밥도라, 두린²¹⁾ 애긴 젓도라 허난 이 애기덜 맥영 살리겐 허민 천하지대보(天下之大寶)가 농서난 읍써 밧 갈앙 놉 광 고찌 농서 행 먹엉 살게.”

허난, 하르방 밧 갈래 유봉이 굴왓 노내난 쇠 밧겨 먹어부난 두 부체²²⁾가 갈라진거라. 경해영 선²³⁾ 애기가 나신디, 가는 디마다 이 놉도 툽 쥐어박으멍,

“에이 쯤석²⁴⁾, 애비 없는 놉의 새끼.”

저 놉도 툽 쥐어박으멍,

“에이, 이 애비없는 놉.”

어느 흐루는 팽팽 울멍 허는 말이,

“우리 아방을 좇아 쥐어지 난 애비없는 호로새끼, 호로새끼 허난 서당에 못 땡기쿠다.”

경허난 할망 허는 말이,

“느네 아방 죽지 안행 살았져.”

“개민 살아시민 어디 강 뵈네겐.”

하도 앙탈해 노난, 할망은 이젠 아길 업어아정 저 해남बाट레 가다내, 저 돌르미 큰 오름, 동새 오름이엔 현 오름 우에 강 애기랑 부렁 그 돌름 오름 알려래 내려와 보내멍,

“이 므를 넘어상 저 므를 강, 또 저 므를 넘어사민 해남밧친밧이라고 남만²⁵⁾ 칭칭 현 디 내 팡팡 나는 디만 좇앙 가렌, 느네 아방 사는 디렌.”

이젠 내 팡팡 나는 디 좇앙 가난. 아방이 보난 하도 아까왕. 아이가 손을 요렇게 올려내(제보자가 자신의 얼굴에 손을 대어 수염을 쓰는 시늉을 하며)양겡 썰어²⁶⁾ 보겐 흐는디, 새끼 손꼬락 굵에 수염이 못있던²⁷⁾ ㄱ라 수염을 그만 매여부난,

“요놈의 씬에 난 놉의 새끼. 설 때도 실질흔 놉의 새긴데, 삼각수 매는 건 죄 아니냐? 요녀석 허는 거 보니까니 지에미 젓 먹으멍 젓가심도 두드린 녀석이라고”

경헨 멀쩡헌 거 죄 맨들어²⁸⁾. 담배통은 봐지난 생견 아니봐난 거난 아인 방둥이로 독독 두드러난 담배통 대맹이가 툽 털어져비언.

“지 애비 담배통 거꺼분²⁹⁾ 놉의 새끼.”

19) ‘임신하다’를 아이를 ‘설다’고 표현하는 제주 방언.

20) 나이가 들어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판단할 수 있을 때를 말함.

21)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때.

22) 두 부부가

23) 임신했던.

24) 찌석

25) 나무만.

26) 양재는 양지, 곧 얼굴. 썰어는 ‘썰다’의 방언

27) 매듭져 걸려 있음을 말함

28) 안고 있던 아이를 내려 놓고 호통침.

경허난 무쇠설각 출려내 이젠 죽으랜 바당에 띄와 부난, 바당에 간 물 아래도 삼년 물우의도 삼년 허므로 귀신이난 살았주 생인이사. 경허난 이젠 무나못상가지에³⁰⁾ 걸어진, 밤이는 통소 소리가 하늘에 계속해 들고 낮의는 풍악부는 소리가 귀가 쟁쟁. 용왕 황제가,

“이놈의 새끼가, 어떤 놈의 새끼가 오란 저영³¹⁾ 험싱고 느 큰넌아 나강 보라”

“아무것도 엇우다. 무남만 잇주 아무것도 엇우다.”

“셋넌아 나강 보라.”

“아무것도 엇우다.”

이제 죽은넌이 나강 보렌 허난 죽은 넌 허는 말은,

“아버지, 필이곡절(必有曲節)헌 일이 이시쿠다.”

“무사?”

“저 성님네는 낭가지로 막아정 못받디사 몰라도 네귀 방장헌 무나못 낭가지에다가 무쇠설각이 걸어져수다.”

“개민 큰넌 불러오라.”

이젠 큰넌 불러 오난, 강 노려 오랜.

“난 바래도 못헌 걸 노려집네까?”

경헨 오물래끼 벗영 나가불언. 이젠 따시 셋넌대래 노려오랜 허난,

“나도 본 적 어시난 본 사름?라 노려오랜 협씨. 난 못 느려오쿠렴.”

허난, 그젠 이제 죽은 넌이 가네 무남굽을 독독 두드리명,

“구신이건 옥황으로 올라가야 구신축에 갈거고, 생인이건 이제 인간사는 덜 내려오고, 인간사는 디가 아니면 나한티 온 물건이건 내려오라고”

낭 굽을 두드리난 지냥으로 덩그랑케 털어져. 알러래 털어지난 이젠 치마거들덕에 언주아당³²⁾ 이젠 마당에 놔 놔네 큰 성고라 열아보랜. 흐 귀도 돌삭 못허고 셋성?라 열아보랜 해도, 흐 귀도 돌삭 못허고 죽은 넌이 널로 얻은 시름이니까 너 봉가다 봐시난 너냥으로 열았던지 말았던지 허랜 성젠 경행 피해분 거 아니. 암만 돌아댕기명, 뱅 뱅 돌아댕기명 봐도, 요놈의 통쇠를 하나만 증가시문 허지마는 두 개 증가시난 이거 필새 부모 눈에 죽으랜 대껴분거 아닌가 생각을 헨, 체일 큰 통쇠로 외우 돌아오단 보난 큰 통쇄가 증가져시난 그자 왼쪽발로 차기로 불이 번쩍 나명 지냥으로 열아견. 이젠 노다³³⁾ 중근 통쇄 이젠 노다 돌아사명 노단 발로 차난 지냥으로 열아져. 열아정 보난 그디 눈이 큰 계란만호고 키가 팔척은 된 놈이 얼굴은 관옥이고 인물은 충성될 놈이 그디 앉아서. 아이고 이거 이상허덴.

“아버지 아버지, 이거 뵈서. 사름이 들어왔어수다”

허난 큰 똥 방으로 가랜 허난 고겔 딱 숙여. 셋똥 방으로 가랜 해도 고겔 딱 숙여. 죽은 똥 방에 가랜 허난 서론 여섯 잇빠디³⁴⁾가 허우땡씩허게 웃어. 웃으난,

29) 꺾어 버린

30) 무나무 상가지를 말함

31) 저렇게

32) 치마 속에 모아 넣어

33) '노다'는 오른쪽을 말함

“이젠 널로 얻은 시름이난 너 방으로 돌아가야 허켜.”

“아이고 무시걸 맥영 살림네까?” 허난.

“아따, 나 돌 걱정 말라. 내 용왕 황제국 집을 앓고 요사름 하나 못맥이지 안헌다.”

호고 소창고 열셀 주어. 열셀 주난 처음엔 동창고에 문 열앙 혼 사흘 먹으난 매기. 서창고에 문열안 혼 사흘 먹으난 매기. 이젠, 남창을 열앙 허난 혼 이를 먹으난 매기. 북창을 여난 호루 낮천 먹으난 매기. 아이고 큰일 낫저. 이젠 용왕황제국은 널로 얻은 시름이난 혼 설적 입던 옷, 두 설적 입던 옷, 세설적 입던 옷, 다섯 요서 일곱설적 입던 옷, 요덥설 입던 옷, 아홉설 열설 입던 옷, 열다섯 입던 옷을 맨딱 이젠 무쇠설각에 쫓어놔, 이젠 너네대로 죽건 죽고, 살건 살랜. 다시 무쇠설각에 들여놔 떠와부난.

“고만히 이젠 잘 얻영 먹고 살아시난 나가 이름을 내기를, 강남 천제국에 난이 조장 낫텐 허난 그디강 도원술 막아야 나가 이젠 혼 맹장으로 이름이 날 것 곱으난 널랑으네 무쇠설각 속에 고만히 앓아시문,35) 나가 혼가지 해야 홀 일이 있젠.”

이젠 각실 무쇠설각에 올린 내비여두고36) 천제국 한터레,

“모리37)는 사오시민 난이 일영 이 밑을 치레 오람시니 어떻힐 것이오” 허니.

“어디서 온 장군님이파? 우릴 살려주커들랑 이제 이 난을 막아줍서.”

헐거 아니? 계난 이 난을 막아줍센 허난 그렇게 허랜. 피치장군 일름38)이 희롱허고 이제 갑옷 다 둘러써고 투구 감췌 다 둘러써고 헤여네,

“난 이제 난 치레 감시메 다덜 놀래지 마라.”

“당신 가는 디 난 못갑니까? 당신이랑 선봉삼서, 난 후봉으로 돌르쿠다.”

각시도 가켄 했어.

“계민 더 베타연 조켄.” 뭐 국가 사변이난 혼 사흘에 앓아 잡아 골겨네 네 진을 치여네 네 진을 다 청39) 천제국을 들어가난,

“아이고 땅을 흔착 주옵네까, 우릴 살려 취시매 물을 흔착 주옵네겐?” 허난.

“물도 말고 땅도 마우덴.”

“계민 무시거 요구힘이겐?” 허난.

“날랑 기자 죽은 남 배영 배 혼 칩을 지어 도랜.”

“그야 어려움니겐.”

허연, 그 배를 지어주난. 이젠 두가지40) 타네 ‘어디로 올르코41)’ 허난, 소섬 짐질각으로 들겐 허난 어기토가 세연 올라오지 못허난 종달리 조머니케 알로 올라오란. 그던 물이 떤 잔잔 현 디주게. 이젠 조머니케로 올라오란, 종달리 넘어사네, 상도42) 넘어상.

34) 이빨

35) 앓아 있으면

36) 내버려 두고

37) 모레.

38) 이름

39) 쳐서(擊)

40) 두 부부

41) 오를까

42) 지명 이름

서화리 괴 앞으로 올라오란.

그뻘 이며도 10월쯤 되었던 고라, 이방 밧간 밧되 어멍이 콩을 불럼서. 콩을 불럼시
난 아무때도 예헨이 센그라, 느진덕정하님은 속숨호지마는⁴³⁾

“아이고 일곱설에 죽어분 죽은 상제님이 살아오랍수다.” 영허난.

“이놈의 씹에 난 년아. 옛날옛적 쇠박앙 보내부난 물에 골라앗앙 삭이부려실 건디.”

“아이고, 진정이우다 진정이우다.”

박박 우기난, 확하게 영 비리젠 현 개⁴⁴⁾ 솔박을 들렁 영허난⁴⁵⁾ 보름 호 주제에 눈
더래 그만 콩각지가 들어간. 아, 박박 부벼가난,

“어머님, 손 영헨씨. 내가 베와 온 재주가 시우다.⁴⁶⁾”

푼채를 들렁 포딱포딱 부끄난⁴⁷⁾ 콩각지가 나오라부난.

“아이고 죽으랜 내분 얘기, 어뎡 상봉허린.”

경호연 당오름에 왕 좌정했덴 호여. 경 좌정허연 허난, 하르방은 이젠,

“아덜 살아오랍수덴.”

허난. 겁난 어드레 듣는고 허난 일송당 저 고브니모루더래 경호연 고부니미르렌 호는
거주. 곱아나부난. 이방은 이제 곱으래 돌단 그만 조배낭 속으배⁴⁸⁾, 솨박허난⁴⁹⁾, 그만
오곳 그 솨에⁵⁰⁾ 빠젠 그 하르방이 죽어불었주게. 후젠, 성제간덜이 무룩무룩 빠져도,

“이방안티 나 알아지쿠과?”

“난 모르켜.”

“어뎡간디 알아지쿠과?”

“난 모르켜.”

겨난 아니 무정허게 앓인 큰 성님은 몰람젠. 겨난 무정헌 문곡성이엔 호여. 경호연
아덜 으섯성제에 다 들어도⁵¹⁾

“난 모르켜, 난 모르켜.” 허난.

일곱챗 아덜이,

“계민 성님은 어덜 가젠 험수겐?”

허난 그 죽은 아덜이, 토산한집이 강,

“대정갑씨 정의갑씨 도리갑씨 김녕갑씨.” 곱으난.

“는 어뎡헨티” 허난,

“나도 갈디 시수다게. 난 이제 선봉후봉 살아난 부부간을 내불어집네젠”

헨, 토산한집으로 들어산겨.⁵²⁾

43) 속숨하다 또는 속숨하다는 속을 숨을 쉬듯이 조용하다는 뜻.

44) 보려고 한 것이

45) 바가지를 머리 위로 드는 시늉을 하며

46) ‘사다’는 ‘이시다, 있다’와 같은 뜻.

47) 부치다.

48) 속예.

49) 나무가 가득하니.

50) 속예.

51) 물어봐도.

9) 信仰民 : 주로 아기가 아프거나 자손이 없어서 고민하는 여자들이 많이 다녔다.

IV. 개인신앙

1. 문전제

- 1) 조왕제를 포함하며 거의 모든 가정에서 지낸다.
- 2) 자녀들의 생기에 맞춰서 정월에 날을 봐서 제를 지낸다.
- 3) 祭儀 執行者 : 다른 마을 심방
- 4) 祭場 : 마루(상방) . 터진 방향을 향한다.
- 5) 祭物 : 백돌레, 실과, 메(조상 수대로)
- 6) 機能 : 집안의 안녕과 평화 기원

2. 토신제

- 1) 제사 지내기 전날 子丑時에 생기를 맞추어 지낸다.
- 2) 격이 높은 제이므로 운수가 맞는 사람만 제를 지낼 수 있었다. 현재는 지내는 집이 없다.
- 3) 祭儀 執行者 : 글 아는 사람
- 4) 祭物 : 장례 때 지내는 산제와 유사한 형태로 제물을 간단히 차린다.

제보자

포제 : 김영근(남 · 63세)

본향당, 산신당, 일똥당 : 고갑생(여 · 83세)

개인신앙 : 고갑생(여 · 83세)

52) 고갑생(여 · 83세), 8월 4일 조사